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197-13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Survey on the Korean Women Farmers, 2008

2008년 12월

연구기관: 전남대학교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08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전 남 대 학 교

총괄연구책임자: 강 혜 정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17

제2장 일반적 특성 및 가구 특성

- 1. 인적특성과 가구특성 20
- 2. 농가 경영주 현황 26
- 3. 영농규모 현황 29
- 4. 여성농업인의 자산 현황 36

제3장 여성농업인의 활동실태

- 1.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 39
- 2.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실태 58
- 3.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실태 63

제4장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수준 및 의식

- 1. 여성농업인의 컴퓨터 이용 현황 66
- 2. 여성농업인 의식 69
- 3.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76

제5장 여성농업인의 복지실태

1. 건강복지	79
2. 보호노동 및 보육	83
3. 연금가입	86
4. 문화향수	88
5. 조직가입 및 활동	90

제6장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

1. 농촌 거주의향	95
2. 교육현황	98
3.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이용 현황	105
4.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111

제7장 요약 및 결과 비교

1.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114
2. 2003년과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비교	127

참고 문헌	138
-------------	-----

부록 1.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139
---------------------------	-----

부록 2. 설문 조사표	144
--------------------	-----

표 차 례

제1장

표 1-1. 『2006 여성통계연보』의 조사항목	5
표 1-2. 농업통계와 여성농업인실태조사의 개요	6
표 1-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7
표 1-4. 조사표 내용	11
표 1-5. 표본추출 개요	13
표 1-6. 8개 지역별 영농형태별 농가 수 분포	14
표 1-7. 지역별 시/군지역의 조사구 분포	14
표 1-8. 지역별 시와 군지역의 표본조사구 배분	15

제2장

표 2-1.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	22
표 2-2.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혼인상태	23
표 2-3. 농관련사업 유형별 농가 분포	26
표 2-4.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비중	28
표 2-5.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 연령 분포	30
표 2-6.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 학력 분포	31
표 2-7.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가 있는 농가 비중	33
표 2-8.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가 있는 농가의 경영주 분포	33
표 2-9. 총소유 농지 중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면적의 비중 분포	34
표 2-10.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 비중의 분포	38

제3장

표 3-1.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	40
---------------------------------	----

표 3-2. 주요특성별 농사일 담당 비중	42
표 3-3. 농작업별 농업노동 담당 비중	44
표 3-4. 여성농업인의 시기별 하루 평균 총노동시간	46
표 3-5. 연령대별 하루 평균 총노동시간	47
표 3-6. 여성농업인의 시기별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	48
표 3-7.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49
표 3-8. 영농형태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49
표 3-9. 경지면적별 농업노동시간	50
표 3-10. 여성농업인의 시기별 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51
표 3-11. 가족규모 및 유형별 가사노동시간	51
표 3-12.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농외노동시간	54
표 3-13. 연령대별 겸업자의 농외노동시간	55
표 3-14. 연령대별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평균점수	57
표 3-15.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희망 취업 및 창업활동 유형	63
표 3-16. 연령대별 지역사회 단체 참여율 분포(복수응답)	64

제4장

표 4-1.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컴퓨터 이용현황	68
표 4-2. 컴퓨터 교육 참여 경험과 컴퓨터 이용 현황	69
표 4-3. 주요 특성별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71
표 4-4. 여성농업인 정체성과 농업노동시간	72
표 4-5. 농업종사 경력 및 농업노동 기여도와 농업인 정체성	73

제5장

표 5-1. 요보호 가구원 현황	84
표 5-2. 만6세 미만 아동의 보육 방식	85
표 5-3. 연령대별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90
표 5-4. 연령대별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 가입률	92
표 5-5.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평균 가입 조직수	94

제6장

표 6-1. 농촌거주 의향	96
표 6-2. 주요 특성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98
표 6-3. 지난 3년간의 교육경험 여부(복수응답)	100
표 6-4. 향후 교육수요(복수응답)	102
표 6-5. 주요 특성별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104

제7장

표 7-1.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방법 비교	127
표 7-2.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 인적 및 가구특성 비교	129
표 7-3.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각 항목별 결과 비교	131

그림 차례

제1장

- 그림 1-1. 여성농업인의 범위 17
 그림 1-2.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 경제활동 지위, 생애주기 구분 18

제2장

- 그림 2-1.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20
 그림 2-2. 2003년과 2008년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연령분포 비교 21
 그림 2-3. 여성농업인의 학력 수준 22
 그림 2-4.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학력 분포 22
 그림 2-5. 여성농업인의 겸업종사기간 분포 23
 그림 2-6. 여성농업인의 겸업일 유형 24
 그림 2-7. 가족원수 분포 24
 그림 2-8. 가구형태 분포 25
 그림 2-9. 전/겸업 농가 분포 26
 그림 2-10. 농가 경영주 분포 27
 그림 2-11. 여성 경영주의 연령 분포 27
 그림 2-12. 여성 경영주의 혼인상태 분포 28
 그림 2-13. 주영농 형태 30
 그림 2-14. 조사대상 농가의 경작지 및 소유농지의 평균 규모 32
 그림 2-15. 지난 1년간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 35
 그림 2-16. 70대 이상 독거 여성의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 35
 그림 2-17.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지출액 36
 그림 2-18. 70대 이상 독거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가계지출액 36
 그림 2-19.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의 유형별 분포 (복수응답) 37

그림 2-20. 본인 명의의 자산을 소유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 38

제3장

그림 3-1.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	40
그림 3-2.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41
그림 3-3.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43
그림 3-4. 여성농업인의 경종 농작업 노동 기여도	44
그림 3-5. 여성농업인의 축산업 노동 기여도	45
그림 3-6. 여성농업인의 수확후 관리 노동 기여도	45
그림 3-7. 여성농업인과 기혼취업여성의 노동시간 비교	52
그림 3-8. 전·겸업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	53
그림 3-9.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56
그림 3-10.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여부	58
그림 3-11.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	58
그림 3-12.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	59
그림 3-13.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	59
그림 3-14. 비임금근로자 유형 분포	60
그림 3-15. 임금근로자 유형 분포	60
그림 3-16.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수입	61
그림 3-17. 농외소득활동 유형별 종사 및 창업 의향(복수응답)	61
그림 3-18.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취업 및 창업 의향	62
그림 3-19.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복수응답)	64
그림 3-2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활동 유형(복수응답)	65

제4장

그림 4-1. 농업관련 컴퓨터 이용 현황	67
그림 4-2.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컴퓨터 활용 용도	67
그림 4-3. 본인의 영농지위에 대한 평가	70
그림 4-4. 여성농업인 의식	75

그림 4-5. 여성농업인의 의식(4점척도)	76
그림 4-6.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77
그림 4-7.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4점척도)	78

제5장

그림 5-1.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	79
그림 5-2.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5점척도)	80
그림 5-3. 지난 2년간 종합건강검진 경험	80
그림 5-4. 연령대별 건강검진 현황	81
그림 5-5. 산후조리기간	82
그림 5-6. 연령대별 산후조리기간	82
그림 5-7. 만6세 미만 아동 보육 현황	85
그림 5-8. 농촌보육시설의 주요 요건(1순위)	86
그림 5-9. 연금가입 현황	87
그림 5-10.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87
그림 5-11. 여성농업인의 문화행사 참석 및 문화시설 이용도	88
그림 5-12. 연령대별 문화향수 정도	89
그림 5-13.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89
그림 5-14. 여성농업인의 관련 조직 가입률	91
그림 5-15. 배우자의 농업인 관련 조직 가입률	91
그림 5-16. 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93
그림 5-17. 가입조직수	93

제6장

그림 6-1. 향후 농촌거주의향	95
그림 6-2.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97
그림 6-3. 여성농업인의 교육경험	99
그림 6-4. 여성농업인의 교육수요	100
그림 6-5. 연령대별 향후 교육 희망자 비중	101

그림 6-6.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103
그림 6-7.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	105
그림 6-8. 여성농업인 정책의 이용률	105
그림 6-9.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현황	106
그림 6-10.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지위향상 관련 제도	107
그림 6-11.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도우미제도	108
그림 6-12.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 ...	109
그림 6-13.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여성농업인대회, 여성농업인센터, 가족경영협약	110
그림 6-14.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국제여성결혼이민자사업 ...	110
그림 6-15. 향후 여성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과제(1순위)	111
그림 6-16. 젊은 여성농업인(40대 미만)의 정책수요	112
그림 6-17. 중장년 여성농업인(40대, 50대)의 정책수요	113
그림 6-18. 고령 여성농업인(60대 이상)의 정책수요	113

제7장

그림 7-1. 산업별 남성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	115
그림 7-2. 성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추이	1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농업 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07년 53%로 지난 38년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2007년 기준 여성 가족노동시간이 전체 가족 농업노동시간의 44%를 차지하고 있다¹.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업 현실에서,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영농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활동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예, 축산, 낙농, 버섯 등의 생산과 친환경농업 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1 2007년 농업조사(통계청), 2007년 농가경제조사(통계청)

이 두드러지고, 농산물 가공업, 관광농원 등의 농외소득 분야에서는 여성 농업인 CEO가 등장하고 있다. 마을 노인 돌봄, 보육교사, 학교급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와 후견인 역할 등 농촌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그 역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남성 중심의 문화와 제도적 틀 안에는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 인력으로 발전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중장년 여성농업인이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법적 지위 미약,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 노동 부담,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부족 문제, 리더십 부족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강혜정 외., 2007).

농가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은 더 넓어지고, 그 역할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활동성장에 따라 향후 농업 경쟁력과 농촌 발전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력 확보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 및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농업인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우선 수행되어야 할 작업은 여성농업인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이다. 1995년 제 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관련 통계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하여 1994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여성통계연보』가 있다(표 1-1 참조).

성인지적 농업통계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성농업인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2002년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에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2003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농업분야 지정·조사통계인 농업총조사와 농가경제조사는 표본대표성과 조사항목 측면에서 활용가능한 통계이나 농가단위와 가구주를 중심으로 설문 내용이 조사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의 실태 분석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1-2 참조). 농업통계에서 경영주(또는 가구주)를 남녀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남성경영주인 농가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은 배우자(또는 가구원)로서 간단한 인적사항, 즉 연령, 학력, 농사기간, 주종사분야, 노동시간 등의 정보만 조사되고 있다. 개인별 자산현황, 영농활동, 생산자조직 참여, 정보화 수준 등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개인의 활동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처음 실시된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무작위 층화 추출된 1,500여 전국 농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구현황, 농업종사현황 및 의식, 복지실태, 정책실태 및 수요 등을 조사한 바 있다(표 1-3 참조). 그러나 2003년 실태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 조사에 주 초점을 맞추어 농외소득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역할 수행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이 여성농어업인육성법(2002년)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점을 고려하면, 2003년 실태조사에서는 정책 평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2003년 실태조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5년간 변화한 농업·농촌 현실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실태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 및 내용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성농업인 통계를 이용하는 연구자 또는 정책입안자 등의 다각적 통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가 되도록 설문항목 구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활동영역을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실제 활동 실태를 반영하는 설문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당한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 현실에서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06~’10)’ 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그 동안의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수요 조사에 관한 설문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이후 5년마다 실시되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통계자료의 축적을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역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문항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설문항목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인 여성농업인 통계 DB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 통계자료의 축적을 위해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설문문항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추가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기존 설문 항목 구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농업통계자료 및 일반 여성관련 통계자료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표 1-1. 『2006 여성통계연보』의 조사항목

구분	조사 항목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구, 인구구성, 인구분포, 인구이동, 출생, 성별인구변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 가족구성, 가족형태, 가구주 • 가족형성: 결혼, 자녀출산, 이혼 • 가족생활: 가족생활선호, 생활안정, 가사노동, 거주형태 • 가족관: 혼인관, 자녀관, 부모관
보육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서비스: 보육아동 및 시설 이용, 양육실태, 양육 서비스에 대한 태도 • 보육예산: 영유아 보험료 지원 현황
교육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회: 교육수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기회, 직업훈련 • 교육여건 및 자원: 인력자원, 교육비 및 교육환경 • 교육의 결과: 교육효과, 인력 양성 지표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현황: 경제활동참가 규모 및 특성, 비경제활동 인구 • 여성취업 현황: 산업별 취업자 분포, 직업별 취업자 분포,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분포, 농가 및 비농가의 취업자 분포, 사업체 대표자 분포 • 여성취업 특성: 피고용율 추이,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분포, 36시간미만 취업자 분포, 임금근로자 분포, 부부의 취업형태 •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근로조건 • 고용안정: 취업경로, 노동이동 • 노사관계: 노조참여 • 취업: 취업사유, 태도,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직업선택 요인 • 소득: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건강상태, 출산 및 사망, 상병, 보건의료 이용 정도, 보건의료 자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의 여성의 적용률과 수혜율 •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치 및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정치참여와 행정참여 현황, 여성단체 활동 참여와 종교 활동
문화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활동: 문화생활, 여가활동, 문화의식 • 정보미디어 접촉도 및 활용 • 정보화 정도 및 인식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범죄피해 실태, 여성범죄의 유형과 특성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가 여성의 지위 비교

자료: 주재선·황보은, 『2006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1-2. 주요 농업통계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비교

	농업총조사 (2005년)	농가경제조사 (2005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3년)
조사기관	통계청	통계청	농림부
법적근거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 통계 제10141호	통계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지정통계 101 42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
조사주기	매5년	매년	매5년
표본추출 방법	농가전수조사	층화추출법 (2000년 농업총조사의 1,384천 농가 모집단)	층화추출법 (2000년 농업총조사의 1,384천 농가 모집단)
여성 표본수	15세 이상 농업주종사 여성인구 1,102,321명 (농업인구의 52%)	여성농업인 3,048명 (배우자, 가족구성원)	여성농업인 1,521명
여성농업인 관련 설문항목	배우자 또는 가구원으 로서 여성농업인의 인 적사항, 여성경영주 실 태 등	배우자 또는 가구원 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인적사항, 여성농업인 의 농업노동시간 등	여성농업인의 인적사 항, 가구현황, 영농활 동 현황 및 의식, 복 지실태, 정책수요 등
표본 여성농업인 연령분포	평균 58.5세 40세미만: 5.5% 40대: 14.9% 50대: 24.3% 60대: 34.2% 70세이상:21.1%	평균 57세 40세미만: 5.1% 40대: 20.2% 50대: 26.1% 60대: 32.5% 70세이상:16.1%	평균 58.2세 40세미만: 5.7% 40대: 16.9% 50대: 27.1% 60대: 36.3% 70세이상:14.1%

표 1-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조사항목

구 분	조사 항목	
가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규모(논/밭/과수원/하우스 등) • 주영농형태 • 경영주 • 예금액 	
농업종사 현황 및 의식	• 농업종사경력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종사경력 - 향후 농업계획 • 생산규모 확대/축소 계획 • 신규농사 및 창업의향
	• 농업노동분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노동 기여도 - 분야별 농사일 작업비중
	• 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 노동시간 • 농업노동시간 • 가사노동시간 • 농외노동시간
	• 의사결정 참여도	- 농업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도
	• 컴퓨터 이용현황	- 컴퓨터 이용현황
	• 여성농업인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정체성 - 농업관 - 여성농업인 진취성, 성역할의식
복지실태	•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현황 - 출산/산후조리 현황
	• 보호노동 및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를 요하는 가구원 현황 - 보육현황 - 보육시설 요구사항
	• 연금가입 현황	-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현황
	• 문화복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 참석 현황 - 공공 문화시설 이용현황
	• 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조직 가입현황
정책수요	• 농촌 거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농촌거주의향 -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교육현황	- 교육 경험여부, 교육 참석빈도 및 불편 사항
	• 정책 인지 및 시설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인지 - 제도 이용여부

자료: 김영옥·김이선,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2008년 여성농업인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국단위의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현황 및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수요 조사와 중장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표본 대표성 있는 전국단위의 여성농업인 표본추출 및 표본조사 설계
- (2)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활동 및 역할 수행 실태 등에 관한 조사항목 보완
- (3)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 도출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연구 내용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본고의 연구내용은 조사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조사표 내용은 <표 1-4>과 같다. 조사표는 가구현황, 여성농업인의 영농, 농외소득, 지역사회활동 실태, 정보화 및 의식, 복지실태, 정책수요 등의 영역에서 총 60여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층화 추출된 1,500여 농가의 여성농업인이다.

제2장에서는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인적특성과 가구특성을 분석한다. 가구원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농업활동기간, 농외소득활동 기간 및 종류 등의 현황, 경영주 현황, 농관련사업 겸업 여부 및 종류, 농축산물 연평균 판매액, 월평균 가계지출액, 경작지의 소유면적과 여성농업인 명의의 경작지 규모, 영농규모, 주영농형태, 여성농업인 본인 명의의 자산보유 현황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실태, 즉,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 활동 실태를 분석한다. 영농활동 실태 분석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종사기간, 농업노동 담당 비중, 작업유형별 농업노동 기여도를 조사하며, 농업주기별로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농업노동, 가사노동, 농외노동으로 분류해 분석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정도를 파악한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도를 파악하여 농가의 농업노동과 경영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한다. 농외소득활동 실태 분석에서는 농외소득활동에서 종사상 지위, 월평균 농외수입, 향후 농외소득활동 의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사회활동 현황에서는 지역사회단체 참여 현황 및 지역사회 활동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농업정보화와 관련된 여성농업인의 인적 자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농업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 관련 복지 수준은 건강검진과 산후조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보호노동과 보육 현황, 농촌보육시설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연금가입 현황을 파악한다. 문화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행사 참석 및 문화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참석 및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주요 조직 참여 현황을 파악한다.

제6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촌거주 의향, 여성농업인 교육현황,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책 등을 파악한다. 향후 농촌거주의향과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 지난 3년간의 교육훈련 수혜 실태와 향후 교

육요구를 파악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각종 정책과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2008년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2003년과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비교·분석한다.

표 1-4. 조사표 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가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별 현황(성별/연령/혼인상태/정규교육/농업활동기간/농외소득활동기간 및 종류) • 판매·지출·농사규모(논/밭/과수원/하우스 등) • 본인 명의의 자산 보유 현황
여성농업인의 활동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활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종사기간 - 농사일 담당 비중 - 농작업 유형별 농업노동 담당 비중 - 농번기·농한기별 농업노동, 농외노동, 가사노동시간 - 농업경영 의사결정 유형별 관여도 • 농외소득활동 및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일 이외의 일 종사 여부 - 종사상 지위 - 월 평균 수입 - 향후 유형별 농외소득활동 의향 • 지역사회활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단체 참여 현황, 지역사회 활동 현황
정보화 수준 및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관련 컴퓨터 이용 현황 •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복지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현황 • 출산/산후조리 현황 • 보호를 요하는 가구원 현황 • 농촌 보육시설 수요 현황 • 연금가입현황 • 문화시설 이용현황 및 불참석 이유 • 조직 가입현황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거주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농촌거주의향,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교육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경험여부, 교육 참석빈도, 불편사항 •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 및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인지, 제도 이용 정도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2.2. 연구 방법

2.2.1. 표본추출

가. 모집단 정의

목표 모집단은 전국(제주제외) 읍, 면, 동 지역의 모든 농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여성전체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접촉 가능성과 조사 편이성을 고려하여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사용하였던 농업 조사구와 행정리를 1차 추출단위로 하여 200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210개 읍, 1,200개 면, 2,163개 동에 속한 농가를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한다.

조사단위는 표본농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으로 정의하였다.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사용한 농업조사구 수는 38,757개이고 농가수는 1,272,908호이다. 1차 추출단위인 농업조사구를 추출한 후에 각 조사구별로 10개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농가수가 20가구 이상인 조사구만을 조사대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36,414개 조사구이고 농가수도 1,242,253가구로 전체의 97.6%이므로 목표 모집단을 대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모집단분석이나 표본추출법은 36,414개 조사구로 제한한다.

표 1-5. 표본추출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제주 제외)의 농가
표본추출 모집단	2005년 농업총조사의 36,414개 조사구
표본크기	1,501가구 (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지역과 영농형태를 고려한 층화 후 무작위 추출법 (stratified sampling)
표본오차	±2.5% (신뢰수준 95%)

나. 모집단 분석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을 지역별-영농형태별로 층화한다. 또한 조사의 경제성과 시간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역층은 8개 도 지역으로 나누고(광역시는 인근 도지역에 포함) 이를 다시 시부와 군부로 나누었다. 영농형태는 ‘논벼’, ‘과수’, ‘특작’, ‘채소’, ‘화훼’, ‘전작’, ‘축산’과 ‘기타’로 8개 층으로 구분하였다. 8개 지역에 대해서 영농형태별로 층화한 조사모집단의 농가 수를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논벼’의 농가가 전체의 52.5%인 633,581가구이고, 그 다음이 ‘채소’농가로서 전체의 17.8%인 214,763농가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27,967농가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전남이 208,832농가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업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표 1-6. 지역별 영농형태별 농가 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논벼	과수	특작	채소	화훼	전작	축산	기타	합 계
경인	84,189	8,359	2,269	25,239	3,868	14,080	12,414	439	150,857
강원	28,540	1,812	2,242	14,506	266	22,007	5,012	116	74,501
충북	39,507	12,415	3,804	12,378	316	10,854	4,882	242	84,398
충남	105,521	9,182	5,149	25,292	740	11,930	10,301	204	168,319
전북	78,805	5,827	2,962	15,686	811	8,703	6,725	267	119,786
전남	121,731	12,712	2,590	38,707	1,017	20,484	10,382	1,209	208,832
경북	93,004	52,448	5,666	42,508	436	18,325	15,032	548	227,967
경남	82,284	18,674	2,184	40,447	1,976	10,853	15,173	334	171,925
합 계	633,581	121,429	26,866	214,763	9,430	117,236	79,921	3,359	1,206,585

농가수의 분포도 중요하지만 8개 지역에서 1차 표본추출단위는 조사구 이므로 조사구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강원도, 충북, 전남과 경남이 시 지역에 비해서 군 지역의 조사구 수가 월등하게 많게 분포되어 있으며 조사구 수에서는 전남과 경북이 각 6,016개와 6,948개로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7. 지역별 시/군지역의 조사구 분포

단위: 가구

구분	경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시지역	2,788	925	601	2,330	1,826	1,371	3,980	2,304	16,125
군지역	2,563	1,503	2,038	2,675	1,884	4,645	2,968	3,149	21,425
합 계	5,351	2,428	2,639	5,005	3,710	6,016	6,948	5,453	37,550

다. 표본배분 및 조사구 추출

전체 조사 농가수가 1,500가구이고 각 가구당 1명을 조사하므로 한 조사구 당 몇 농가를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1차 추출단위의 표본크기는 결정된다. 면접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비용과 조사실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한 조사구에서 10개 농가를 표본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에서 표본 조사구를 150개로 정하고 150개 표본조사구를 지역별로 배분하면 <표 1-8>와 같다.

표 1-8. 지역별 시/군지역의 표본조사구 배분

단위: 가구

구분	경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시지역	11	4	2	9	7	5	16	9	65
군지역	10	6	8	11	8	19	12	13	85
합 계	21	10	10	20	15	24	28	22	150

표본조사구들은 각 도지역내에서 시지역과 군 지역을 층으로 분리한 후에 각층에서 조사구들을 영농형태(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전작, 기타)순으로 정렬한 후에 계통추출 한다. 선정된 표본조사구내에서 표본농가는 조사구내의 농가들의 영농형태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확률로 추출한다. 최종적으로 각 도지역내에서 표본농가의 영농형태 분포는 <표 1-6>에 주어진 도 지역별 영농형태의 분포와 같도록 비례 할당법으로 계산하여 표본농가를 선정한다. 경인지역(서울포함)을 예로 들면 210개 표본농가의 영농형태별 분포는 논벼-116, 과수-12, 특작-3, 채소-35, 화훼-5, 전작-20, 축산-17, 기타-2 농가이다.

2.2.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현재 농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여성 중 지난 1년(2007년 9월1일~2008년 8월31일)간 3개월 이상 농사일을 한 여성이다. 해당가구에 여성농업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일을 더 많이 하는 여성이 해당된다.

2.2.3.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face-to face personal interview)방식이며, 이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만들었다. 조사는 2008. 10. 6 ~ 11. 4까지 2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여 조사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여 실사과정이 표준화(standardization)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포괄적으로 교육하였다.

다음으로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supervisor)가 매시간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앞에서 검토하여 그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통제시스템(quality control system)으로 실사를 통제, 관리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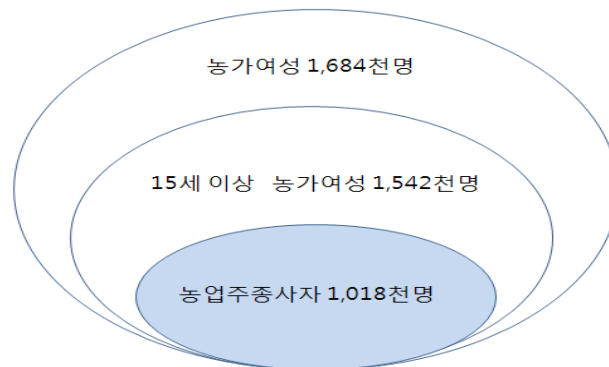
또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중 20% 이상을 무작위 추출, 검증원이 전화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비표본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여성농업인은 15세 이상의 농가여성으로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농사일을 한 농업 주종사자로 규정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겸업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농가여성 중 농업 이외 일을 주업으로 하는 여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1. 여성농업인의 범위(2007년)



자료: 통계청, 「2007년 농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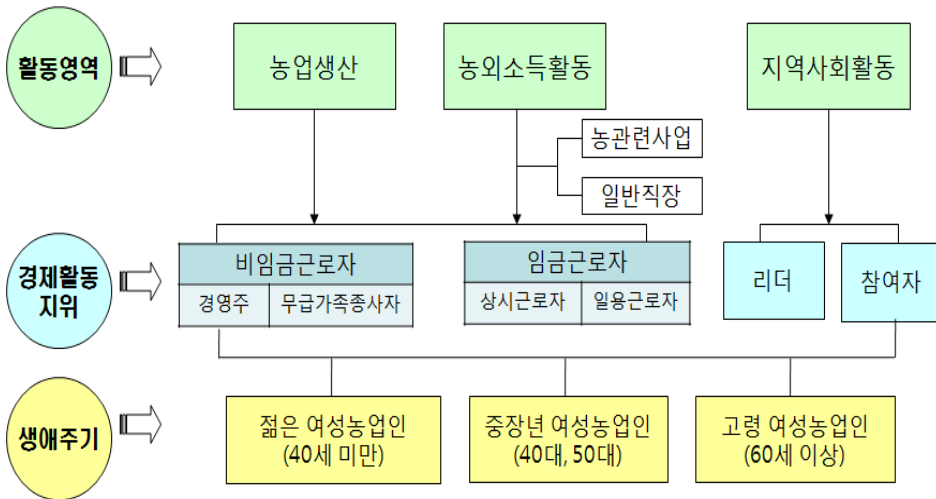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을 크게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으로 구분한다.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지위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나뉜다.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경영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지위로 구분되며, 임금근

로자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².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겸업일 유형은 크게 농관련사업(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 농산물가공, 농촌관광 등)과 농외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은 리더와 참여자로 구분된다.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농업인, 40대와 50대의 중장년 여성농업인,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으로 구분한다.

그림 1-2.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 경제활동 지위, 생애주기 구분



2 김경미 외(2004, 2005)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을 독립경영주, 준경영인, 협업/공동경영주, 농업보조자, 임금근로자로 세분화하였으나, 이는 경제활동상의 지위라기보다는 농업경영 참여정도에 따른 지위로 볼 수 있다. 사실 부부 중심의 가족경영이 다수인 우리나라 농가에서 여성농업인 지위를 세분화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지위를 구분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 종사상 지위를 이용한다.

3.2. 연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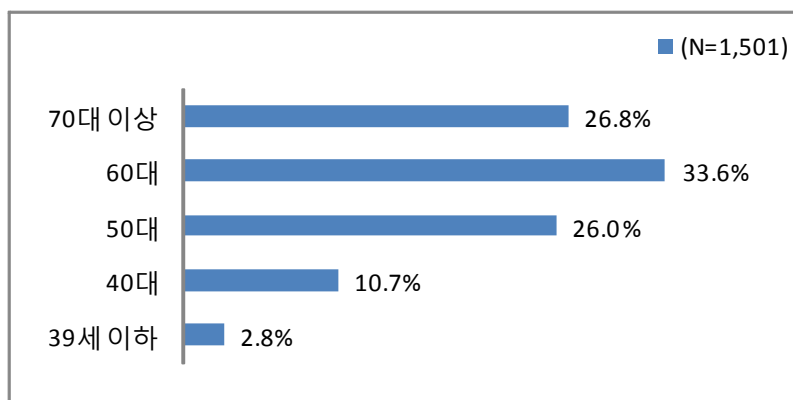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농가가 아니라 여성농업인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전체 농가(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표본 추출된 농가에는 본 조사에서 정의한 대로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농사일을 한 1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이 없을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분석 가능한 표본수 확보를 위해 이들 농가를 건너뛰고, 대체 응답자를 찾기 위해 다음 농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일 가구에서 여성농업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중장년층 여부와 농업 종사정도를 판단하여 그 가구를 대표할만한 여성 1명만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모든 농가를 표본추출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등 공식통계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 인적특성과 가구특성

2008년 평균 여성농업인은 62세의 초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이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연령은 22세에서 87세에까지 이르고, 40세 미만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2.8%로 매우 낮고, 40대는 10.7%, 50대는 26.0%, 6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 이 중 70세 이상의 고령여성농업인은 26.8%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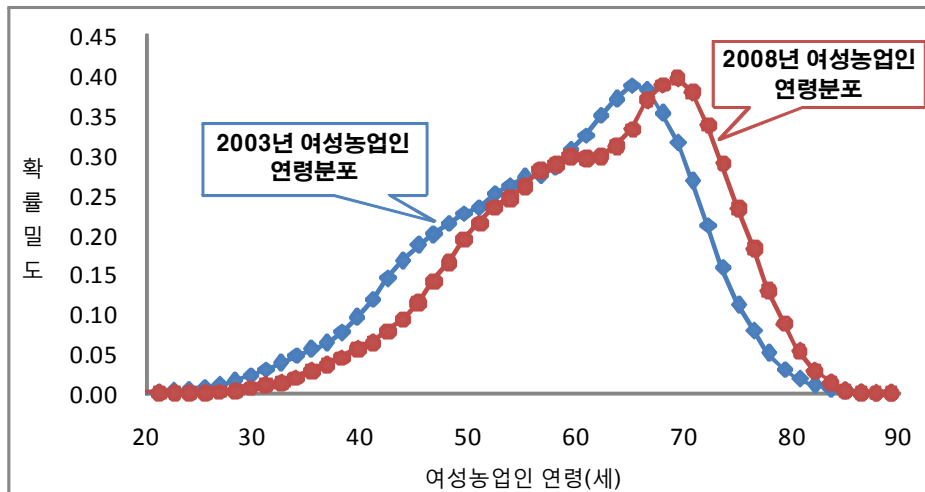
그림 2-1.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40세 미만 여성농업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자녀양육 등의 가사노동이 많은 시기여서 영농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농업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 유입 저조 현상은 농업·농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과 2003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를 비교하면 <그림 2-2>과 같다. 60대 이상 여성농업인 비중이 2003년에 50.4%에서 2008년 60.4%로 증가한 반면, 40대 이하 여성농업인 비중은 2003년 22.6%에서 2008년 13.6%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지난 5년간 40대 미만의 신규 여성농업인의 유입은 거의 없었고, 기존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는 진전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 2003년과 2008년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연령분포 비교



주: 연령분포는 비모수적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로 추정되었음.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학력은 무학이 33.8%, 초등학교 졸업 42%, 중졸 13.7%, 고졸 9.3%, 대졸 이상 1.2%로,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은 대체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의 64.3%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

력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50대, 60대 여성농업인의 53%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수준이다. 70대는 정규교육과정을 접하지 못한 여성이 67%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학력수준이 가장 낮다.

그림 2-3. 여성농업인의 학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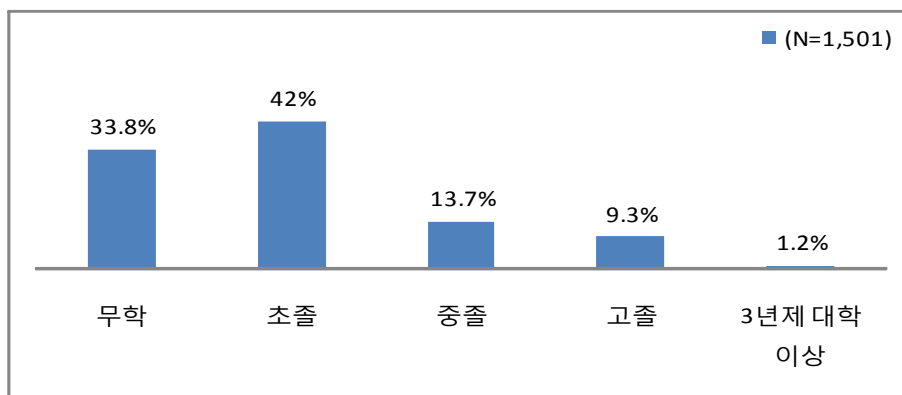


표 2-1.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

단위: 명(%)

	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합계
무학	1(2.4)	5(3.1)	38(9.7)	194(38.4)	270(67.0)	508(33.8)
초등졸	1(2.4)	38(23.8)	206(52.7)	265(52.5)	120(29.8)	630(42.0)
중졸	7(16.7)	47(29.4)	102(26.1)	37(26.1)	12(3.0)	205(13.7)
고졸	27(64.3)	62(38.8)	42(10.7)	8(10.7)	1(0.2)	140(9.3)
대졸	6(14.3)	8(5.0)	3(0.8)	1(0.8)	0(0.0)	18(1.2)
합계	42(100)	160(100)	391(100)	505(100)	403(100)	1,501(100)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중 남편이 있는 여성이 75%이고, 사별한 여성은 23.9%를 차지한다.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42.9%가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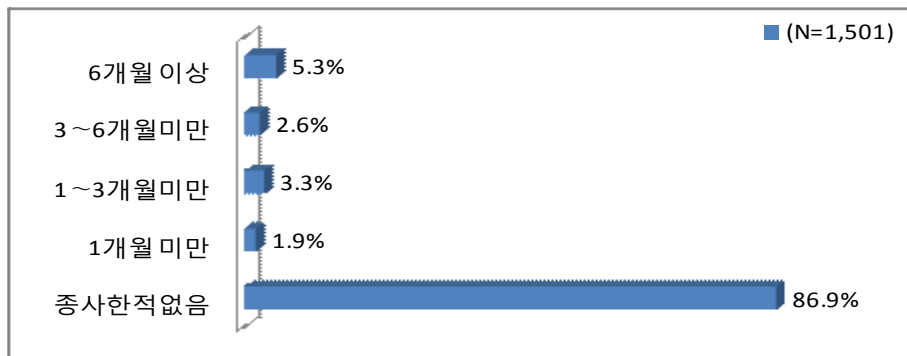
표 2-2.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혼인상태

단위: 명(%)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합계
39세 이하	2(4.8)	40(95.2)	0(0.0)	0(0.0)	42(100)
40대	3(1.9)	154(96.3)	3(1.9)	0(0.0)	160(100)
50대	1(0.3)	353(90.3)	37(9.5)	0(0.0)	391(100)
60대	7(1.4)	352(69.7)	145(28.7)	1(0.2)	505(100)
70대 이상	2(0.5)	227(56.3)	173(42.9)	1(0.2)	403(100)
합계	15(1.0)	1,126(75.0)	358(23.9)	2(0.1)	1,50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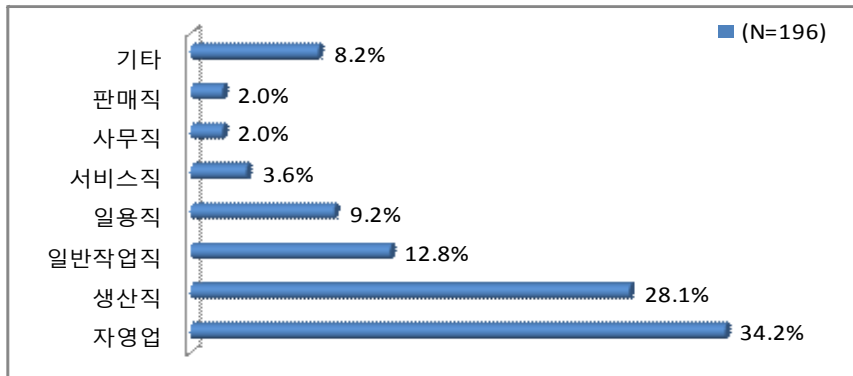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중 지난 1년간 농사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적이 있는 여성은 총 196명으로 전체 여성의 13.1%이다. 3개월 이상 종사자는 약 8%이고,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도 5.3%이다.

그림 2-5. 여성농업인의 겸업종사기간



겸업 종사 여성농업인 196명이 하는 일의 유형을 보면 자영업이 3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생산직으로 28.1%이다. 일반작업직이 12.8%, 일용직이 9.2%, 서비스직이 3.6%이며, 판매직과 사무직은 각각 2%이다. 이로써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하는 겸업일은 자영업과 생산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여성농업인의 겸업일 유형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가 49.4%로 가장 많지만 3~4명인 가구가 23.6%, 1인 가구가 16.1%, 5명이상 가구가 11% 등 다양하게 분포한다. 가구형태 역시 부부가구가 45.4%로 주류이며, 단독가구와 2세대 가구의 비중은 각각 16.1%, 3세대가구는 11.5%,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는 1.7%이다. 2003년(1세대가구가 41.6%, 독신가구가 11.6%)에 비해 2008년에 부부가구와 독신가구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대 가구가 전체의 16.1%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르면 중학교부터 시작되는 자녀들의 유학 등이 더해진 농촌가구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2-7. 가족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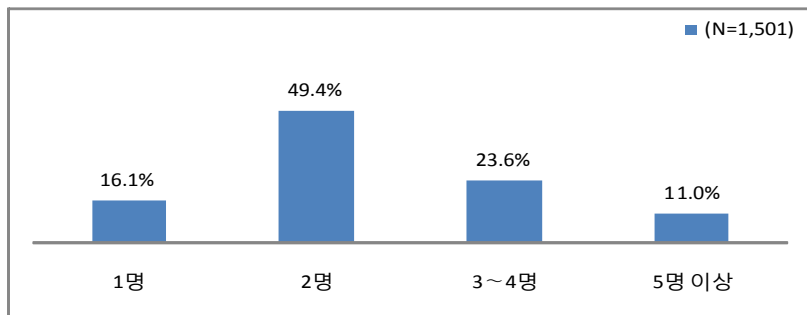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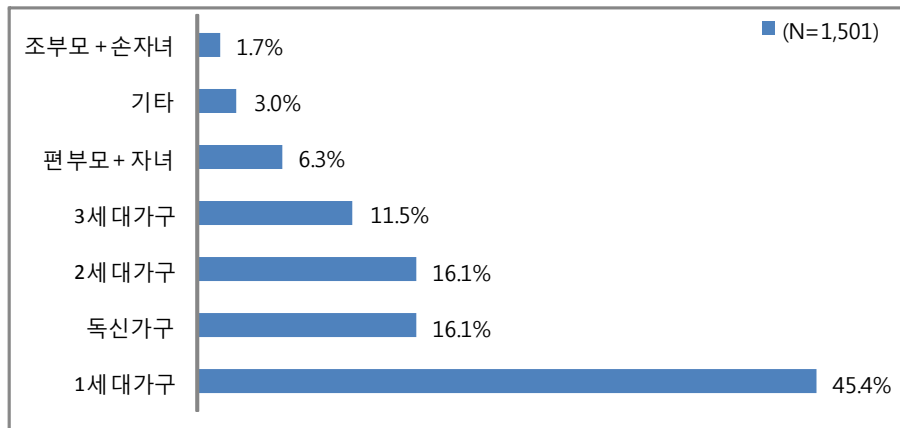


그림 2-8. 가구형태 분포



조사대상 가구에서 전업농이 69.6%, 제2종 겸업농이 15.5%, 제1종 겸업농이 14.9%이다.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한 「2007년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는 전업농 비중이 61%, 제2종 겸업농이 27%, 제1종 겸업농이 12%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전업농 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본조사가 무작위 추출된 표본농가 중 여성농업인이 없는 농가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추정된다. 즉,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만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업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추출되었다.

조사대상 가구 중 지난 1년간 농관련사업을 한 적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1.2%이며, 그 중 72%가 농산물 가공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전/겸업 농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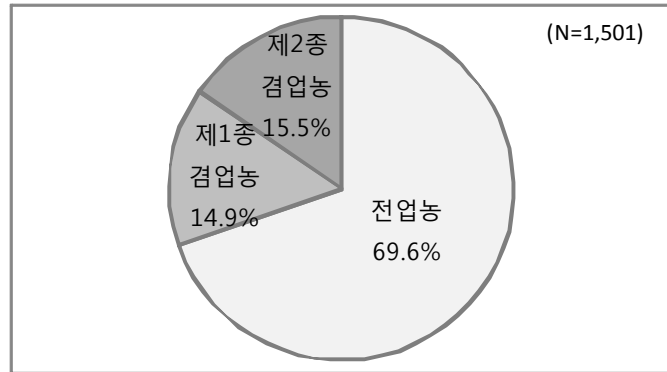


표 2-3. 농관련사업 유형별 농가 분포

	사례수(명)	비중(%)
농산물가공업	13	0.9
농가민박	3	0.2
기타 사업	2	0.1
하지 않았음	1,483	98.8
합계	1,501	100

2. 농가 경영주 현황

농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경영주가 남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을 경영주로 응답한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나머지 3.4%는 자녀, 부모, 사위 등이 경영주라고 응답하였다.

본인을 경영주로 응답한 395명의 여성농업인은 대체로 고령이며 배우자

가 없다. 여성 경영주의 83.8%가 60대 이상이며, 또한 여성 경영주의 81.5%가 남편과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경영주의 대다수는 남편과 사별한 독신가구의 고령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는 남성경영주에 의해 대표되고,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그림 2-10. 농가 경영주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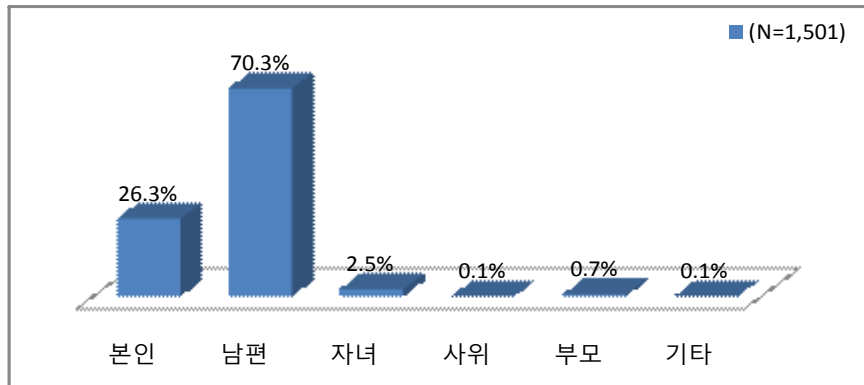


그림 2-11. 여성 경영주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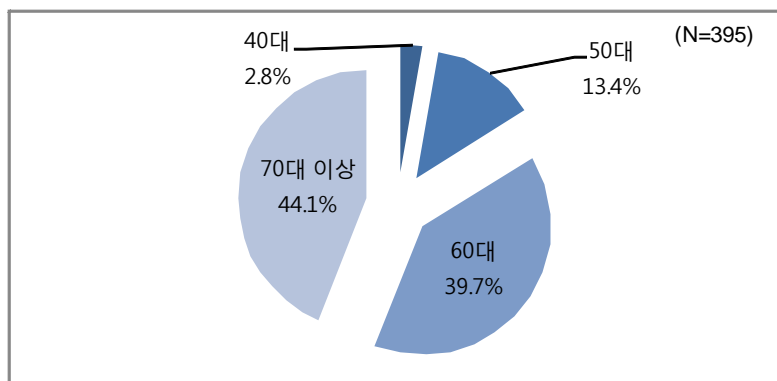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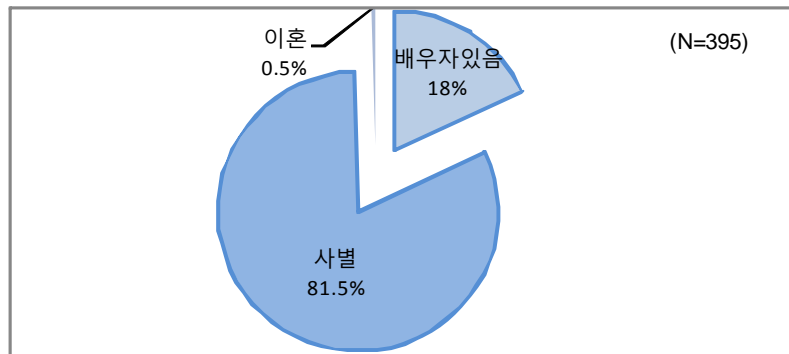


그림 2-12. 여성 경영주의 혼인상태 분포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 경영주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밭작물 농가의 43.8%, 화훼농가의 33.3%가 여성 경영주 농가로, 다른 영농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축산농가에서는 여성 경영주 비중이 4.2%로 가장 낮다. 이처럼 여성경영주 농가는 일반밭작물 중심의 자가 소비적 영농형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것은 여성경영주의 고령 및 저학력과 무관치 않은 결과이며, 또한 동일연령과 학력의 경우에도 여성이 해당 영농기술과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4.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비중

단위: %(명)

구분	본인	남편	자녀	사위	부모	기타	계
논벼	26.4	70.0	2.4	0.0	1.0	0.2	100.0(823)
과수	20.4	77.2	2.5	0.0	0.0	0.0	100.0(162)
채소	21.8	76.3	0.9	0.0	0.9	0.0	100.0(211)
화훼	33.3	53.3	6.7	6.7	0.0	0.0	100.0(15)
일반밭작물	43.8	53.6	2.6	0.0	0.0	0.0	100.0(194)
특용작물	12.9	80.6	6.5	0.0	0.0	0.0	100.0(31)
축산	4.2	89.6	6.3	0.0	0.0	0.0	100.0(48)
기타	20.0	73.3	6.7	0.0	0.0	0.0	100.0(15)
모름/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1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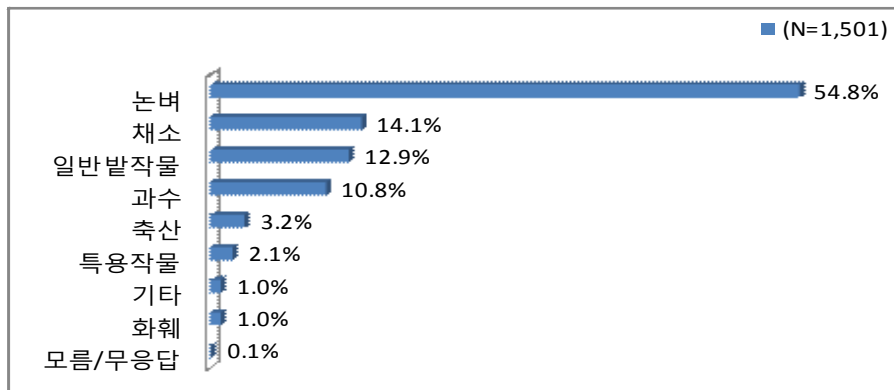
3. 영농규모 현황

3.1. 주영농 형태

조사대상 농가의 지난 1년간 판매금액이 가장 큰 작물로 규정되는 주영농 형태는 논벼가 54.8%, 채소 14.1%, 일반 밭작물 12.9%, 과수 10.8%, 축산 3.2%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 농가의 영농형태는 논벼가 50%, 채소 21%, 일반 밭작물 6%, 과수 12%, 축산 7%, 특용작물 3%, 화훼 1% 등으로 분포하였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는 주 영농형태가 일반밭작물인 농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채소농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본조사가 표본지역의 대상농가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없는 농가를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본 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일반밭작물을 주 영농형태로 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추출되었다.

그림 2-13. 주영농 형태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일수록 축산, 화훼, 특작, 채소, 과수 중심의 영농형태를 보이고, 고령층일수록 일반밭작물, 논벼 중심의 영농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2-5.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 연령 분포

단위: %(명)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합계
논벼	1.9	8.6	21.6	36.5	31.3	100(823)
과수	2.5	12.3	30.9	38.3	16.0	100(162)
채소	5.2	13.3	40.3	26.5	14.7	100(211)
화훼	0.0	33.3	20.0	20.0	26.7	100(15)
일반밭작물	1.5	5.7	23.2	34.0	35.6	100(194)
특작	9.7	16.1	32.3	22.6	19.4	100(31)
축산	10.4	37.5	31.3	16.7	4.2	100(48)
기타	0.0	13.3	26.7	20.0	40.0	100(15)
합계	2.8	10.7	26.0	33.7	26.8	100(1499)

주: 1,501명 중 2명은 모름/무응답.

여성농업인의 학력에 따른 주 영농형태는 학력이 중졸이상인 농가일수록 채소, 화훼, 특작, 축산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층 여성농업인은 논벼, 전작과 같은 전통작목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표 2-6.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 학력 분포

단위: %(명)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합계
논벼	37.7	44.0	10.6	6.9	0.9	100
과수	20.4	50.0	16.7	11.1	1.9	100
채소	25.6	40.8	18.5	14.2	0.9	100
화훼	40.0	13.3	33.3	13.3	0.0	100
일반밭작물	43.3	35.1	13.4	7.2	1.0	100
특작	32.3	32.3	22.6	9.7	3.2	100
축산	14.6	29.2	18.8	31.3	6.3	100
기타	20.0	46.7	26.7	6.7	0.0	100
합계	33.8	42.0	13.6	9.3	1.2	100

주: 1,501명 중 2명은 모름/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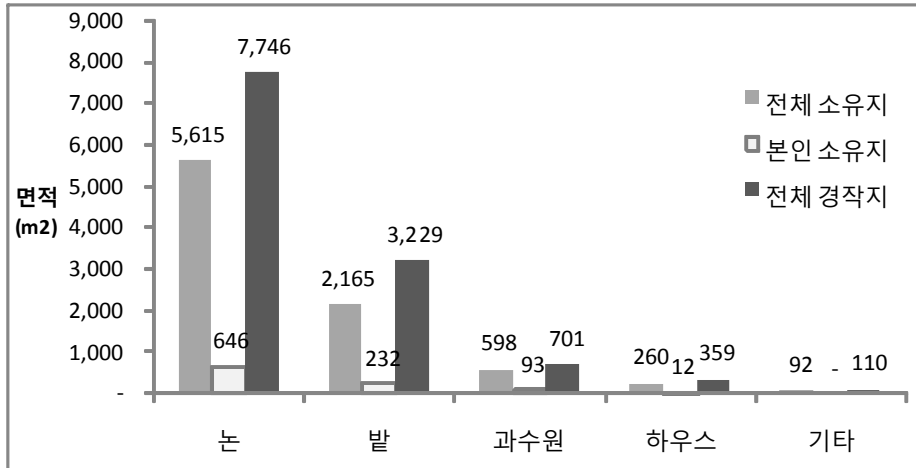
3.2. 경작면적 및 농지 소유상태

조사대상 전체 1,501가구의 평균 경작면적은 논 7,746 m^2 , 밭 3,229 m^2 , 과수원 701 m^2 , 하우스 359 m^2 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작지에서 소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논, 밭, 과수원의 경우 각각 72%, 67%, 85%로 밭의 임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여성농업인(농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은 여성농업인 포함)의 평균 소유 논면적은 646 m^2 , 밭은 232 m^2 , 과수원은 93 m^2 으로 농가 전체 소유면적과 비교하여 절대규모에서는 영세하다.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의(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제외) 평균 소유 논, 밭, 과수원 면적은 각각 4,199 m^2 , 2,262 m^2 , 4,342 m^2 이다.

그림 2-14. 조사대상 농가의 경작지 및 소유농지의 평균 규모



주: 전체 1,501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지면적 평균값은 농지가 없는 가구도 포함하여 산출

본인 명의의 농지가 전혀 없는 여성농업인은 1,181명으로 전체의 78.7%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의 21.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농가 중 여성농업인 소유의 논, 밭, 과수원이 있는 가구 비율은 각각 15.4%, 10.3%, 2.1%이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지가 있는 320 농가 중에서도 61.2%가 여성경영주 농가로, 여성 명의로 된 농지의 대부분은 독거가구의 여성경영주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주가 아니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한 농가(124명/1,501명)는 전체 농가의 8.3%로 그 비율이 낮다.

표 2-7. 경지유형별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가 있는 농가 수

단위: 가구(%)

	논	밭	과수원	전체 농지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가 없는 농가수	1,270(84.6)	1,347(89.7)	1,469(97.9)	1,181(78.7)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가 있는 농가수	231(15.4)	154(10.3)	32(2.1)	320(21.3)
합계	1,501(100)	1,501(100)	1,501(100)	1,501(100)

표 2-8.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가 있는 농가의 경영주 분포

단위: 가구(%)

	본인이 경영주	다른 가족이 경영주	계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가 있는 농가	196(61.2)	124(38.8)	100(320)

전체 1,501가구 중 농지를 소유한 1,371 가구를 대상으로 총소유 농지 중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면적 비중 분포를 살펴보면, 농가 총소유 농지 중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면적이 전혀 없는 농가는 1,051가구로 76.7%를 차지한다.

가구가 소유한 전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는 여성이 12.4%이고, 나머지 10.9%는 농지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여 농가의 총소유 농지에서 여성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논, 밭, 과수원별로 각각 15.6%, 14.5%, 17.4%이다. 소유 농지가 전혀 없는 130가구를 제외하고, 1,371가구에서 농가 총소유 농지에서 여성농업인이 소유한 평균 농지면적의 비중은 16.3%이다.

표 2-9. 농가 총소유 농지 중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면적의 비중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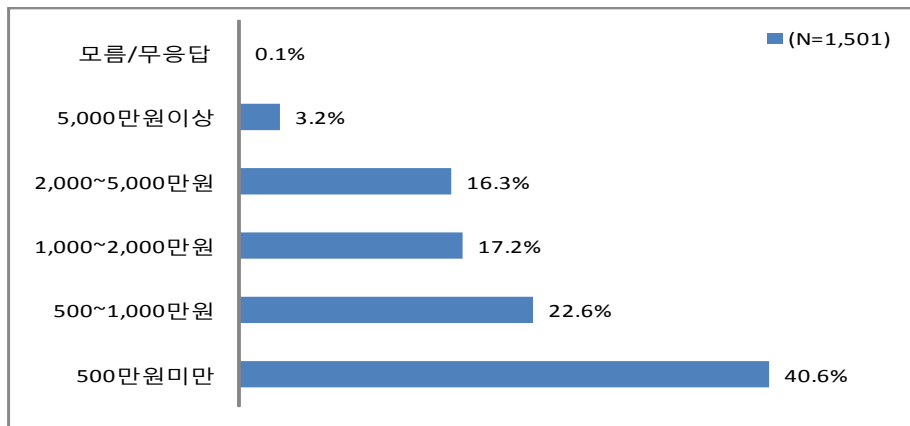
	논	밭	과수원	전체 농지
0	865(78.9)	788(83.7)	127(79.9)	1,051(76.7)
50% 미만	72(6.6)	21(2.2)	5(3.1)	111(8.1)
50-100% 미만	18(1.6)	7(0.7)	2(1.3)	39(2.8)
100%	141(12.9)	126(13.4)	25(15.7)	170(12.4)
계	1,096(100.0)	942(100.0)	159(100.0)	1,371(100.0)
평균비중	15.6%	14.5%	17.4%	16.3%

주: 해당농지가 없는 농가 제외. 예컨대 총 소유 농지의 경우 전혀 소유 농지가 없는 130 가구를 제외한 1,371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3.3. 농축산물 판매액과 월평균 가계지출액

조사대상 농가의 지난 1년간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이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 가계지출액 분포에서는 50~100만원이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 여성독거노인의 매우 낮은 소득수준이 전체 판매액과 지출액 평균에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실제로 70대 이상 독거 여성농업인 122명의 83.6%가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77.1%가 월평균 가계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고령 독거 여성농업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그림 2-15. 지난 1년간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



주: 농축산물 판매금액은 생산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아니라 판매한 총금액을 말함.

그림 2-16. 70대 이상 독거 여성농업인의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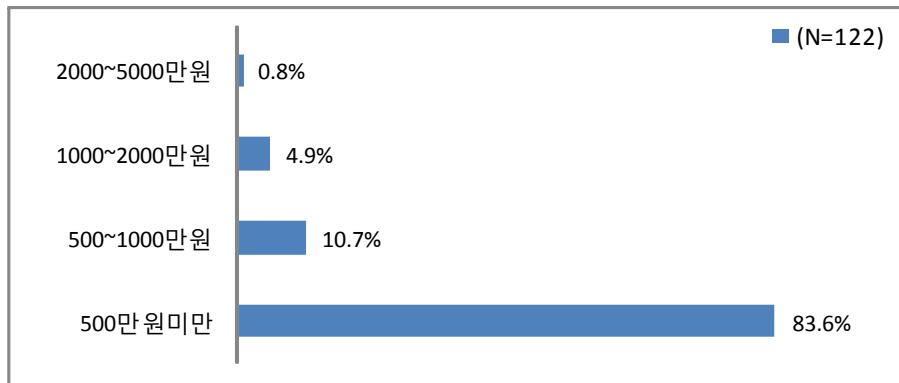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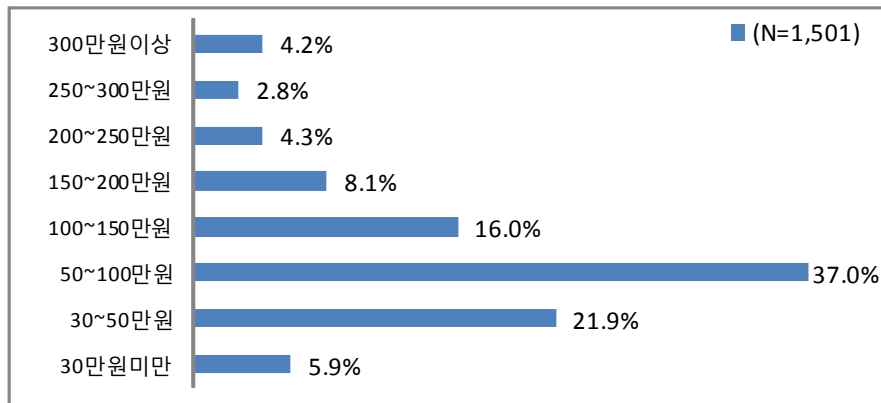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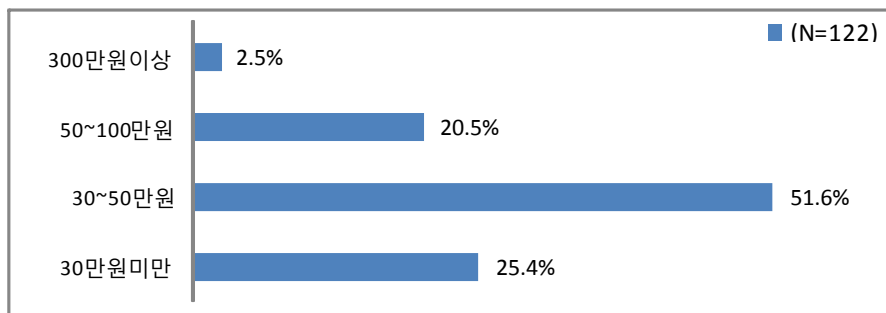


그림 2-17.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지출액



주: 가계지출액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전기세, 수도비, 교통통신비,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총 지출액을 말함.

그림 2-18. 70대 이상 독거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가계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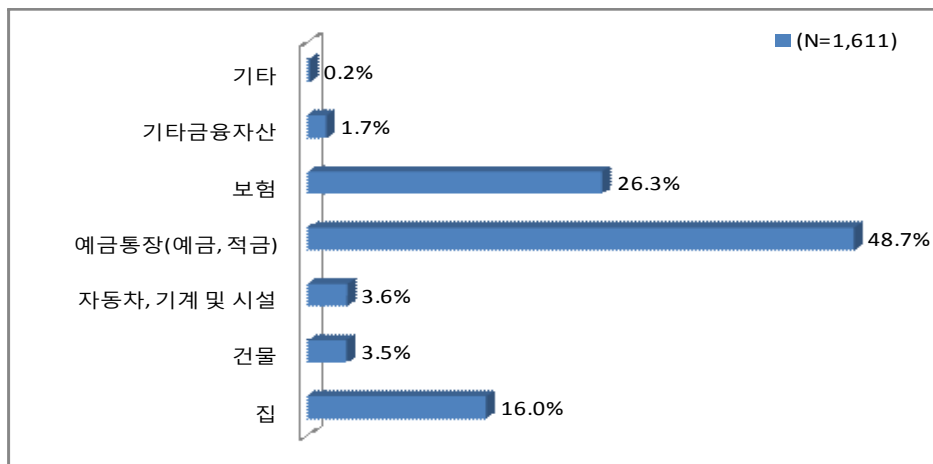


4. 여성농업인의 자산 현황

농지를 제외한 집, 건물, 자동차, 기계 및 시설, 예금통장, 보험, 기타 금융자산 등 중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전체 1,501명 중 570명인 38%이다. 본인 명의의 자산이 하나라도 있

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예금통장으로 48.7%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26.3%의 보험, 16.0%의 집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의 유형별 분포(복수응답)



주: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570명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자산을 모두 선택한 결과임.

본인 명의 자산이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33%, 50대가 29.1%로 50, 60대의 자산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는 13.4%, 39세 이하는 2.9%로,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의 자산 소유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의 자산 소유 비중이 21.5%로 나타난 것은 여성 독거노인가구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소유 자산 유형을 살펴보면, 60대,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은 집, 건물 등 고정 자산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39세 이하, 40대의 젊은 여성농업인은 보험, 금융자산 등의 유동자산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0. 본인 명의 자산을 소유한 여성농업인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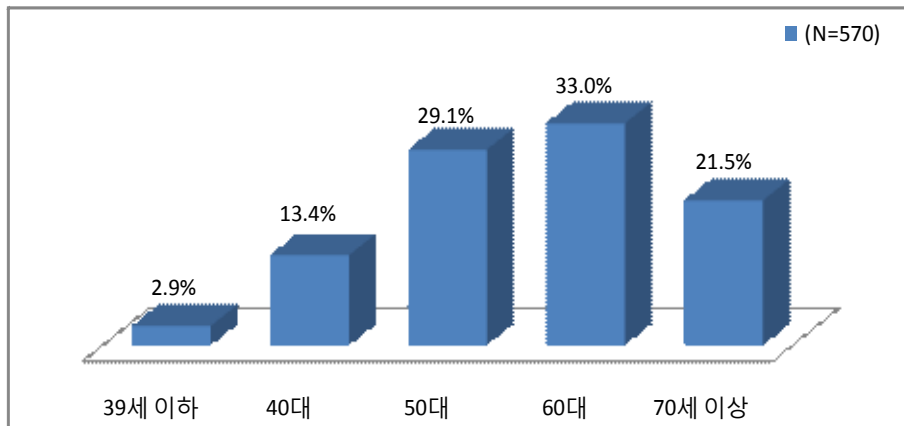


표 2-10.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 유형

단위: %

	본인 명의의 해당 자산을 소유한 여성농업인 비중							
	집	건물	자동차, 기계 및 시설	예금 통장	보험	기타 금융 자산	기타	합계
39세 이하	12.8	0.0	2.1	36.2	44.7	4.3	0.0	100
40대	5.6	2.3	6.5	40.3	40.7	4.2	0.5	100
50대	10.0	3.8	5.5	42.2	36.0	2.1	0.2	100
60대	20.1	3.2	1.9	51.3	22.4	0.9	0.2	100
70세 이상	24.5	4.9	2.0	60.2	7.5	0.6	0.3	100
전체	16.0	3.5	3.6	48.7	26.3	1.7	0.2	100

1.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

1.1. 농업종사경력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평균 농업종사기간은 36년이다. 전체 여성농업인 중 64.4%가 3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 왔으며, 16.4%는 21~30년 동안 종사해온 것으로 나타나, 약 81%의 여성농업인이 20년 이상의 농업종사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5년 이상의 비교적 짧은 영농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3.1%이며, 5.9%는 6~10년간 농업에 종사해왔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평균 49.7년, 60대는 39.6년 동안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 긴 농업종사경력은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농형태별 농업종사기간은 논벼, 일반밭작물 등을 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특용작물, 축산 등을 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보다 농업종사경력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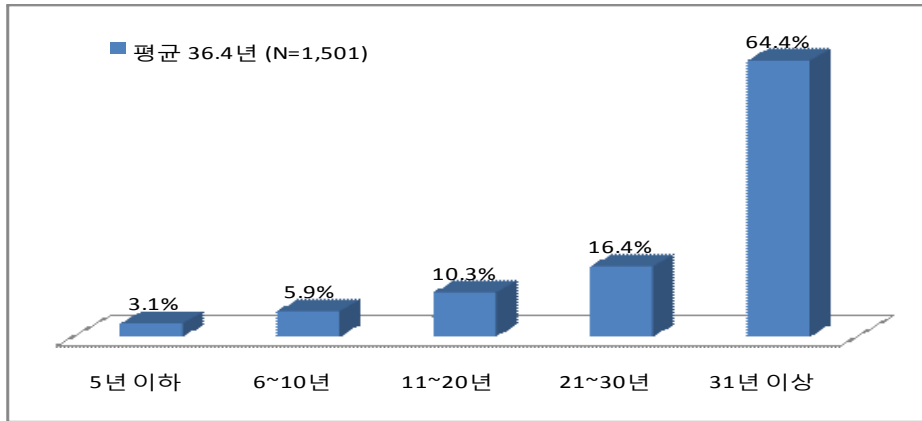


표 3-1.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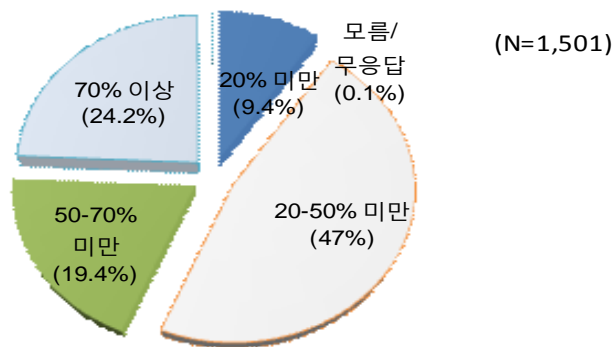
단위: %(명)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 이상	계	평균 (년)
■ 연령대별 ■							
39세 이하	21.4	50.0	26.2	2.4	0.0	100.0 (42)	9.9
40대	3.8	12.5	44.4	38.1	1.3	100.0 (160)	19.1
50대	4.3	4.9	10.2	39.1	41.4	100.0 (391)	28.3
60대	2.6	4.2	4.6	4.6	84.2	100.0 (505)	39.6
70대 이상	0.5	1.7	2.2	2.0	93.5	100.0 (403)	49.7
■ 영농형태별 ■							
논벼	2.7	4.6	7.7	12.9	72.2	100.0 (823)	38.7
과수	1.9	5.6	12.3	25.9	54.3	100.0 (162)	33.4
채소	2.8	7.6	13.7	23.2	52.6	100.0 (211)	32.5
화훼	0.0	0.0	20.0	26.7	53.3	100.0 (15)	35.6
일반밭작물	6.7	8.8	9.3	9.8	65.5	100.0 (194)	36.5
특용작물	3.2	6.5	22.6	19.4	48.4	100.0 (31)	31.1
축산	2.1	10.4	25.0	37.5	25.0	100.0 (48)	26.1
기타	6.7	6.7	13.3	13.3	60.0	100.0 (15)	34.9
모름/무응답	0.0	0.0	0.0	0.0	100.0	100.0 (2)	45.0

1.2. 농업노동 분담현황

해당 가구의 농업노동 전체에서 여성농업인 본인이 담당하는 정도에 대해서 43.6%의 여성농업인이 절반이상 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2%는 70%이상 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9.4%만이 20%미만 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2.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연령대별 농사일 담당 비중을 비교해보면,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51.9%가 절반이상 담당한다고 응답하여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단독가구 중 상당수가 이 연령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연령층에서는 ‘20~50%정도 담당’ 응답도 3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가구 내에 조사대상이 된 여성농업인 이외에 다른 농업종사자가 있는 경우로 보인다.

40대, 50대, 60대에서는 각각 29.4%, 34.7%, 49.7%가 절반이상의 농사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가내 농업노동 담당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정

도는 연령층에 따라 특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20대 중반에 농업을 시작한 이후 30대까지는 비교적 제한된 수준에서 농업노동에 기여하다가 40대 들어 농업노동 기여도가 증가해 전체 농업노동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50대까지 계속된다. 60대 들어, 특히 70세 이후에는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사를 담당하고 가구 내에 다른 농업종사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업노동 참여정도를 줄여 나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3-2. 주요특성별 농사일 담당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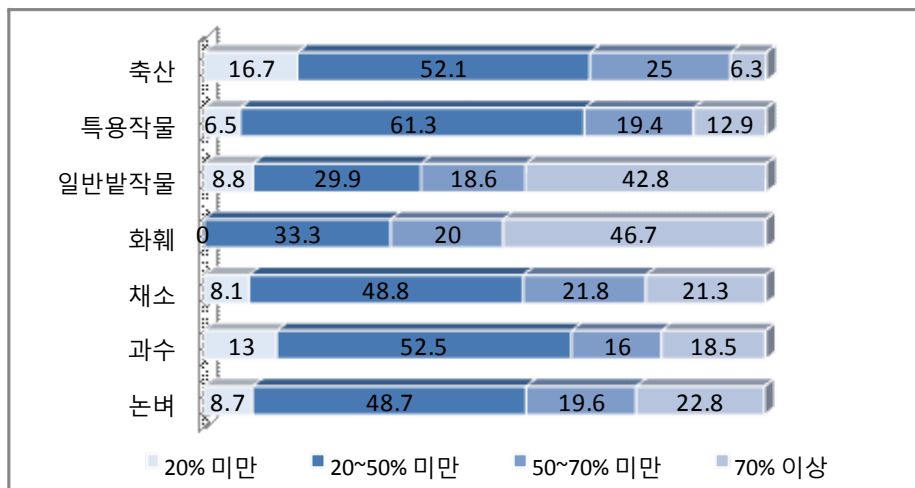
단위: %(명)

	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 이상	모름/무응답	계
■ 연령별 ■						
39세 이하	21.4	52.4	23.8	2.4	0.0	100.0 (42)
40 대	10.0	60.6	20.0	9.4	0.0	100.0 (160)
50 대	9.5	55.5	19.4	15.3	0.3	100.0 (391)
60 대	6.9	43.4	21.6	28.1	0.0	100.0 (505)
70세 이상	10.9	37.2	15.9	36.0	0.0	100.0 (403)
■ 영농형태별 ■						
논 벼	8.7	48.7	19.6	22.8	0.1	100.0 (823)
과 수	13.0	52.5	16.0	18.5	0.0	100.0 (162)
채 소	8.1	48.8	21.8	21.3	0.0	100.0 (211)
화 획	0.0	33.3	20.0	46.7	0.0	100.0 (15)
일반밭작물	8.8	29.9	18.6	42.8	0.0	100.0 (194)
특용 작물	6.5	61.3	19.4	12.9	0.0	100.0 (31)
축 산	16.7	52.1	25.0	6.3	0.0	100.0 (48)
기 타	20.0	53.3	6.7	20.0	0.0	100.0 (15)
모름/무응답	50.0	50.0	0.0	0.0	0.0	100.0 (2)
■ 농가특성별 ■						
전업농가	8.4	49.9	18.9	22.9	0.0	100.0 (1,045)
제1종 겸업농가	9.4	47.3	19.6	23.2	0.4	100.0 (224)
제2종 겸업농가	13.8	33.6	21.6	31.0	0.0	100.0 (232)

농가의 주요 영농형태별로는 화훼, 일반밭작물 등을 주로 하는 농가에서 70%이상 농사일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은 각각 46.7%, 42.8%로, 다른 영농형태보다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가특성별로는 겸업농가 소속 여성농업인이 전업농가 여성에 비해 절반이상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종 겸업농가에서 절반이상 농사일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 비중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겸업농가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주요 농업노동력이다.

그림 3-3.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1.3. 농작업 유형별 농업노동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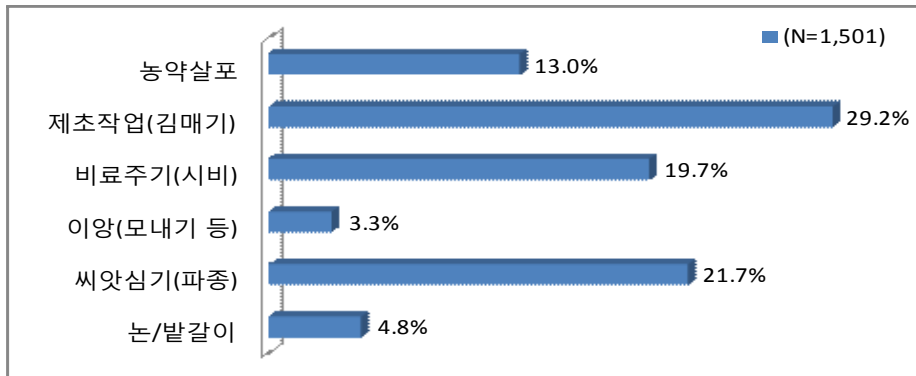
농작업 유형별로 여성농업인 자신과 남편, 그 외의 다른 가구원 가운데 누가 주로 노동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여성농업인과 남편이 비슷하게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경종농업의 경우 내가 주로 담당하는 농작업은 제초작업(김매기) 29.2%, 씨앗심기(과종) 21.7%, 비료주기(시비)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농작업별 농업노동 담당 비중

단위: %

	주로 내가	주로 남편	둘이 비슷	다른 가족, 고용노동	이 작업 하지 않음
논/밭갈이	4.8	31.4	8.9	52	2.9
씨앗심기(파종)	21.7	14.5	34.1	27	2.7
이앙(모내기 등)	3.3	16.7	12.3	49.8	17.9
비료주기(시비)	19.7	34.1	24.4	20.3	1.5
제조작업(김매기)	29.2	21.6	31.8	13.1	4.3
농약살포	13	29.7	32.5	22.1	2.7
축산 먹이주기	5.3	6.3	8.7	1	78.7
방역, 위생관리	2.3	9.5	5.4	1.9	80.9
축사청소, 퇴비처리	2.7	9.3	5.9	1.8	80.3
착유	0.4	1.4	1.3	0.3	96.6
기타 사육관리	3.1	6.3	7.1	0.8	82.6
출하준비(선별, 포장)	25.6	15.2	42.2	9.4	7.7
수확하기	11.7	10.1	38.6	39.4	0.2
수확물 운반	8.8	28.3	24.1	38.2	0.5
수확물 건조, 세척	21.7	12.2	36.1	24.1	5.9
농축산물 판매	26.2	32	29.8	7.2	4.9
농축산물 가공	3.3	2.4	5.9	1.2	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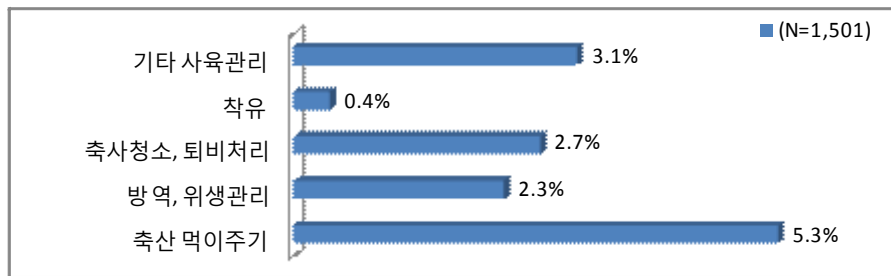
그림 3-4. 여성농업인의 경종 농작업 노동 기여도



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노동 기여도는 '주로 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

축산의 경우 경종작물 관련 농작업보다 여성농업인의 노동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낮다.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작업은 축산먹이주기 5.3%, 축사청소, 퇴비처리 2.7%, 방역, 위생관리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종작물, 축산 모두 여성농업인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단순 농업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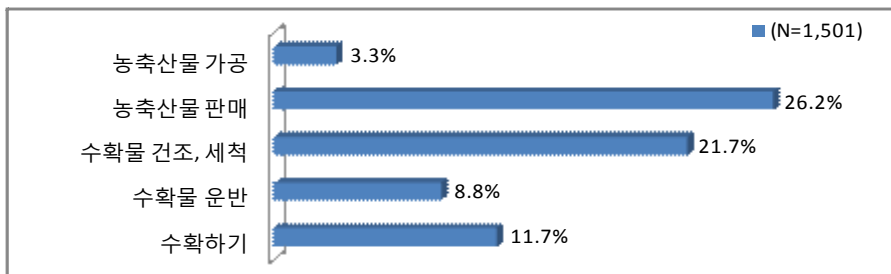
그림 3-5. 여성농업인의 축산 관련 노동 기여도



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노동 기여도는 '주로 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수확 후 농작업은 농축산물 판매 26.2%, 출하준비(선별, 포장) 25.6%, 수확물 건조 및 세척 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하준비, 수확물 건조, 농산물 판매 등에 대해서는 30% 이상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6. 여성농업인의 수확 후 관리 노동 기여도



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노동 기여도는 '주로 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

1.4. 노동시간

농업노동은 계절성이 있어 농업인의 노동시간은 기간별로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 배분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농가에서 주로 하는 농업이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23.8%(357명)는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76.2%(1,144명)는 구분이 있다고 응답했다. 농번기/농한기의 구분이 있는 경우 농번기 기간은 6~9개월이라는 응답자가 52.9%, 3~6개월이 20.7%, 9개월 이상이 24.4%였으며,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2%이다.

1.4.1. 총노동시간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이에 더해 겸업 일을 하는 경우에는 농외노동시간까지 합쳐 여성농업인의 총 노동시간을 보면, 농번기에는 64.3%가 하루 평균 10-14시간의 일을 하며 15.4%는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한기에는 42.1%가 하루 평균 4시간 미만의 일을 하며 47.5%는 5-9시간, 8.9%는 10-1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70.3%가 하루에 10-14시간 일을 하고 15.7%는 5-9시간, 13.2%는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여성농업인의 시기별 하루 평균 총노동시간 분포

단위: 명(%)

	4시간미만	5-9시간	10-14시간	15시간이상	계	평균 (시간:분)
농번기	7(0.6)	226(19.8)	735(64.3)	176(15.4)	1,144(100.0)	11:51
농한기	482(42.1)	543(47.5)	102(8.9)	17(1.5)	1,144(100.0)	5:32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3(0.8)	56(15.7)	251(70.3)	47(13.2)	357(100.0)	11:58

연령대별로는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있는 경우, 40대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이 농번기에 12시간 43분, 농한기에 7시간 41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없는 경우는 50대, 40대 여성농업인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이 없는 경우 모두 70세 이상의 총 노동시간이 가장 짧았다.

표 3-5. 연령대별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39세 이하	11:07	5:43	11:26
40대	12:43	7:41	12:10
50대	12:01	6:03	12:41
60대	12:14	5:19	11:41
70세 이상	11:05	4:50	10:14
전체	11:51(N=1,144)	5:32(N=1,144)	11:58(N=357)

14.2. 농업노동시간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된 경우의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을 보면, 농번기에는 약 48%의 여성농업인이 10-14시간 정도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15시간 이상 농업을 하는 여성들도 3.0% 있다. 이외에 42.2%는 5-9시간, 6.9%는 4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농업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한기에는 38.5%의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을 하지 않거나, 51.8% 여성농업인이 4시간 이하의 농업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3%의 여성농업인은 5-9시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10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0.5%에 불과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44%의 여성농업인이 10-14시간, 47.6%는 5-9시간동안 농업노동을 하였으며, 4시간 이하인 경우는 8.1%,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0.3%였다.

표 3-6. 여성농업인의 시기별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 분포

단위: 명(%)

		하지않음	4시간이하	5-9시간	10-14시간	15시간이상	계
농번기/ 농한기 구분	농번기	-	79(6.9)	483(42.2)	548(47.9)	34(3.0)	1,144(100.0)
	농한기	440(38.5)	592(51.8)	106(9.3)	6(0.5)	-	1,144(100.0)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	29(8.1)	170(47.6)	157(44.0)	1(0.3)	357(100.0)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있는 경우,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8시간 55분이고, 농한기에는 하루 평균 1시간 39분으로 농한기의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의 약 1/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8시간 35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농번기의 경우 60대 여성농업인이 하루 평균 9시간 20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농업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이 50대로 9시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였다. 농한기에도 농업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연령대에서 농업노동시간이 비교적 길었으며,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50대가 9시간 23분, 60대가 8시간 35분 동안 농업노동을 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농업노동시간이 길었다. 반면, 39세 이하의 저연령층의 농업노동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하루 2시간 24분이고, 농한기에는 3시간 12분으로 농번기에 비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농업노동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농번기 가사노동시간은 39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 3시간 32분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농한기와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도 이 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이 가장 긴 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노동시간은 6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긴데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3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음(N=357)		
	농번기(N=1,144)			농한기(N=1,144)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전체	8:55	0:32	2:24	1:39	0:41	3:12	8:35	0:39	2:43
39세 이하	7:28	0:07	3:32	1:28	0:28	3:46	7:19	0:17	3:50
40 대	8:24	1:26	2:54	1:31	2:19	3:50	8:17	1:05	2:49
50 대	9:01	0:28	2:31	1:49	0:49	3:25	9:23	0:38	2:40
60 대	9:20	0:34	2:19	1:39	0:38	3:03	8:35	0:37	2:29
70세 이상	8:34	0:18	2:13	1:34	0:14	3:02	7:19	0:19	2:37

영농형태별로는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은 특작을 주로 하는 농가의 여성 농업인이 9시간 37분으로 가장 긴 시간동안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과수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 하루 평균 9시간 31분 농업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영농형태별 하루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농번기			농한기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농사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가사			
논 벼	8:53	0:36	2:22	1:37	0:41	3:05	8:32	0:53	2:49
과 수	9:31	0:18	2:37	1:49	0:25	3:26	8:48	0:06	3:06
채 소	8:56	0:04	2:34	1:57	0:43	3:34	8:40	0:31	2:32
화 훼	9:26	0:13	2:00	0:47	0:13	3:20	7:40	0:00	2:50
일반밭작물	8:26	0:46	2:20	1:25	1:02	3:12	8:46	1:08	2:25
특용 작물	9:37	0:10	2:50	1:37	0:13	3:56	9:46	0:37	3:00
축 산	-	-	-	-	-	-	7:56	0:38	2:46
기 타	8:55	0:00	2:00	1:51	0:00	3:28	7:00	0:00	1:30
모름/무응답	7:00	0:00	3:00	1:00	0:00	3:30	-	-	-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경지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있는 경우, 1ha까지는 경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은 증가하나, 1ha이상에서는 경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여성농업인 농업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0.5-1ha 경지면적을 가진 농가의 여성농업인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은 7시간 16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농번기/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2ha까지는 경지가 넓을수록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경지면적별 농업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사례수 (명)	농번기/농한기 구분있음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농번기 평균농업노동시간	농한기 평균농업노동시간	평균 농업노동시간
경지 없음	10	3:12	1:00	4:54
0.5ha 미만	521	6:49	1:15	1:20
0.5 - 1ha	416	7:16	1:22	1:52
1 - 2ha	341	6:31	1:17	2:37
2ha 이상	213	6:28	1:00	3:04
전체	1,501	6:48	1:16	2:02

1.4.3. 가사노동시간

여성농업인 대부분은 농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농업주기에 따라 농번기에는 61.5%가 2시간 이하로 나타났으며 3-4시간 하는 경우도 32.7%이다. 이외에 5-6시간 하는 여성농업인은 4.6%, 7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0.7%였다. 이에 비해 농한기에는 51.1%가 3-4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33.5%는 1-2시간 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5-6시간 하는 여성농업인도 13.3%나 되어 농번기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가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49.3%가 3-4시간 동안, 45.4%가 1-2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표 3-10. 여성농업인의 시기별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단위: 명(%)

	하지않음	2시간 이하	3-4시간	5-6시간	7시간이상	계
농번기	5(0.4)	704(61.5)	374(32.7)	53(4.6)	8(0.7)	1,144(100.0)
농한기	7(0.6)	383(33.5)	584(51.1)	152(13.3)	18(1.6)	1,144(100.0)
구분 없음	2(0.6)	162(45.4)	176(49.3)	15(4.2)	2(0.6)	357(100.0)

가사노동은 가족규모와 가구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농업주기와 관계없이 가족규모가 클수록 여성농업인은 긴 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족형태가 단독가구와 같이 단순한 가구보다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5명 이상인 농가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농번기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59분이고, 농한기에는 3시간 35분 가사노동을 한다. 또한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에서의 여성농업인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에 3시간, 농한기에 3시간 40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는 경우 3시간 15분으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상대적으로 긴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낸다.

표 3-11. 가족규모 및 유형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농번기	농한기	
■ 가족규모별 ■			
1 명	1:58	2:45	2:03
2 명	2:20	3:11	2:30
3 - 4명	2:42	3:28	2:53
5명 이상	2:59	3:35	3:12
■ 가구형태별 ■			
독신 가구	1:58	2:45	2:03
1세대 가구	2:20	3:12	2:31
2세대 가구	2:47	3:29	2:57
편부모+자녀	2:24	3:13	2:45
3세대 가구	2:49	3:25	3:06
조부모+손자녀	3:00	3:40	3:15
기타	2:37	3:49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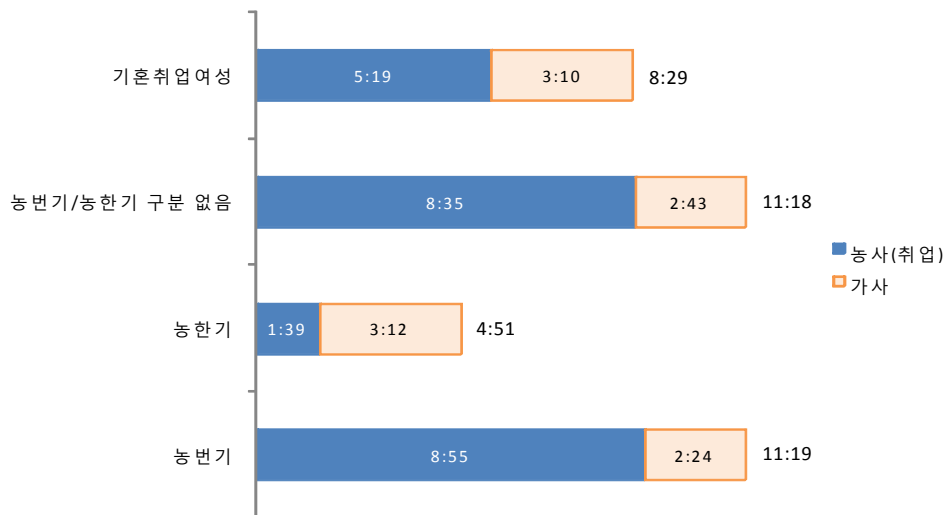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종합해 보면, 농번기에는 농업노동에 하루 평균 8시간 55분, 가사노동에 평균 2시간 24분을 투입하고 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19분에 달했다. 이에 비해, 농한기에는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1시간 39분으로 줄어들고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2분으로 늘어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치면 하루 평균 4시간 51분 정도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8시간 35분,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43분이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18분이었다.

전체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19분을 취업노동에 투입하고 3시간 10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여 총 노동시간이 8시간 29분에 이르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2시간 이상, 길게는 3시간 30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여성농업인과 기혼취업여성의 노동시간 비교

단위: 시간:분



주: 기혼취업여성은 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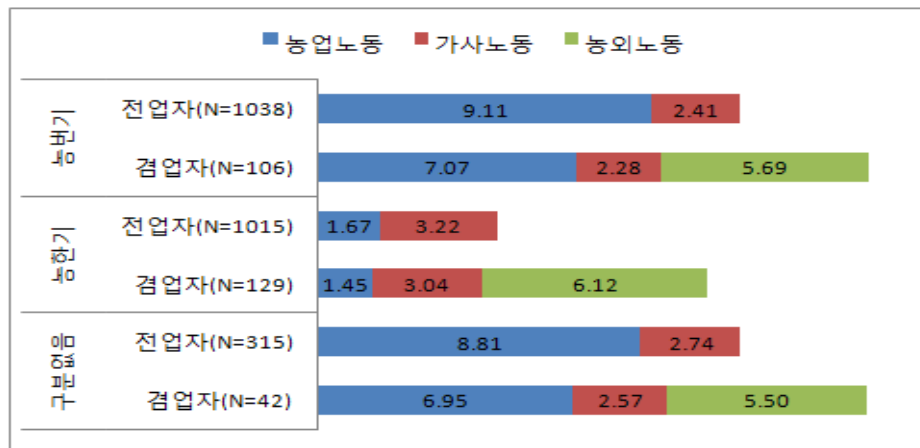
농사의 경우 '농사 이외 소득 있는 일' 제외된 시간임.

1.4.4. 농외노동시간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중에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더해 농외노동까지 하는 겸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주영농형태가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있는 농가의 경우(N=1,144), 농번기에는 90.7%의 여성농업인(N=1,038)이 농외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농업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9.3%의 여성농업인(N=106)은 농업노동을 하면서 농외노동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88.7%의 여성농업인(N=1,015)이 농업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11.3%의 여성농업인(N=129)은 농업노동과 농외노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농가의 경우는(N=357), 88.2%의 여성농업인(N=315)이 농업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11.8%의 여성농업인(N=42)은 농업노동과 농외노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전·겸업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외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된 경우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농번기보

다는 농한기의 농외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농한기에 40대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외노동시간은 2시간 19분으로 가장 길다.

표 3-12.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농외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39세 이하	0:07	0:28	0:17
40대	1:26	2:19	1:05
50대	0:28	0:49	0:38
60대	0:34	0:38	0:37
70세 이상	0:18	0:14	0:19
전체	0:32 (N=1,144)	0:41 (N=1,144)	0:39 (N=357)

겸업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전업 여성농업인과 비교해보면,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이 있는 경우 겸업자의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은 7시간 4분으로 전업자 9시간 7분보다 약 2시간 적으나, 추가 농외노동시간은 5시간 41분으로 나타났다.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없는 경우도 겸업자의 농업노동시간은 6시간 57분으로 전업자에 비해 약 2시간 적으나, 하루 평균 농외노동시간은 5시간 30분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농업전업자와 겸업자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겸업을 하는 여성농업인의 전체노동시간은 농업 전업 여성농업인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외취업은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겸업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겸업자의 농외노동시간을 연령대별로 보면, 농번기의 경우에는 60대와 40대 겸업자의 농외노동시간이 각각 6시간 16분과 6시간 14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50대 겸업자로 5시간 37분을 농외노동에 투입하였다. 이에 비해, 농한기의 농외노동시간은 모든 연령대에서 농번기보다 증가하였으

며, 특히 40대 겸업자의 농외노동시간이 7시간 58분으로 가장 길었다.

표 3-13. 연령대별 겸업 여성농업인의 농외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39세 이하	2:00	4:00	3:30
40대	6:14	7:58	6:16
50대	5:37	5:47	4:38
60대	6:16	6:17	6:38
70세 이상	4:30	4:08	6:00
전체	5:41 (N=106)	6:07 (N=129)	5:30 (N=42)

1.5.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에 여성농업인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경지매매 및 임대차에 대해서는 27.6%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49.6%는 ‘어느 정도 관여한다’, 22.7%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작물 결정에 있어서는 21.6%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52.4%가 ‘어느정도 관여한다’, 26.0%가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여 경지의 판매나 구매, 임대차와 관련된 사안 보다는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았다.

영농자금을 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34.4%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43.2%는 ‘어느 정도 관여한다’, 22.4%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농사일정을 결정할 때는 27.4%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47.0%는 ‘어느정도 관여한다’, 25.5%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영농일지 기록에 대해서는 47.8%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여성농업인의 관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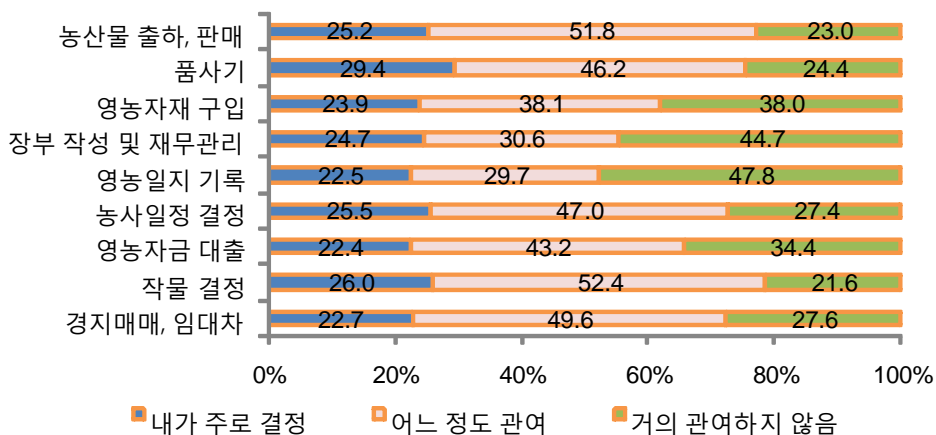
장부작성 및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44.7%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영농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38.0%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3.9%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품을 살 때에는 29.4%가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였고 46.2%가 ‘어느 정도 관여한다’고 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산물 출하 및 판매에 관해서는 25.2%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고, 51.8%는 ‘어느 정도 관여한다’ 응답하였다. 반면, 거의 관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23.0%로 다른 항목에 비해 관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 비중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품사기나 작물 결정, 농사일정 결정, 농산물 출하 및 판매 등 농업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영농일지 기록, 장부 및 재무관리, 영농자재 구입, 영농자금 조달이나 농지의 판매·구매, 임대차 등의 재무관리와 주요 생산수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항목별로 ‘거의 관여하지 않음’을 ‘1’, ‘어느 정도 관여함’을 ‘2’, ‘내가 주로 결정한다’를 ‘3’으로 점수화하여 그 평균 점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39세 미만 여성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아 농업경영과 관련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농업관련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이런 결과는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경영주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43.2%가 경영주로 타 연령층보다 그 비중이 높아,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3-14. 연령대별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평균점수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경지매매, 임대차	1.40	1.75	1.88	2.01	2.08
작물 결정	1.38	1.79	1.94	2.12	2.22
영농자금 대출	1.38	1.68	1.81	1.98	1.95
농사일정 결정	1.45	1.75	1.86	2.06	2.14
영농일지 기록	1.31	1.66	1.62	1.80	1.88
장부작성 및 재무관리	1.40	1.71	1.70	1.85	1.92
영농자재구입	1.33	1.59	1.74	1.97	2.00
폼사기	1.43	1.87	1.99	2.12	2.16
농산물 출하, 판매	1.45	1.83	1.96	2.09	2.14

농업경영 의사결정 관련 9문항을 종합해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 coefficient)³가 0.9526 수준으로 매우 높아 농업경영관련 의사결정 참여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9문항을 표준화한

3 의사결정 관련 항목들이 일관성(consistency) 혹은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내적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 신뢰성 평가방법으로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이용하였다.

후 평균을 내어 척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 농업 의사결정 참여도 평균 점수는 1.80로 나타났다.

2.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실태

2.1.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인적특징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13.1%(196명)가 농사일 이외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96명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5%, 50대 15.9%, 60대 12.3%, 39세 이하 11.9%, 70세 이상 6.7%로 나타나,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이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44.4%가 3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였고 고졸은 18.6%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림 3-10.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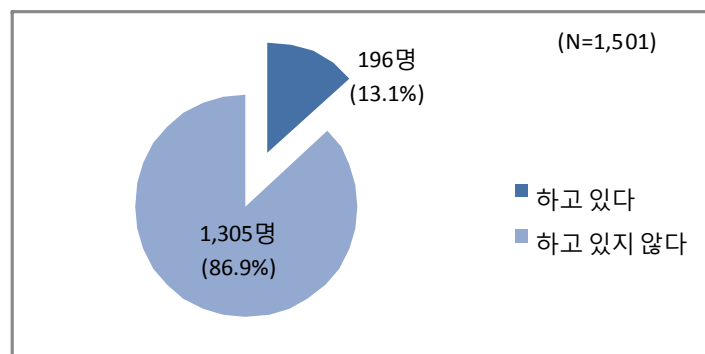


그림 3-11.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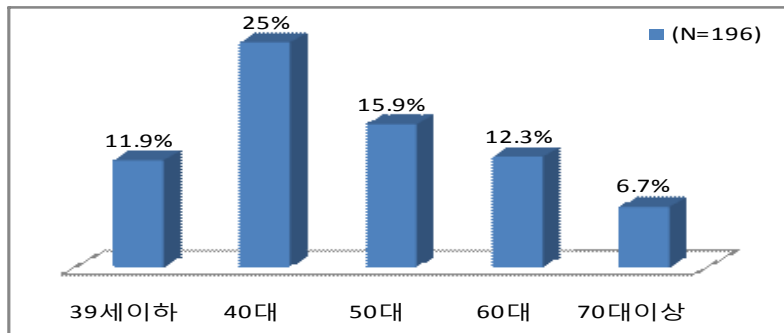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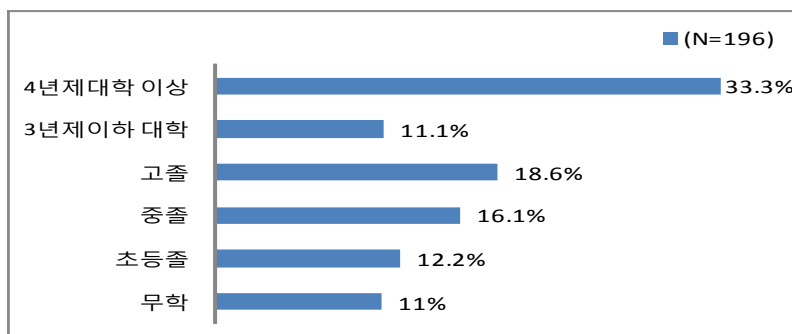


그림 3-12.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



2.2.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96명 여성농업인의 60.2%가 임금근로자(N=118)이며, 39.8%가 비임금근로자(N=78)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여성농업인 중 67.8%가 일용근로자, 20.3%가 임시근로자, 11.9%가 상용근로자이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여성농업인 중 55.1%가 무급가족종사자, 43.6%가 자영업자, 1.3%가 고용주이다. 즉,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낮은 종사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3.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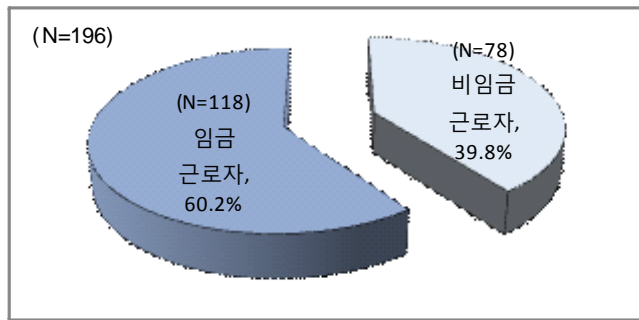


그림 3-14. 비임금근로자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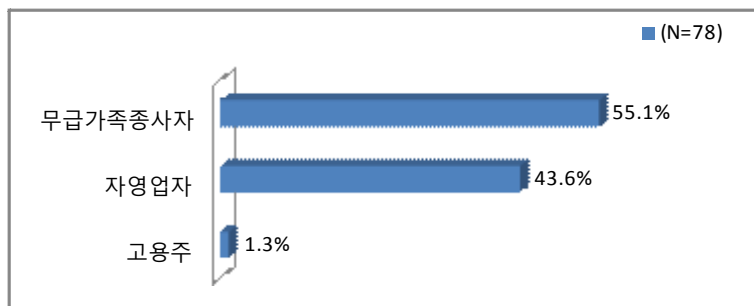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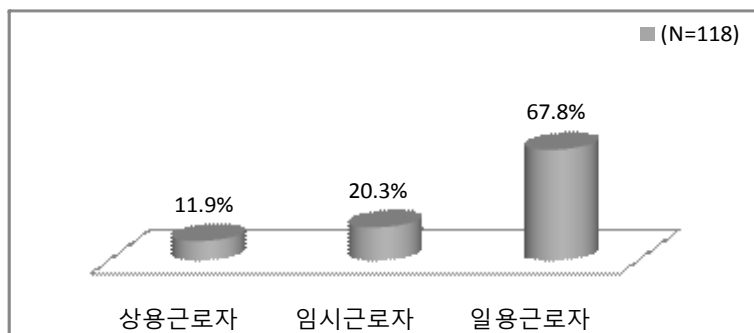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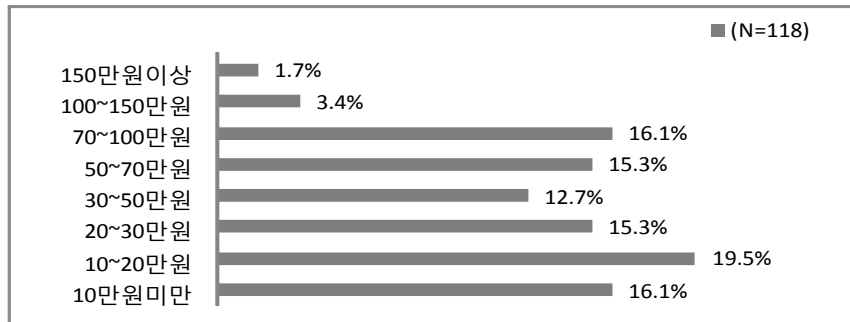


그림 3-15. 임금근로자 유형 분포



임금근로자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수입 분포를 보면, 10~2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5%로 가장 높다. 그 다음 순으로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6.1%, 70~1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16.1%이다. 20~3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5.3%, 50~70만원은 15.3%이다. 이처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수입 분포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6.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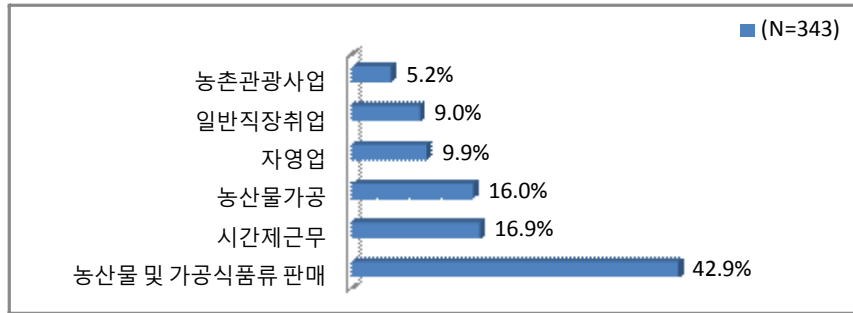


주: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성농업인 중 임금근로자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수입 분포임.

2.3. 향후 농외소득활동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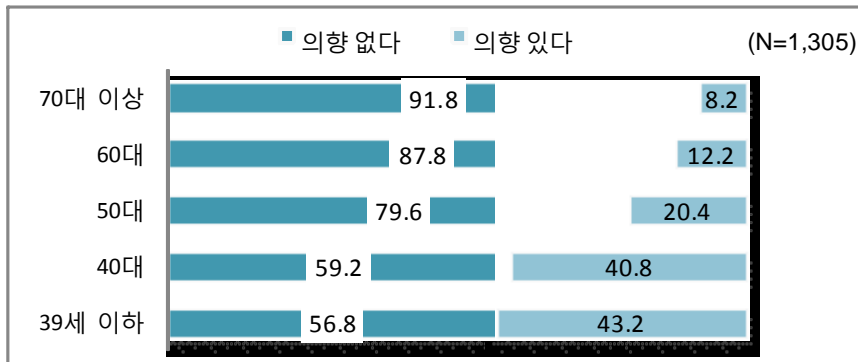
현재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1,305명 여성농업인에게 향후 취업 및 창업 등의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6.6%(217명)만이 긍정적인 진출 의사를 밝혔다. 진출 의사가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향후 하고 싶은 분야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에 관한 일을 하거나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간제 근무 16.9%, 농산물 가공업 16.0%, 자영업 9.9%, 일반직장 취업 9.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농외소득활동 유형별 종사 및 창업 의향(복수응답)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의 43.2%가 향후 농외소득활동 종사 및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40대 40.8%, 50대 20.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60대는 12.2%, 70세 이상은 8.2%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외소득활동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8.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취업 및 창업 의향



39세 이하 여성농업인 중 39.1%가 시간제 근무를, 26.1%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를, 21.7%가 일반 직장 취업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40대의 33.3%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를, 20.8%가 농산물 가공업 진출의

사가 있었다. 50대, 60대,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진출의사가 각각 45.6%, 50.7%, 53.5%로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시간제 근무 및 취업 종사 의향이 높고, 40대 이상에서는 농산물 판매, 농산물 가공업 등 농관련 농외소득활동 진출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5. 연령대별 희망하는 농외소득활동 유형

단위: %

	농산물 가공	농산물 및 가공식 품류 판매	농촌관 광사업	자영업	일반직 장취업	시간제 근무	합계
39세 이하	8.7	26.1	0.0	4.3	21.7	39.1	100
40대	20.8	33.3	8.3	13.5	8.3	15.6	100
50대	15.8	45.6	6.1	10.5	8.8	13.2	100
60대	11.9	50.7	3.0	4.5	10.4	19.4	100
70대 이상	16.3	53.5	2.3	11.6	2.3	14.0	100

3.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실태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37%는 지역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58.8%가 마을부녀회에 참여하고 있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단체 중 부녀회가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나타났다. 그 밖에 7.8%가 여성농업인단체, 6.5%가 종교 및 지역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지역사회 단체 참여율을 살펴보면,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마을부녀회 등의

참여율이 높다. 반면,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중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비중은 57.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단체 비참여율도 45.2%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40대,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9.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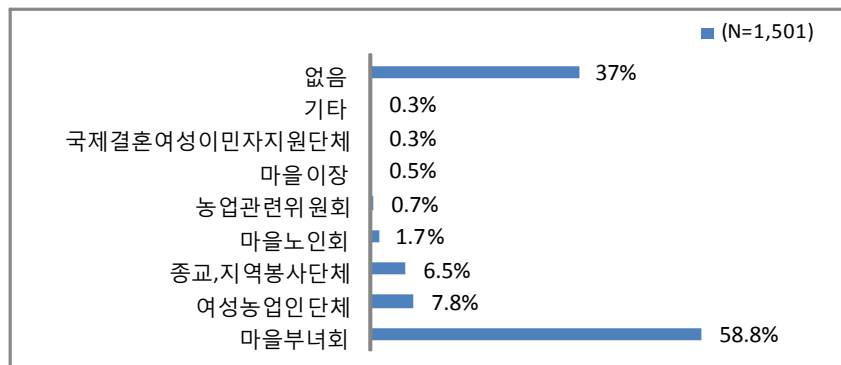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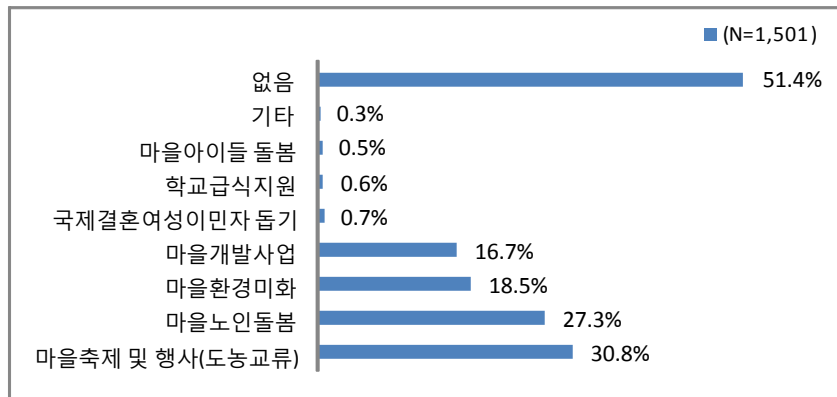


표 3-16. 연령대별 지역사회 단체 참여율 분포(복수응답)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마을부녀회	45.2	71.9	71.9	62.2	38.2
여성농업인단체	4.8	21.3	11.5	6.5	0.7
종교,지역봉사단체	9.5	12.5	8.7	5.3	3.2
마을노인회	0.0	0.0	0.0	1.2	4.7
농업관련위원회	0.0	1.3	1.3	0.4	0.2
마을이장	0.0	1.3	1.0	0.4	0.0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지원단체	4.8	0.6	0.3	0.0	0.0
기타	0.0	0.0	0.5	0.2	0.2
없음	45.2	21.9	24.8	34.7	57.1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활동 분포를 살펴보면, 30.8%가 마을축제 및 행사(도농교류) 활동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7.3%가 마을노인돌봄(경로잔치 등), 18.5%가 마을환경미화, 16.7%가 마을개발사업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3-2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활동 유형(복수응답)



1. 컴퓨터 이용 현황

농업에서도 정보와 기술이 중요해지고 각종 농업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관련 컴퓨터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5.1%(76명)만이 현재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 또한 62.2%는 집에 컴퓨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2.1%는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자신은 사용할 줄 모르고 있어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84%가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7%는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알지만, 농업과 관련해 이용하지는 않았다.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76명의 여성농업인의 경우, 그 활용도는 농업정보수집이 76.3%, 농축산물 판매(인터넷 판매)가 25%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농업관련 컴퓨터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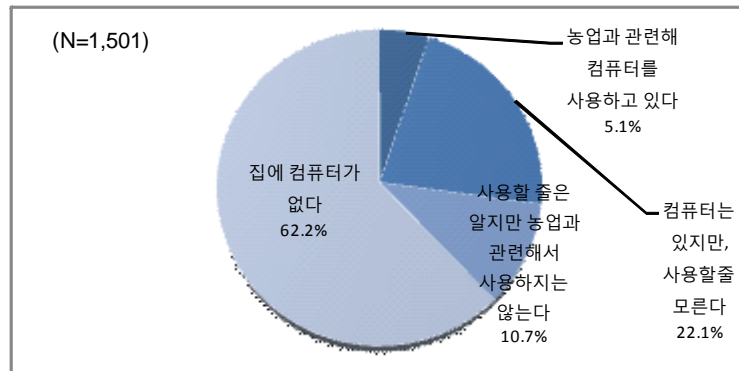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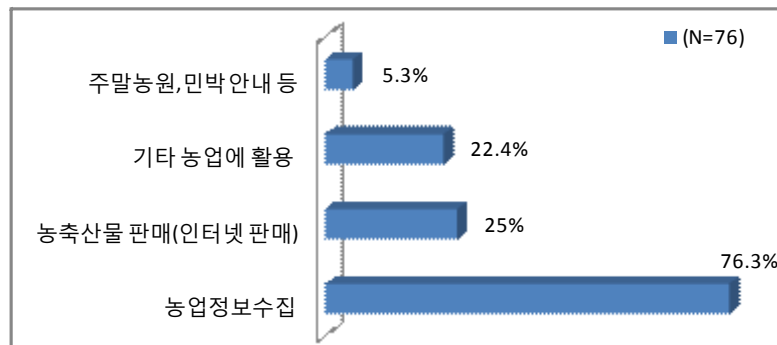


그림 4-2. 농업관련 컴퓨터 활용 용도



연령대별로는 40대의 25.6%가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0대 여성농업인의 약 90% 정도가 집에 컴퓨터가 있어 정보화 교육을 위한 기반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여성은 39세 이하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비율도 16.7%로 40대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39세 이하의 젊은 여성농업인의 50%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면서도 농업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관련 컴퓨터 활용 교육은 젊은층에게도 필요하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2.1%만이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졸에서는 12.2%, 고졸에서는 24.3%, 대졸에서는 22.2%가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농업관련 컴퓨터 이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면서도 농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비율도 높게 나타나, 농업과 관련한 컴퓨터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4-1.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컴퓨터 이용현황

단위: %(명)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는 있지만 사용할 줄 모른다	사용할 줄은 알지만 농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집에 컴퓨터가 없다	계
■ 연령별 ■					
39세 이하	16.7	23.8	50.0	9.5	100.0 (42)
40 대	25.6	27.5	35.6	11.3	100.0 (160)
50 대	6.6	33.8	14.3	45.3	100.0 (391)
60 대	0.4	18.6	4.2	76.8	100.0 (505)
70세 이상	0.0	12.7	1.2	86.1	100.0 (403)
■ 교육수준별 ■					
무 학	0.2	15.2	1.2	83.5	100.0 (508)
초 등 졸	1.9	25.6	5.1	67.5	100.0 (630)
중 졸	12.2	29.3	25.4	33.2	100.0 (205)
고 졸	24.3	22.9	41.4	11.4	100.0 (140)
대 졸	22.2	5.6	66.7	5.6	100.0 (18)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정보 활용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과 경험이 없는 여성농업인의 컴퓨터 이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4.2%만이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31.7%가 농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있어 교육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을 받

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더라도 농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컴퓨터 이용 및 농업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을 받아도 실제 생활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컴퓨터 교육 참여 경험과 컴퓨터 이용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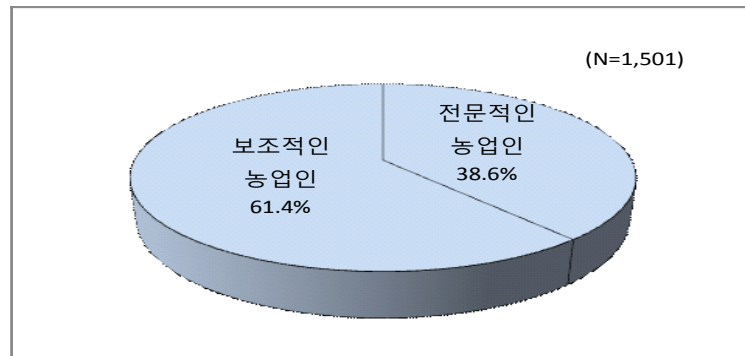
	농업관련 사용	컴퓨터 있지만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농업관련 사용 않음	집에 컴퓨터 없음	계
교육경험 있다	20(31.7)	13(20.6)	18(28.6)	12(19.0)	63(100.0)
없다	56(3.9)	318(22.1)	142(9.9)	922(64.1)	1,438(100.0)
전 체	76(5.1)	331(22.1)	160(10.7)	934(62.2)	1,501(100.0)

2. 여성농업인 의식

2.1. 농업인 정체성

농업인으로서 본인이 전문적인 농업인인지 아니면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38.6%가 본인을 전문적인 농업인이라고 응답했으며 61.4%는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4-3. 본인의 영농지위에 대한 평가



연령대별로 39세 이하에서는 7.1%만이 자신을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2.9%가 집안 농사를 짓는 보조농업인으로 평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문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매우 낮고,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전문 농업인으로 보는 경우가 42.2%,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우가 57.8%으로 나타나, 39세 이하의 연령층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는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에서 여성 본인이 경영주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40대에서는 36.3%가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보고 있으며, 63.8%가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37.3%, 40.0%가 자신을 전문 농업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무학인 여성농업인의 44.9%가 본인을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초등학교 졸업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38.3%가 자신을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고졸 학력을 지닌 여성농업인 중 23.6%, 대학 졸업자는 27.8%가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고졸이상의 여성농업인은 다른 학력층에 비해 전문적 농업인이라 평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바는 연

령과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저연령층의 여성농업인과 고졸 이상의 비교적 고학력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주요 특성별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단위: %(명)

	전문적인 농업인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	계
■ 연령별 ■			
39세 이하	7.1	92.9	100.0 (42)
40 대	36.3	63.8	100.0 (160)
50 대	37.3	62.7	100.0 (391)
60 대	40.0	60.0	100.0 (505)
70세 이상	42.2	57.8	100.0 (403)
■ 교육수준별 ■			
무 학	44.9	55.1	100.0 (508)
초 등 졸	38.3	61.7	100.0 (630)
중 졸	35.1	64.9	100.0 (205)
고 졸	23.6	76.4	100.0 (140)
대 졸	27.8	72.2	100.0 (18)

자신을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과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농업노동시간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자신을 전문 농업인이라 평가한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에 하루 평균 9시간 23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어 자신을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한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8시간 38분)에 비해 길었으며,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이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여성농업인보다 더 길었다.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 농외소득활동시간까지 포함한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 역시 농번기와 농번기/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를 막론하고 자신

을 전문농업인으로 평가한 여성농업인의 총 노동시간이 보조농업인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을 전문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이 보조농업인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보다 긴 시간동안 농업노동을 하고 총 노동시간도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의 경우 전체 노동시간의 78.1%,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73.7%를 농업노동에 투입했으며 농번기/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 농업인으로 인식한 여성농업인은 총 노동시간의 75.1%,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여성농업인은 총 노동시간의 69.7%를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평가하는 여성들이 총 노동시간 중 많은 비중을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여성농업인 정체성과 농업노동시간

	농업노동시간 (시간:분)		총 노동시간 (시간:분)		농업노동시간 비율 (%)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구분 없음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구분 없음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구분 없음
전문농업인	9:23	9:05	12:08	12:13	78.1	75.1
보조농업인	8:38	8:16	11:40	11:47	73.7	69.7

농업종사경력과 여성농업인 정체성 관계를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한지 31년 이상 된 여성농업인의 42.4%, 21~30년 된 여성농업인의 40.2%가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평가한 반면, 11~20년 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29.9%, 6~10년 된 경우에는 19.3%가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평가하였다. 5년 이하 농업경력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14.9%만이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인식하고, 85.1%는 본인을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종사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여성농업인은 스스로를 보조농업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농업종사경력이 긴 여성농업인일수록

록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 기여도에 있어서도 농업노동을 70%이상 전담한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75.5%가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평가한 반면, 20% 미만 정도 담당한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7.8%만이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노동 기여도가 높은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 기여도가 낮은 여성농업인에 비해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5. 농업종사경력 및 농업노동 기여도와 농업인 정체성

단위: 명(%)

		전문농업인	집안농사 돕는 보조농업인	계
농업종사 경력	5년 이하	7(14.9)	40(85.1)	47(100.0)
	6~10년	17(19.3)	71(80.7)	88(100.0)
	11~20년	46(29.9)	108(70.1)	154(100.0)
	21~30년	99(40.2)	147(59.8)	246(100.0)
	31년 이상	410(42.4)	556(57.6)	966(100.0)
농업노동 기여도	20% 미만	11(7.8)	130(92.2)	141(100.0)
	20-50% 미만	165(23.4)	540(76.6)	705(100.0)
	50-70% 미만	128(44.0)	163(56.0)	291(100.0)
	70% 이상	274(75.5)	89(24.5)	363(100.0)

주: 농업노동 기여도에 관한 설문항목에 1명의 무응답/모름.

2.2. 여성농업인 의식 수준

성역할 의식과 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 등의 여성농업인 의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6개 설문항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결과,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2%가 ‘전혀 아니다’, 5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65%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에 비해 ‘그런 편’이라는 여성농업인은 27.4%, ‘정말 그렇다’는 여성농업인은 7.2%였다.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에 대해서는 35.4%가 ‘정말 그렇다’, 57.4%가 ‘그런 편’이라고 하여 92.8%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여성농업인은 7.2%에 불과했다.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14.6%가 ‘정말 그렇다’, 56.3%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27.1%, ‘전혀 아니다’는 의견을 보인 여성농업인은 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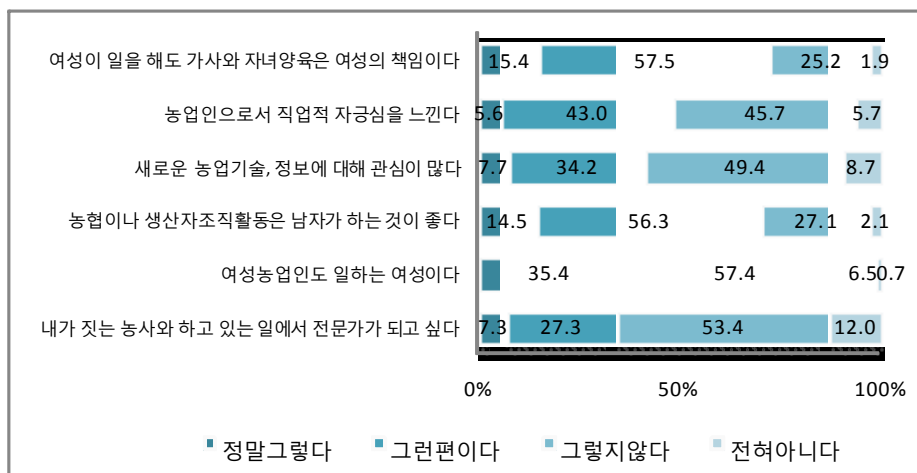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에 대해서는 7.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34.3%가 ‘그런 편’이라고 하여 41.9%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데 비해, 49.4%는 ‘그렇지 않다’, 8.7%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였다.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긍심을 느낀다] 항목에 대해서는 5.6%가 ‘정말 그렇다’, 43.1%가 ‘그런 편이다’라고 하여 48.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데 비해, 45.7%는 ‘그렇지 않다’, 5.7%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51.4%를 보였다.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에 대해서는 15.4%가 ‘정말 그렇다’, 57.6%가 ‘그런 편이다’라고 하여 73%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25.1%는 ‘그렇지 않다’, 1.9%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여 부정적인 의견은 27%로,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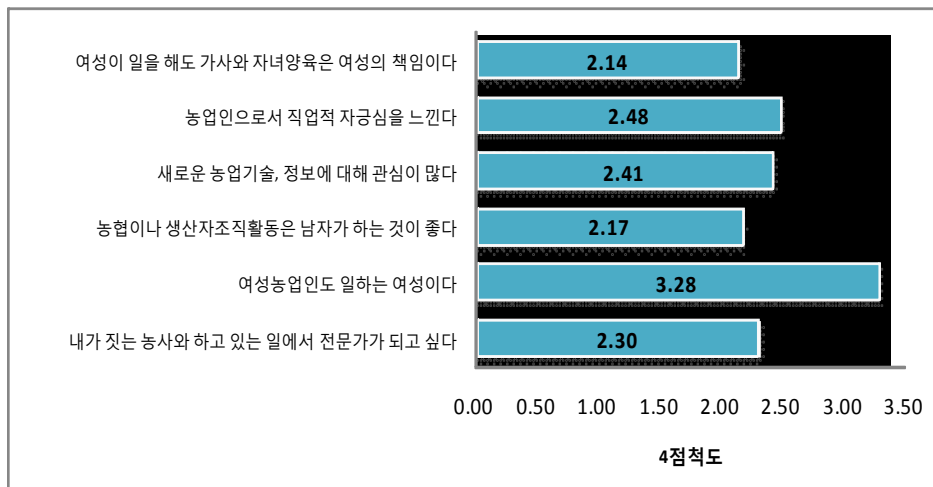
그림 4-4. 여성농업인 의식



6개 항목 각각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을 평균 점수화할 때, 부정적인 항목의 응답을 역부호화(reverse coding)하여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이 낮고 높을수록 의식수준도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조정하여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긴 후 평균점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6개 문항 가운데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라는 항목의 평균점수가 4점 만점에 3.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그 다음이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긍심을 느낀다]가 2.5점,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2.4점,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2.3점의 순이었다. 이들 항목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 측면에서는 응답자들의 의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2.2점, [여성이 일을 해도 가

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2.1점 등으로 성역할 의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림 4-5. 여성농업인의 의식(4점척도)



주: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여성농업인 의식수준이 낮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의식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해당항목을 역부호화(reverse coding) 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음.

3.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여성농업인이 경제 및 사회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6개 설문항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말 그렇다’, ‘그런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결과, [가사일과 농사일을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3.1%가 ‘정말그렇다’, 39.4%가 ‘그런편이다’고 응답해 92.5%가 농사일과 가사일의 과중한 노동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농기계조작이 어렵다]에 대해서는 49.7%가 ‘정말

그렇다’, 43.1%가 ‘그런 편’이라고 하여 92.8%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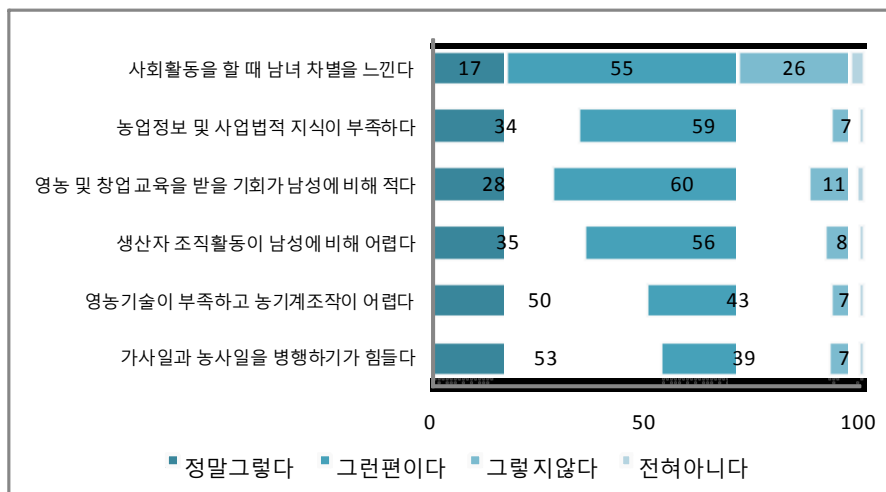
[생산자 조직활동이 남성에 비해 어렵다]에 대해서는 35.3%가 ‘정말 그렇다’, 56.3%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영농 및 창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다]에 대해서는 27.9%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60.0%가 ‘그런 편’이라고 하여 87.7%가 교육 부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농업정보 및 사업법적 지식이 부족하다]에 대해서는 33.9%가 ‘정말 그렇다’, 59.1%가 ‘그런 편이다’라고 하여 93%가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활동을 할 때 남녀차별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16.8%가 ‘정말 그렇다’, 54.6%가 ‘그런 편이다’라고 하여 71.2%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26.3%는 ‘그렇지 않다’, 2.3%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여 부정적인 의견은 28.6%로 나타나, 남녀차별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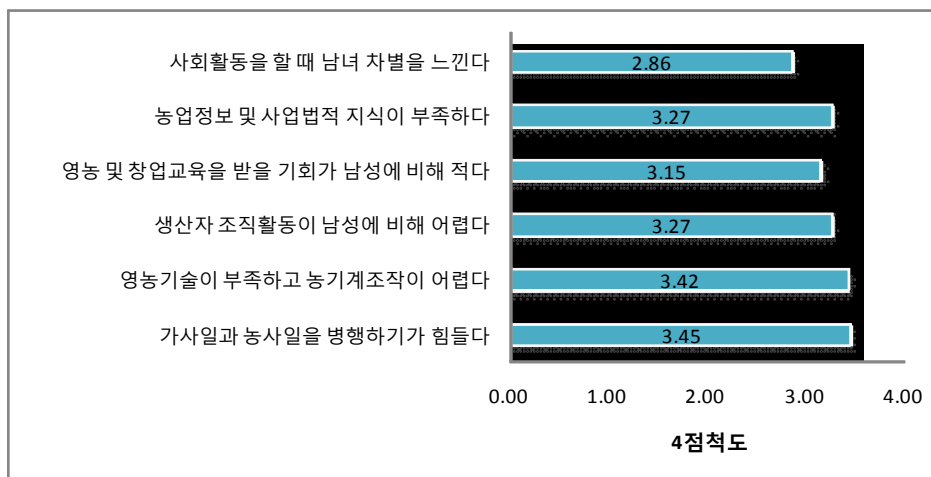
그림 4-6.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6개 항목 각각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평균 점수화한 결과, 6개 문항 중 [가사일과 농사일을 병행하기가 힘들다] 항목의 평균점수가 4점 만점에 3.4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그 다음이 [영농기술 부족과 농기계 조작의 어려움]이 3.42점, [생산자 조직활동의 어려움]이 3.27점, [농업정보 및 법적 지식 부족]이 3.27점, [영농 및 창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음]이 3.15점 등의 순이었다. 즉, 영농활동, 조직활동, 교육참여 등에서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남녀차별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2.86점으로 남녀차별에 의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은 남녀차별과 같은 의식적인 문제보다는 과중한 노동 부담과 부족한 영농기술, 조직 활동 제한, 정보 부족 문제 등의 농업인으로서의 부족한 능력 및 한계를 더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여주면서, 전문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4-7.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4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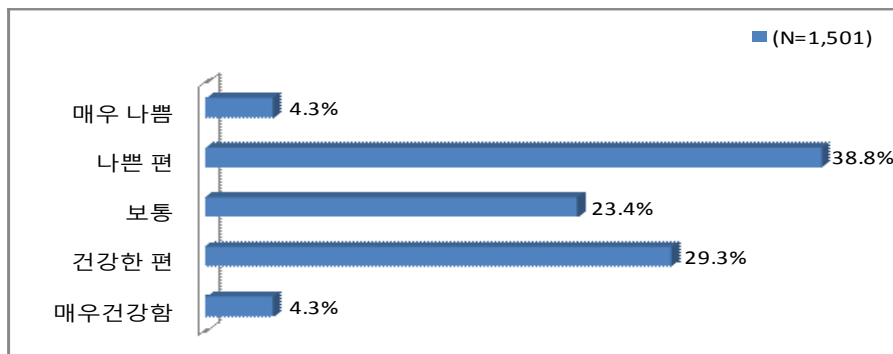


1. 건강복지

1.1.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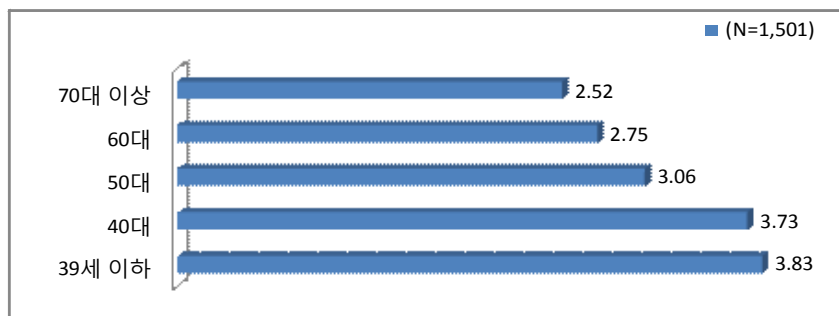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38.8%가 ‘나쁜편’이라고 응답하였고, 4.3%가 ‘매우 나쁨’이라고 하여 43%의 여성농업인이 본인의 건강이 안 좋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29.3%가 ‘건강한편’이라고 응답하였고, 4.3%가 ‘매우 건강함’이라 응답하여 여성농업인의 33.6%가 건강한 편이다.

그림 5-1.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고령일수록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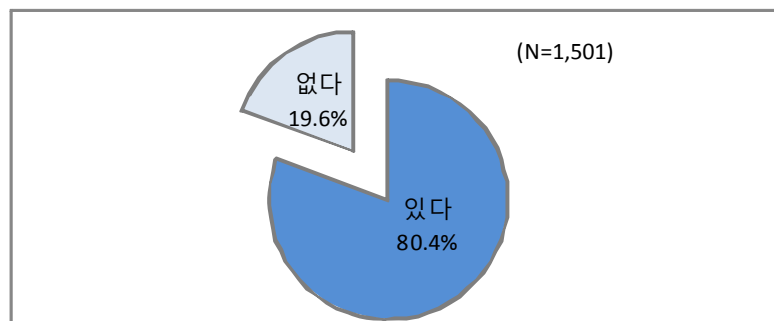


주: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여성농업인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냄.

1.2.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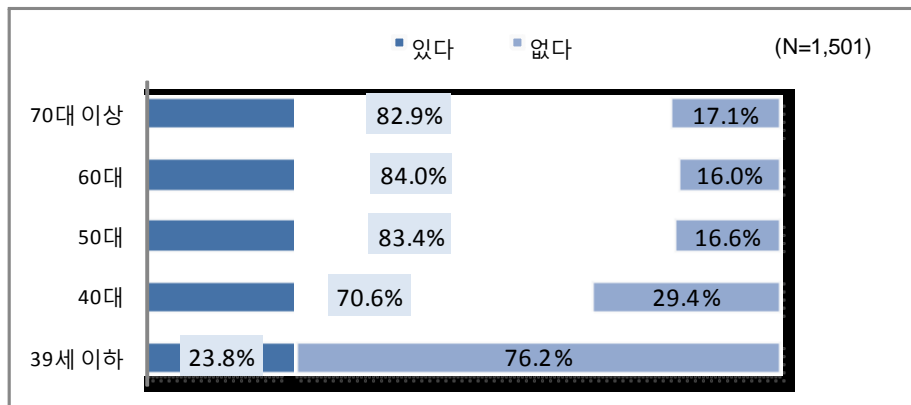
지난 2년 동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0%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3. 지난 2년간 종합건강검진 경험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23.8%만이 지난 2년 동안 종합건강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비교적 저연령층 여성농업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험이 적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60대,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80% 이상이 지난 2년 동안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해 고령일수록 건강검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 연령대별 건강검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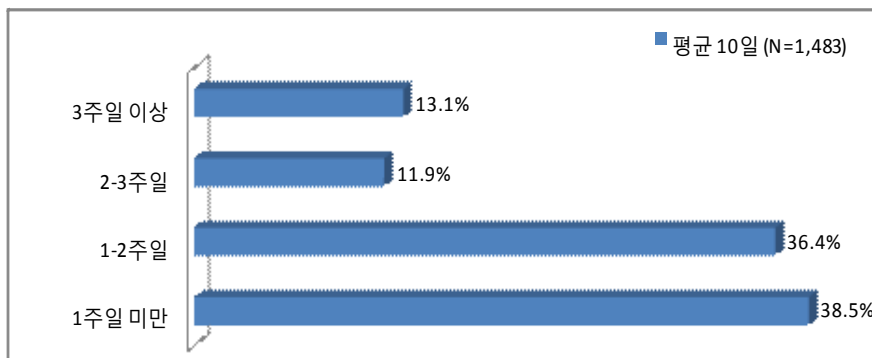


1.3. 산후조리

조사대상자 본인이 출산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8%가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여성농업인이 출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출산 후 농사일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출산 후 10일 동안 농사일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8.5%가 채 1주일 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했으며 36.4%가 1주일에서 2주일미만의 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 74.9%의 여성농업인이 출산 후 2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만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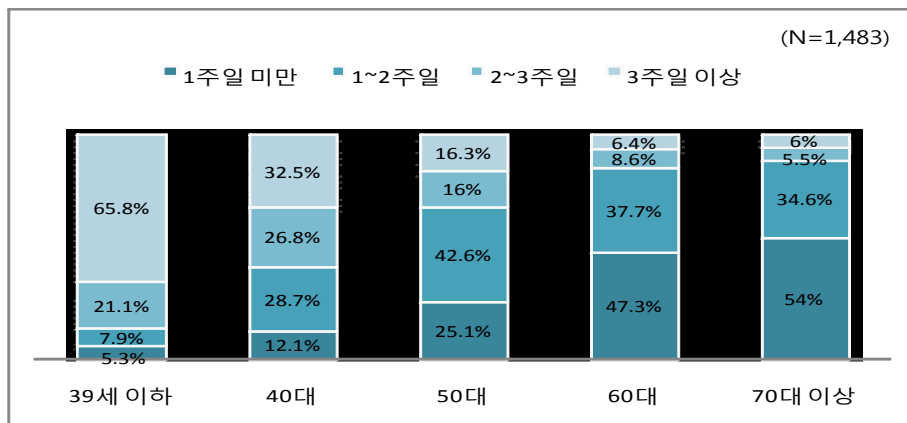
고 2~3주일동안 조리를 한 여성이 11.9%, 3주일 이상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13.1%로 나타났다.

그림 5-5. 산후조리기간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출산 후 1주일 미만 산후조리 한 비율이 54%로 39세 이하의 5.3%와 비교하여 매우 높다, 반면 39세 이하에서는 3주일 이상 산후 조리한 비율이 65.8%로 가장 높다. 따라서 연령층이 젊을수록 산후조리기간이 현저히 길어지는 추세이다.

그림 5-6. 연령대별 산후조리기간



우리나라의 15~44세 사이 유배우 여성들의 평균 산후조리기간이 1.4개월인 것과 비교하면⁴ 여성농업인들의 평균 산후조리기간은 그 1/5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39세 미만의 여성농업인들의 산후조리기간도 고연령층에 비해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2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2. 보호노동 및 보육

2.1. 요보호 가구원 현황

가구 내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만 6세미만의 아동과 같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원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N=1,501)의 14.9%(N=224)가 적어도 한명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6세미만 아동이 가구 내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85.1%(N=1,277)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5%였으며,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6.2%였다. 만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로 나타났다.

4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22-224.

표 5-1. 요보호 가구원 현황

단위: %(명)

	요보호 가구원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만6세 미만의 아동
■ 전 체 ■	5.5(83)	6.2(93)	4.7(70)
■ 연 령 별 ■			
39세 이하	2.4	4.8	42.9
40 대	5.0	5.6	5.0
50 대	8.4	5.4	4.9
60 대	5.3	5.7	3.4
70세 이상	3.5	7.9	2.0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은 4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6세 미만의 아동이 가구 내에 있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 경우 손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보육 현황

현재 만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N=70) 보육시설에 보내는지 집에서 돌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57.1%가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며, 42.9%는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의 83.3%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며, 60대에서는 58.8%가 집에서 돌본다고 응답하여, 젊은 여성농업인의 보육시설 활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만6세 미만 아동 보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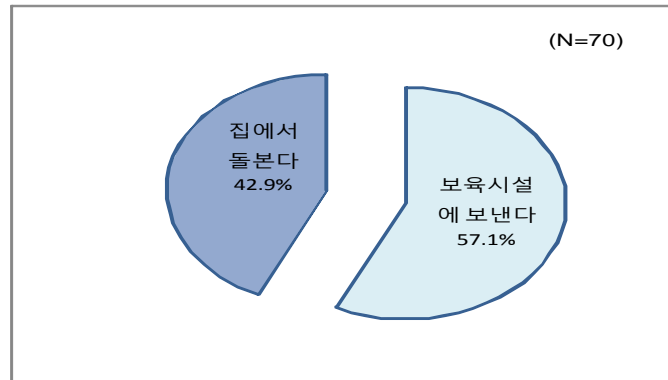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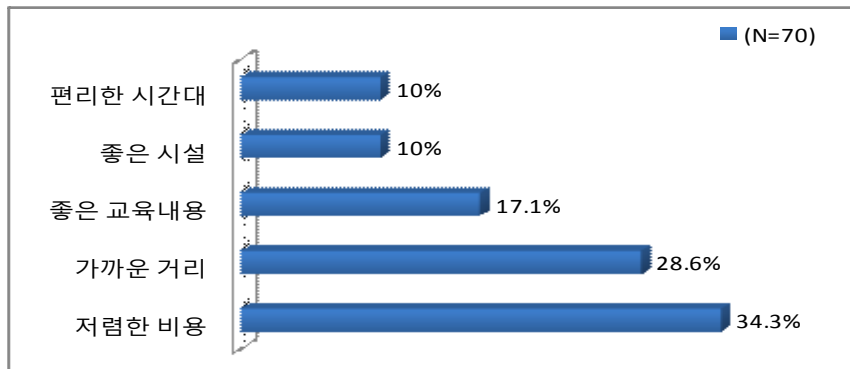
표 5-2. 만6세 미만 아동의 보육 방식

단위: 명(%)

	보육시설에 보낸다	집에서 돌본다	계
■ 전 체 ■	40(57.1)	30(42.9)	70(100.0)
▣ 연령 별 ▣			
39세 이하	15(83.3)	3(16.7)	18(100.0)
40 대	5(62.5)	3(37.5)	8(100.0)
50 대	9(47.4)	10(52.6)	19(100.0)
60 대	7(41.2)	10(58.8)	17(100.0)
70세 이상	4(50.0)	4(50.0)	8(100.0)

만6세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농촌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렴한 비용이 중요하다’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8.6%가 ‘가까운 거리’를 꼽았다. 그리고 ‘교육내용이 좋아야 한다’는 17.1%, ‘맡기는 시간이 길고 종일반, 야간반, 휴일반 등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시설이 좋아야 한다’도 10%였다.

그림 5-8. 농촌보육시설의 주요 요건(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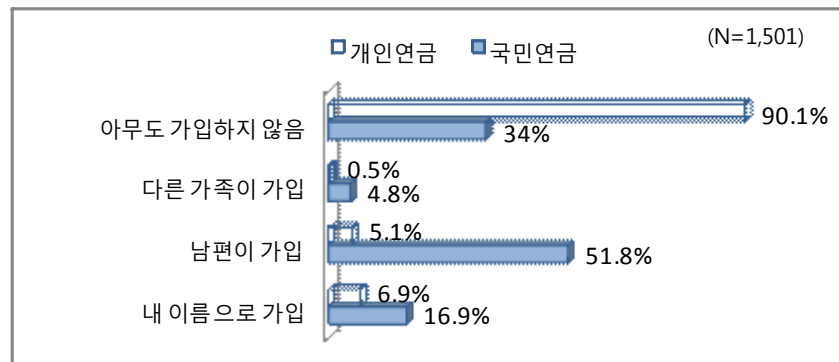


3. 연금가입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가족 중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34%가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 한명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66%는 가족 중 적어도 한명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남편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51.8%로 가입자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가입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가족이 가입한 경우가 4.8%였다. 여성농업인 자신의 명의로만 가입하거나 남편 가입과 함께 여성농업인 자신의 명의로도 가입한 경우는 16.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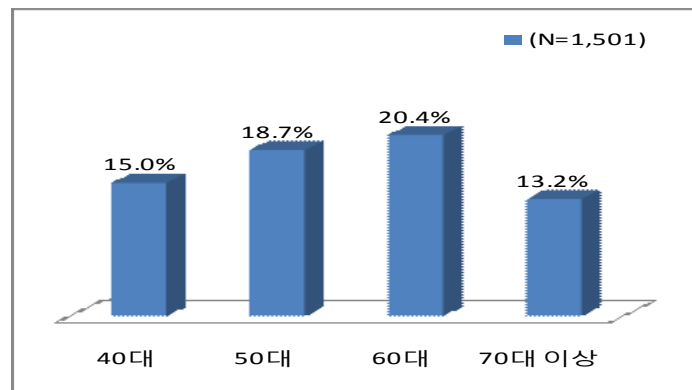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90.1%가 가족 중 누구도 가입하지 않았고 9.9%만이 가족 중 적어도 한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0.5%는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가입했으며 5.1%는 남편의 명의로 가입했고, 여성농업인 본인의 명의로만 가입하거나 남편 가입과 함께 여성농업인 자신의 명의로도 가입한 경우는 6.9%였다.

그림 5-9. 연금가입 현황



연금가입 여부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여 70세 이상에서는 13.2%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70세 이상 고령층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0대에서는 20.4%로 가입율이 가장 높고, 50대 18.7%, 40대 15%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연령대별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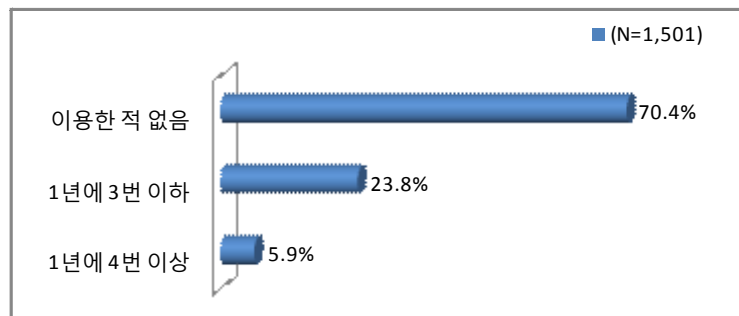


4. 문화 향수

4.1. 문화행사 참석 및 문화시설 이용도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관람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0.4%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년에 3번 이하는 23.8%, 1년에 4번 이상은 5.9%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문화향수는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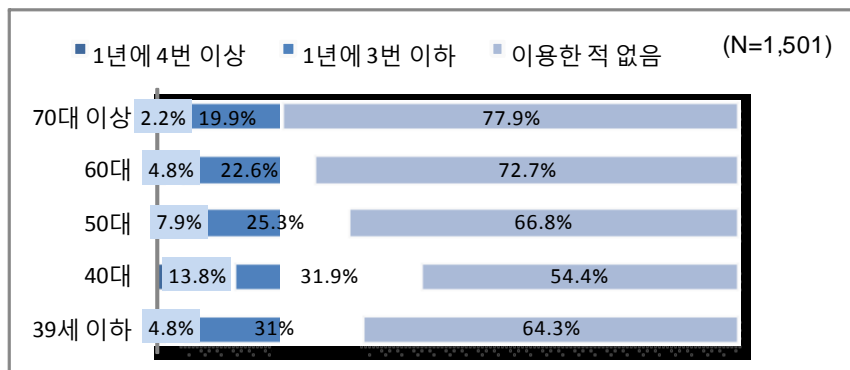
그림 5-11. 여성농업인의 문화행사 참석 및 문화시설 이용도



연령대별로는 40대의 13.8%가 1년에 4번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여, 40대가 상대적으로 문화 향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비율은 39세 이하에서는 64.3%, 40대에서는 54.4%, 50대에서는 66.8%, 60대는 72.7%, 70세 이상은 77.9%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관람과 이용도는 낮았다.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수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40대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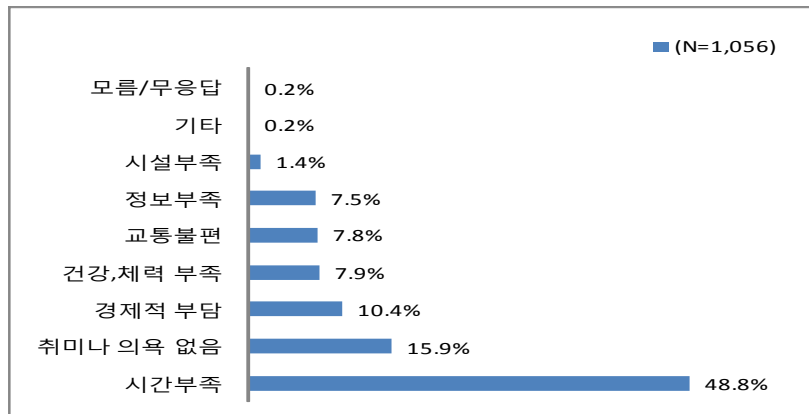
률은 비교적 높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문화시설 이용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연령대별 문화향수 정도



지난 1년간 문화행사를 관람하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행사 관람이나 문화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시간부족이 4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취미나 의욕 부족 15.9%, 경제적 부담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영농활동이 활발한 40대, 50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시간 부족을 많이 지적하였고, 60대, 70세 이상의 고령층일수록 건강, 체력부족, 교통 불편 등의 이유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표 5-3. 연령대별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명)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시간부족	55.6	59.8	57.5	48.2	38.5
취미나 의욕 없음	11.1	11.5	14.6	15.8	18.8
경제적 부담	11.1	8.0	10.3	11.4	9.9
건강, 체력 부족	0.0	0.0	4.6	8.2	13.1
교통불편	0.0	8.0	5.4	7.1	11.1
정보부족	22.2	6.9	5.7	7.9	7.3
시설부족	0.0	4.6	1.1	1.1	1.3
기타	0.0	0.0	0.8	0.0	0.0
모름/무응답	0.0	1.1	0.0	0.3	0.0
합계	100(27)	100(87)	100(261)	100(367)	100(314)

5. 조직가입 및 활동

농협과 축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인 조직에 남편 명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농업인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해 있는지, 그리고 농협의 농가주부모임, 농촌진흥청의 생활개선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한여농) 등의 주요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농협조합원을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여성농업인은 36.3%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농업인 조직 가입률은 10%에 이르지 못했는데, 작목반에는 8.2%, 영농조합법인이

나 농업회사법인에는 3.4%의 여성농업인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6.6%의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인 관련 조직에 남편이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농협조합원으로 남편이 가입한 비율은 60.9%, 작목반은 24.1%로 여성농업인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4.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관련 조직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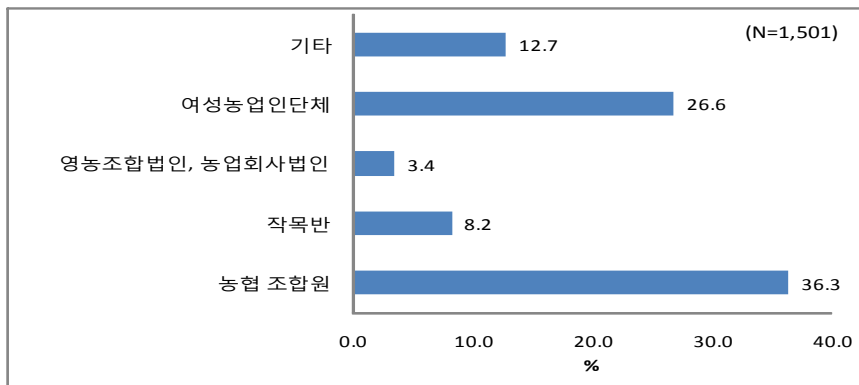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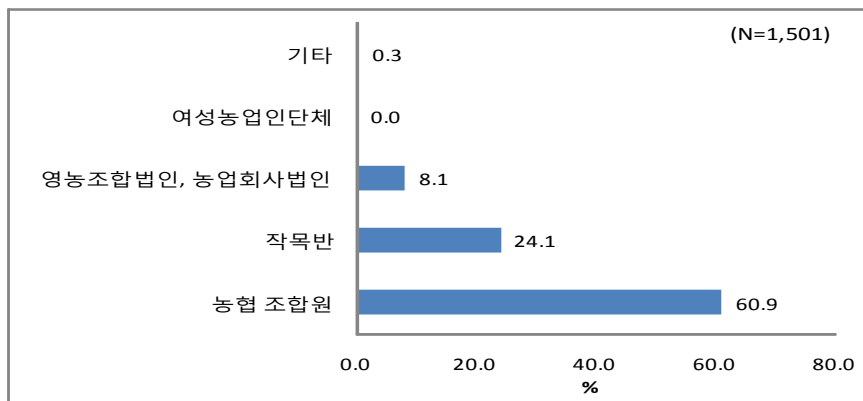


그림 5-15. 배우자의 농업인 관련 조직 가입률



연령대별로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조직에서 40, 50대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작목반,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는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농협 조합원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고령층보다 39세 이하 연령층의 가입률이 오히려 낮아, 상대적으로 영농활동 비중이 낮은 젊은 여성농업인 연령층이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조직 참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연령대별 농업인 관련 조직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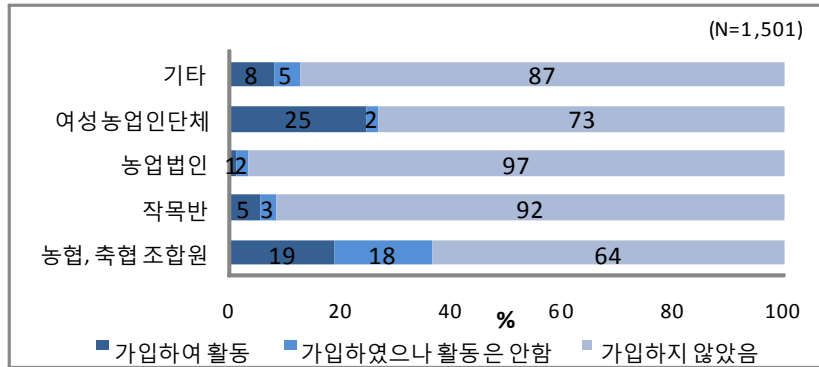
단위: %

	농협 조합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성농업인단체
39세 이하	19.0	7.2	2.4	33.3
40대	35.0	11.3	4.4	46.3
50대	36.5	12.5	4.1	35.2
60대	39.4	6.8	3.2	24.4
70세 이상	34.5	4.7	2.7	12.7

각종 조직에 가입한 경우 이름만 올려놓았는지 아니면 적극 활동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농협 조합원으로는 17.5%가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극 활동하고 있다’는 여성농업인은 18.8%에 불과해 가입한 경우에도 절반이상의 여성농업인이 농협 조합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목반에 가입한 8.2%의 여성농업인 가운데 2.9%가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했으며, 5.3%는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가입한 3.4%의 여성농업인 가운데 2.5%는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응답했으며, 0.9%만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한 26.7%의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2%가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응답했으며, 24.7%는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하여, 다른 조직보다는 가입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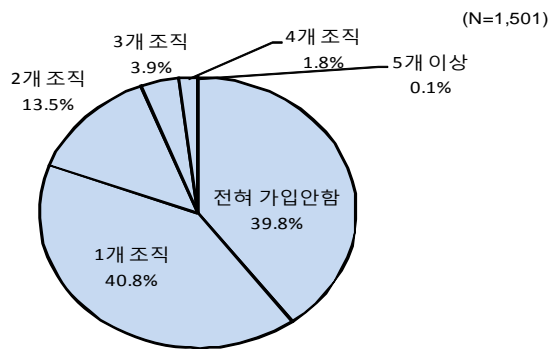
그림 5-16. 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여성농업인이 이상과 같은 농업인 관련 조직에 몇 개 가입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39.8%(598명)는 어떠한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60.2%(903명)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40.8%는 1개 조직에 가입했으며, 13.5%는 2개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9%는 3개 조직에, 1.8%는 4개 조직에 가입하였다. 5개 이상의 조직에 가입한 경우는 0.1%였다.

그림 5-17. 가입조직수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에서는 1인당 평균 0.67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으며, 40대에서는 1.15개, 50대에서는 1.07개, 60대에서는 0.86개, 70세 이상에서는 0.61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 50대 여성농업인이 비교적 많은 수의 조직에 가입한 데 비해 70세 이상의 고령층과 3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는 비교적 평균 가입 조직수가 적은 편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과 초등졸 여성농업인이 1인당 평균 0.62개와 0.93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는데 비해, 중졸 여성농업인은 1.13개, 고졸 이상의 학력의 여성농업인은 1.14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대졸 여성농업인은 0.78개로 중졸과 고졸 학력을 여성농업인들에 비해 조직가입수가 적은 편이다.

표 5-5.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평균 가입 조직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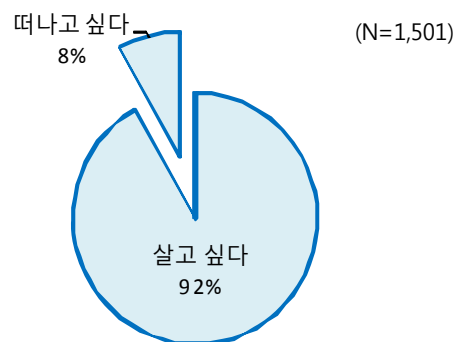
	평균 가입 조직수
<p>■ 연령별 ■</p>	
39세 이하	0.67
40 대	1.15
50 대	1.07
60 대	0.86
70세 이상	0.61
<p>■ 교육수준별 ■</p>	
무 학	0.62
초 등 졸	0.93
중 졸	1.13
고 졸	1.14
대 졸	0.78

1. 농촌 거주 의향

1.1. 향후 농촌 거주 의향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의향을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92%가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1. 향후 농촌 거주 의향



향후 농촌거주 의향은 여성농업인의 연령, 교육수준, 지난 1년간 영농종사기간, 가구형태, 전업농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이 저연령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농촌거주의사가 현저히 낮아져, 향후 젊은 연령층이 살고 싶은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향후 농촌사회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또한 지난 1년간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독신 및 부부가구일 때, 그리고 전업농일 때 향후 농촌거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 여성독신가구의 농촌거주 의향이 높은 이유는 농촌을 떠나는 이전 비용이 농촌을 떠나는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농촌에 어쩔 수 없이 잔류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6-1. 농촌거주 의향

단위: %(명)

		살고 싶다	떠나고 싶다	계
전체		91.8	8.2	100(1,501)
연령별	39세 이하	71.4	28.6	100(42)
	40대	85.0	15.0	100(160)
	50대	88.5	11.5	100(391)
	60대	93.5	6.5	100(505)
	70세 이상	97.8	2.2	100(403)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94.6	5.4	100(1,138)
	중졸	86.8	13.2	100(205)
	고졸이상	85.7	14.3	100(158)
영농종사기간	6개월 미만	87.6	12.4	100(1,422)
	6개월 이상	91.1	8.9	100(79)
가구형태	독신 가구	97.9	2.1	100(241)
	1세대 가구	93.5	6.5	100(682)
	2세대 가구	86.3	13.7	100(241)
	편부모+자녀	86.2	13.8	100(94)
	3세대 가구	90.2	9.8	100(173)
	조부모+손자녀	84.0	16.0	100(25)
	기 타	84.4	15.6	100(45)
전점업 유무	전업농	92.9	7.1	100(1,045)
	겸업농	89.3	10.7	100(456)

1.2.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 123명에게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농사일이 힘들어서’(53.7%), ‘소득이 낮아서’(18.7%),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연령과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의 경우 ‘자녀 교육문제’로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매우 높지만 40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낮거나’ ‘농사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에서 8.3%인 반면, 50세 이상은 2.5%이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는 자녀교육과 문화생활 부족 등의 문제로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과중한 노동과 낮은 소득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세대가구 여성농업인의 경우 주로 농사일이 힘들어서(67.5%)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2세대 이상 가구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이 힘들어서 47.2%, 소득이 낮아서 25.9%, 자녀교육 때문이 17.2% 등으로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6-2.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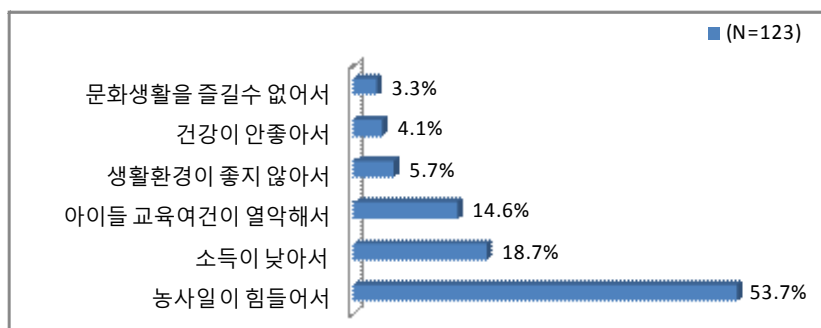


표 6-2. 주요 특성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계	농사일이 힘들어	소득이 낮아	자녀교육 때문에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
연령	39세 이하	100(12)	-	16.7	75.0	-	-	8.3
	40대	100(24)	29.2	37.5	2.0	8.3	-	-
	50세 이상	100(87)	74.7	9.1	2.2	4.5	6.9	2.5
가구 형태	독신, 1세대	100(49)	67.5	5.7	1.2	2.3	21.2	2.3
	2세대 이상	100(67)	47.2	25.9	17.2	4.2	3.4	2.2
	기타	100(7)	57.1	14.3	-	28.6	-	-
전체		100(123)	53.7	18.7	14.6	5.7	4.1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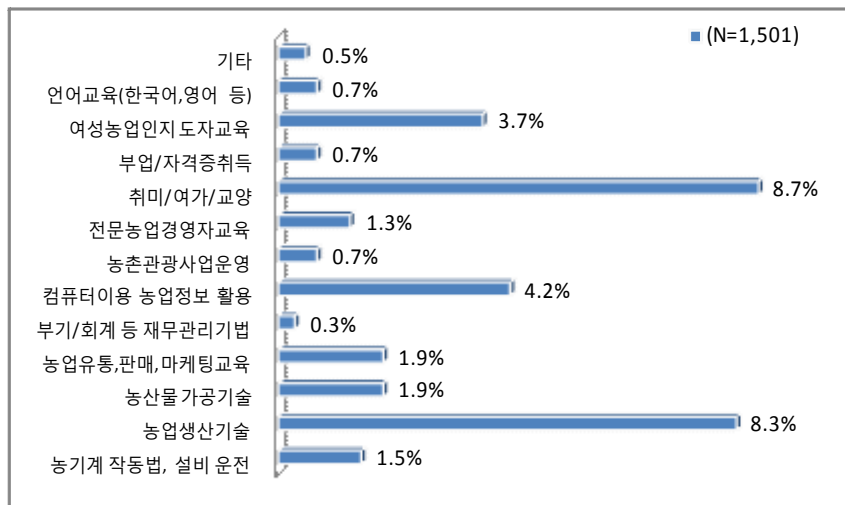
2. 교육현황

2.1. 교육 경험

최근 3년간 어떤 종류의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전체의 21.3%(320명)이다. 또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프로그램 별 참여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취미, 여가, 교양’과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을 교육 받는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각각 8.7%, 8.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밖의 교육 경험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5% 미만이다. 특히, ‘부기/회계와 재무관리’(0.3%), ‘부업 및 자격증 취득’(0.7%), ‘농촌관광사업 운영’(0.3%) 교육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비

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그림 6-3. 여성농업인의 교육경험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545명 중 60%가 ‘취미/여가/교양’을 희망하고,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정보 활용’(33.8%), ‘농업생산기술’(26.1%), ‘부업/자격증 취득’(16.9%), ‘농업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15.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취미, 부업, 컴퓨터 교육,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졸 이상의 학력 층일수록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교육과 부업 교육에서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런데 농기계 및 설비운전, 농업생산기술, 농산물 유통, 여성농업인 지도자, 농업경영 등의 교육에서는 40대 연령층의 참가율이 가장 높아, 농업관련 여성농업인 교육의 주 대상층은 40대 연령층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4. 여성농업인의 교육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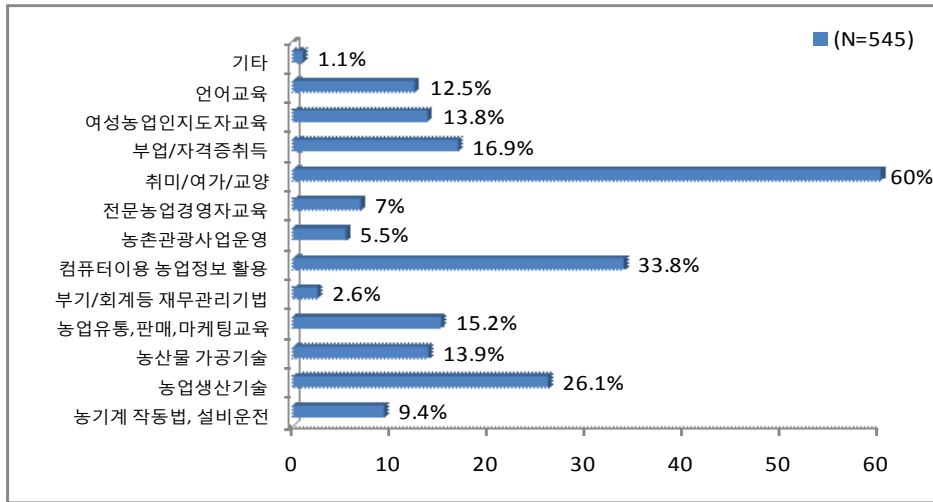


표 6-3. 지난 3년간의 교육경험 여부(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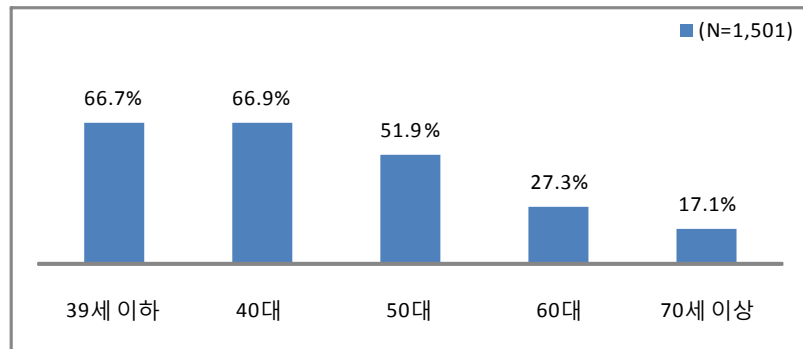
단위: %

	받은 적 있다													받은적 없다
	설비 운전	생산 기술	가공	유통	재무 관리	컴퓨터	농촌 관광	경영	취미	부업 자격	지도 자	언어	기타	
계	1.5	8.3	1.9	1.9	0.3	4.2	0.7	1.3	8.7	0.7	3.7	0.7	0.5	78.7
연령대별														
-39	2.4	4.8	0	0	0	4.8	0	2.4	9.5	0	0	4.8	0	81.0
40	3.8	15.0	5	7.5	0.6	15.0	1.9	4.4	13.8	3.8	11.9	1.3	0.6	61.3
50	1.5	9.5	2.8	2.8	0.5	7.2	2.0	2.3	13.8	1.0	5.4	0	1.0	70.3
60	1.2	8.1	1.6	1.0	0.2	1.2	0	0.4	6.7	0	3.2	0.2	0.2	82.4
70+	0.7	5.2	0.2	0.2	0	0.7	0	0	4.2	0	0	1.5	0.5	88.8
학력별														
무학	1.0	5.5	0.2	0	0	0.4	0	0	4.3	0	0.6	0.8	0.6	89.0
초졸	1.1	9.0	1.9	1.6	0.2	2.7	0.2	0.5	7.9	0.3	4.3	0.5	0.3	79.2
중졸	2.4	11.7	3.4	3.9	1.0	11.2	2.0	2.4	15.1	1.5	5.9	0.5	1.0	63.9
고졸	3.6	9.3	3.6	5.7	0	14.3	3.6	6.4	17.1	2.9	10.0	0.7	0.7	62.1
3년제	0	0	0	0.0	0	0	0	0	11.1	0	0	0	0	88.9
4년제	0	33.3	33.3	33.3	11.1	11.1	11.1	22.2	33.3	11.1	0	22.2	0	44.4

2.2. 교육 수요

향후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63.7%(956명)이고,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36.3%(545명)이다. 39세 이하와 40대 여성농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 비율은 각각 66.7%, 66.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은 단지 17.1%만이 교육 받기를 희망하였다.

그림 6-5. 연령대별 향후 교육 희망자 비중



모든 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은 ‘취미·여가·교양’, ‘부업·자격증 취득’ 및 ‘컴퓨터 이용 및 농업정보 활용’ 등이다. 39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부업/자격증 취득, 컴퓨터 이용, 취미/여가/교양 등의 문화생활, 취업과 관련된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40, 50대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 유통, 마케팅 기술, 컴퓨터 교육 등 실질적 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 향후 교육수요(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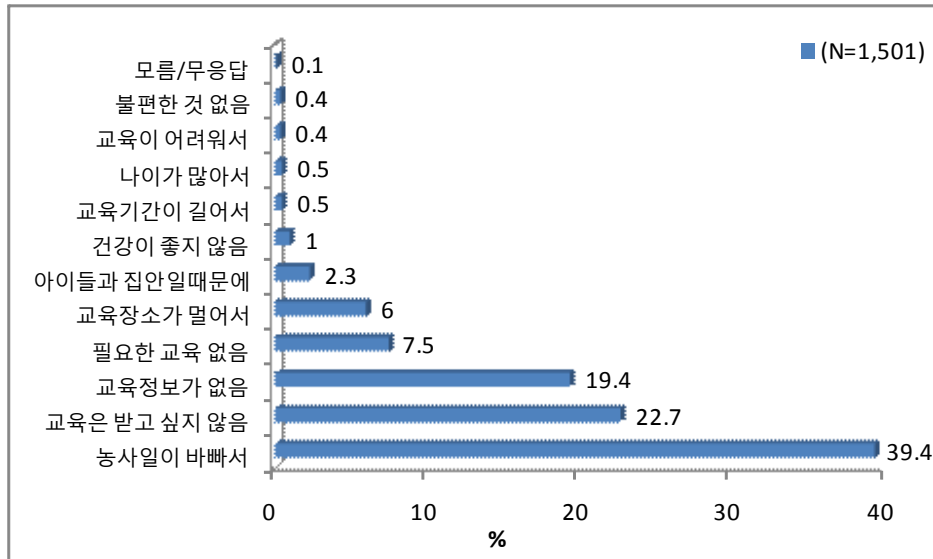
단위: %

	교육을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음
	설비 운전	생산 기술	가공	유통	재무 관리	컴퓨터	농촌 관광	경영	취미	
연령대별										
-39	14.3	10.7	17.9	14.3	0	57.1	7.1	10.7	53.6	33.3
40	15	20.6	20.6	25.2	4.7	39.3	7.5	15	54.2	33.1
50	9.9	25.1	15.3	18.2	3.9	44.8	7.9	8.4	56.7	48.1
60	7.2	31.2	11.6	8.7	0.7	20.3	2.9	1.4	65.9	72.7
70+	1.4	33.3	2.9	4.3	0	10.1	0	0	69.6	82.9
학력별										
무학	4.2	30.5	4.2	3.2	0	9.5	0	0	64.2	81.3
초졸	9.3	28.9	12.9	13.3	1.3	32	4.4	4.4	56.9	64.3
중졸	10.8	24.2	15	16.7	4.2	39.2	6.7	9.2	60.8	41.5
고졸	13.7	17.9	22.1	27.4	5.3	54.7	10.5	15.8	60	32.1
3년제	0	20	40	40	20	20	20	20	80	44.4
4년제	0	20	40	40	0	60	20	20	80	44.4

2.3.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평소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제 1순위 이유는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39.4%),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22.7%),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19.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6.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연령대별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농사일이 바빠서’가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50대 여성농업인의 응답률이 높았다. 39세 이하 연령층은 ‘아이들과 집안일 때문에 집을 비우기 어렵다’를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사일이 바쁘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졸 여성농업인에서는 교육을 받고 싶지 않음, 아이들과 집안일 때문에, 교육장소가 멀어서 등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영농형태별로는 축산농가의 경우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6.3%로 가장 낮고, 농사일 바쁘고, 정보를 몰라서, 그리고 교육장소가 멀어서 교육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작농가의 경우 필요한 교육이 없다고 지적한 여성농업인이 12.9%로서 다른 영농형태보다 그 응답률이 높아, 보다 관련 교육이 특화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6-5. 주요 특성별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단위: %

	교육 정보 없음	필요 교육 없음	농사 일이 바쁨	아이 들과 집안 일	교육 장소 멀어 서	교육 기간 길어 서	교육 받고 싶지 않음	기타	불편 한것 없음	합 계
연령대별										
39세 이하	21.4	2.4	38.1	14.3	7.1	0.0	16.7	0.0	0.0	100
40대	21.9	6.3	46.3	6.9	9.4	0.6	7.5	0.6	0.6	100
50대	18.2	7.7	48.3	2.3	5.9	0.3	16.6	0.5	0.3	100
60대	20.4	6.5	39.4	1.0	5.3	0.8	24.2	1.8	0.6	100
70세 이하	18.1	9.4	28.0	1.0	5.5	0.2	33.3	4.0	0.2	100
학력수준별										
무학	17.1	6.5	35.2	1.0	4.7	0.4	31.1	3.5	0.4	100
초졸	19.2	8.6	40.0	1.3	6.0	0.6	22.5	1.3	0.3	100
중졸	21.0	7.8	45.9	4.4	8.8	0.0	10.7	1.0	0.5	10
고졸	27.9	6.4	42.1	7.1	5.7	0.7	9.3	0.0	0.7	100
대졸	5.6	0.0	38.9	16.7	11.1	0.0	27.8	0.0	0.0	100
영농형태별										
논벼	20.3	7.0	37.1	1.7	5.3	0.6	25.4	1.9	0.5	100
과수	19.1	6.8	41.4	1.9	7.4	0.0	22.2	1.2	0.0	100
채소	15.6	8.5	51.7	4.3	6.6	0.5	10.9	1.9	0.0	100
화훼	20.0	6.7	46.7	0.0	0.0	6.7	20.0	0.0	0.0	100
전작	18.6	9.3	31.4	3.6	6.2	0.0	27.8	2.6	0.5	100
특작	25.8	12.9	38.7	0.0	6.5	0.0	12.9	3.2	0.0	100
축산	25.0	2.1	52.1	4.2	10.4	0.0	6.3	0.0	0.0	100
기타	6.7	0.0	33.3	0.0	0.0	0.0	53.3	0.0	6.7	100

주: 무응답자 제외.

3.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이용 현황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1%이고, 정책 및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 비율은 9%로 나타났다. 2003년 실태조사에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20% 미만, 정책 이용률 5% 미만 수준과 비교할 때, 2008년의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은 향상되었다. 특히 정책 인지도는 2배 이상 향상되었다.

그림 6-7.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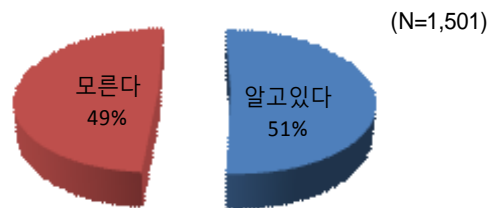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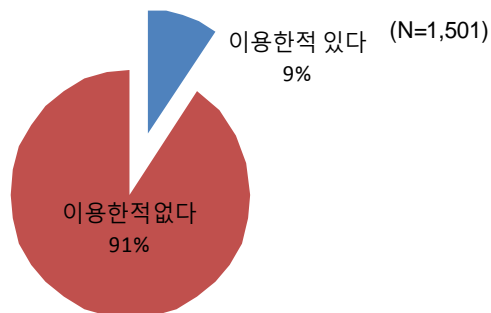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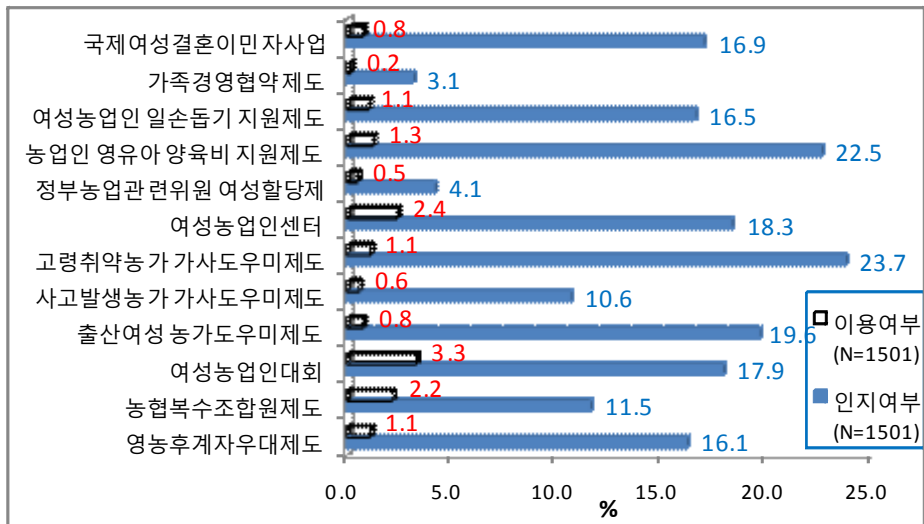


그림 6-8. 여성농업인 정책의 이용률



여성농업인 정책 및 제도 중에서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제도(23.7%),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22.5%) 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농업인대회(3.3%), 여성농업인센터(2.4%) 등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9.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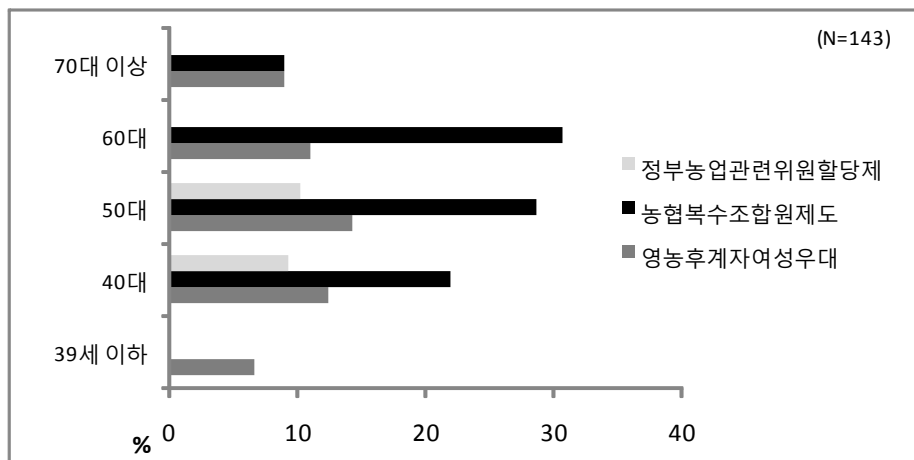
모든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인지율에 비해 실제 이용현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농가도우미, 사고발생농가 농가도우미제도, 농업관련위원회 여성할당제, 가족경영협약제도 등의 이용률은 1% 미만이다. 제도 및 정책 이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대체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다른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여성농업인대회, 여성농업인센터의 이용률은 각각 3.3%, 2.4%로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여성농업인 정책을 이용한 적이 있는 143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정책 이용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대별로 정책 유형별 이용률이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관련된 제도인 정부농업관련위원회할당제, 농협복수조합원제도, 영농후계자우대제도 등의 이용률은 대체로 영농활동이 활발한 50대, 60대, 40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협복수조합원 제도는 60대, 50대, 40대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농업관련위원회할당제는 50대, 40대 여성농업인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후계자여성우대제도 이용도는 50대,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영농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39세 이하에서는 영농후계자여성우대제를 이용한 여성농업인은 있으나, 농협복수조합원제도와 정부농업위원회관련위원회할당제를 이용한 여성농업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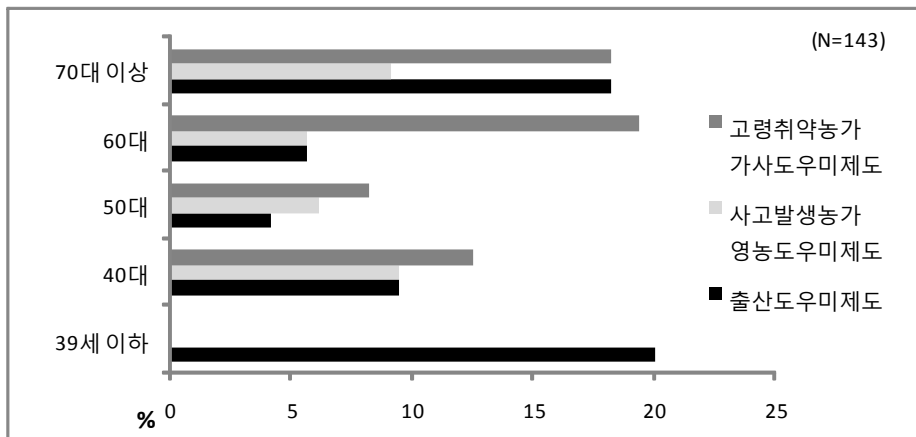
그림 6-10.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지위향상 관련 제도



농가의 영농 및 가사 일손을 덜어주는 각종 도우미제도의 이용률은 각 도우미제도의 특징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 연령대가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주는 ‘출산도우미제도’는 39세 이하와 70대 여성농업인의 이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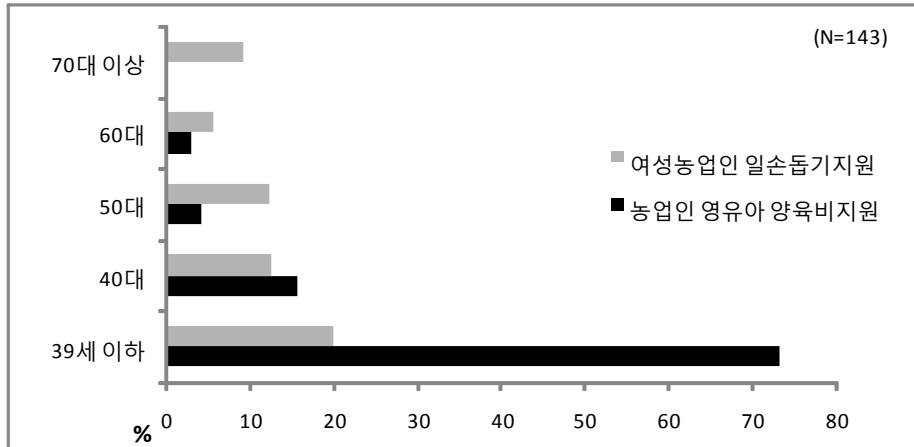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며느리, 자녀 등의 이용률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인력을 지원하는 ‘사고발생농가 영농도우미 제도’는 7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령으로 인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빨래, 청소, 반찬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제도’는 고령 여성농업인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의 농어촌 고령가구(단독 및 부부가구 포함) 중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6-11.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도우미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의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008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통합)’의 이용률은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39세 이하의 젊은 여성농업인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12.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



‘여성농업인대회’는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여성농업인의 이용률이 40% 내외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센터’ 이용률은 40대에서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50대, 70대 이상, 60대 순이다. ‘가족경영협약제도’는 40대에서만이 이용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다른 정책 및 제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지원제도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40대, 60대 등의 순이다. 7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국제여성결혼이민자를 며느리로 삼은 여성농업인의 응답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림 6-13.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여성농업인대회, 여성농업인센터, 가족경영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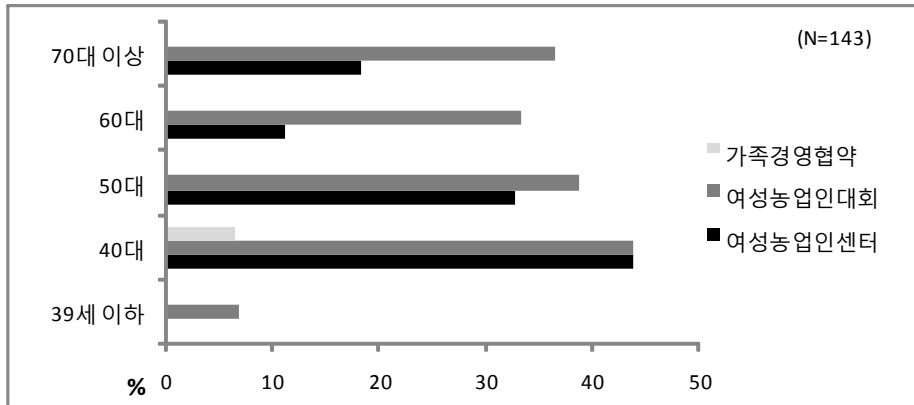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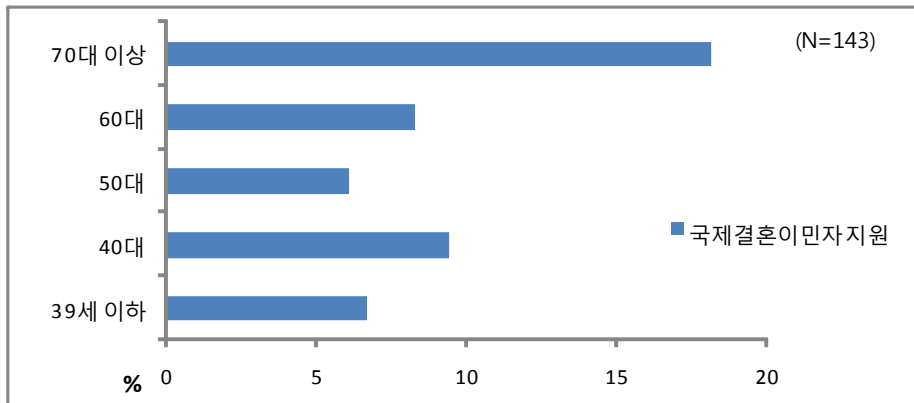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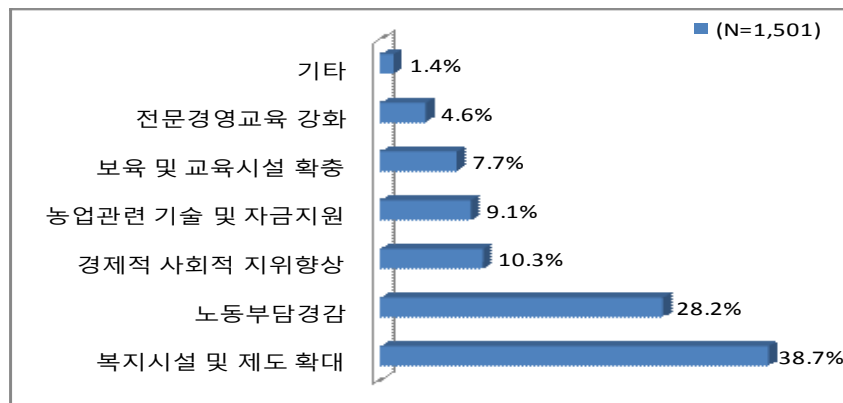
그림 6-14.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률: 국제여성결혼이민자사업



4.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향후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에 대해 38.7%가 ‘복지시설 및 복지 제도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28.2%가 ‘노동부담 경감’, 10.3%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9.1%가 ‘농업관련 기술 및 자금지원’, 7.7%가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4.6%가 ‘전문경영교육 강화’로 응답하였다.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지제도 확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결과는 조사대상 여성의 60%가 60대 이상이라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정책수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6-15. 향후 여성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과제(1순위)



40대 미만 여성농업인의 40.5%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인력화와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0대,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31%는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4.7%가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 경감을 제1과제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업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농촌사회에서 활발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연령대 여성농업인에게는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인한 여가생활 부족과 건강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활동하기 편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44%가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충의 필요성을 제1순위 정책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30.7%가 노동부담 경감으로 응답하였다.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로 정책수요는 다르게 나타나, 연령대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여성농업인 정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16. 젊은 여성농업인(40대 미만)의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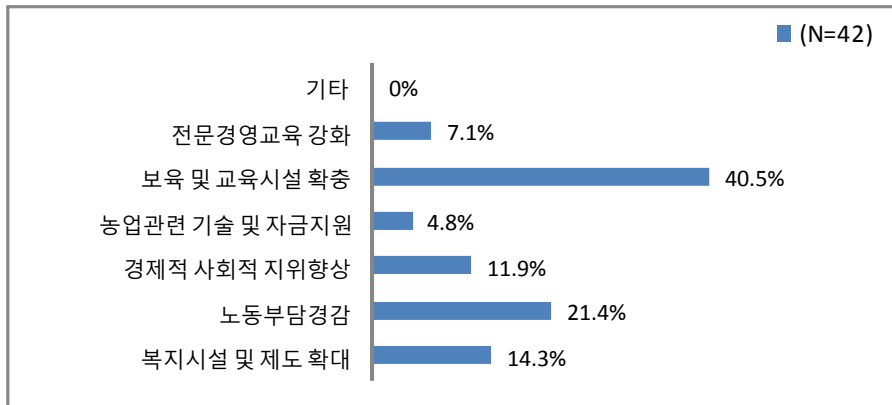


그림 6-17. 중장년 여성농업인(40대, 50대)의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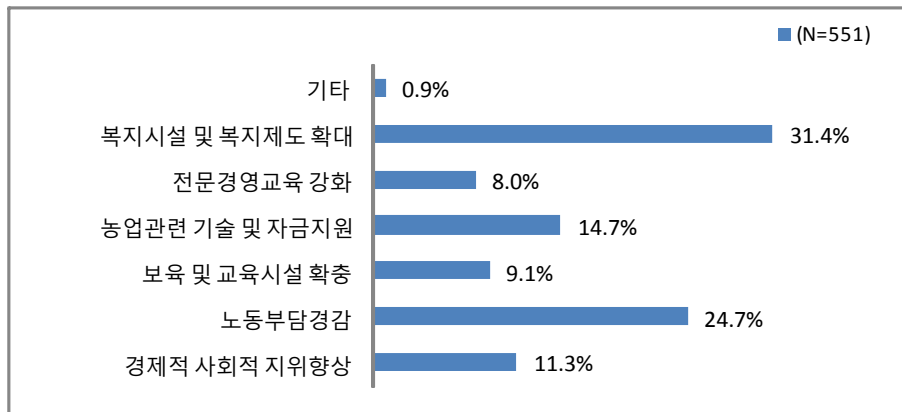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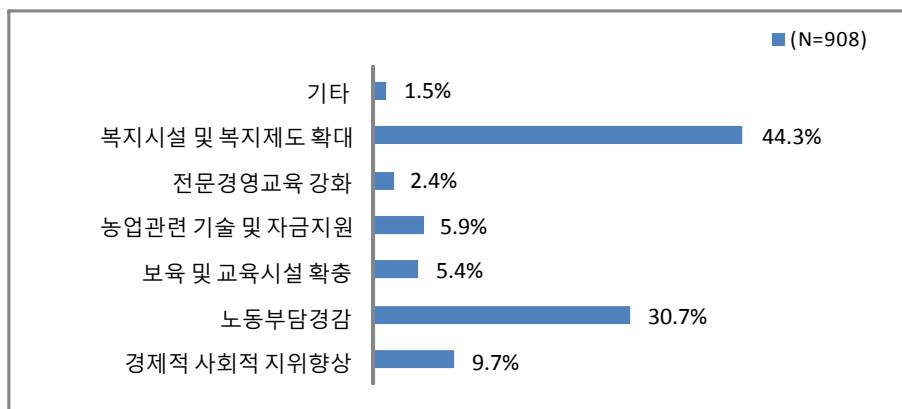


그림 6-18. 고령 여성농업인(60대 이상)의 정책수요



1.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여성농업인력의 규모

2007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7.7%, 비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로, 농가 여성은 비농가 여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통계청, 「2007년 경제활동인구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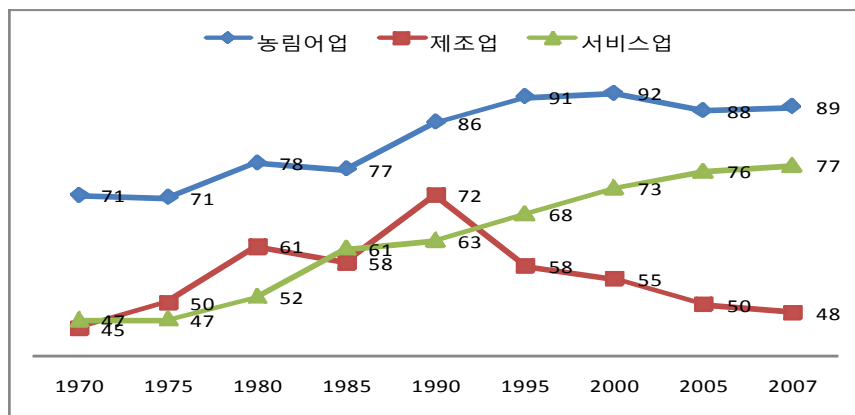
2007년 15세 이상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 인구 비중은 52.7%로 여성농업인은 영농인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⁵. 2007년 농업주종사 여성 농가인구는 102만 명이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은 199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7년에 48% 수준인 반면, 서비스업과 농림업에서는 남성 취업자 대비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특히 농림업의 경우

5 「농업조사」에서 ‘농업인’은 지난 1년간 농업활동 종사자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4주간 1시간 이상의 유급일 종사자이므로 두 개념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농가여성의 높은 취업종사율은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에는 남성 취업자 100명당 여성 취업자는 71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92명으로 거의 동수에 진입하였다. 2005년 이후 그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7년 89명으로 여전히 높은 여성 취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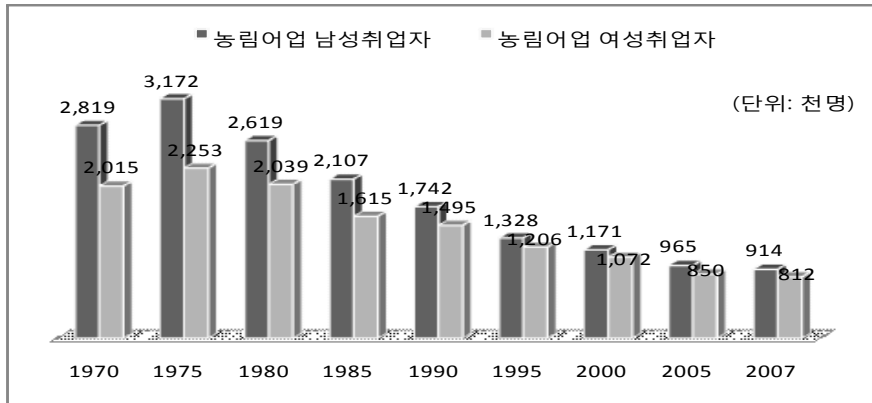
그림 7-1. 주요 산업별 남성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남녀 모두 197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취업자가 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이농으로 농가의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물던 농가여성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부족한 농업 인력을 대체한 결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나타낸다.

그림 7-2. 성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여성농업인의 인적특징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2세이고 초등학교 졸업의 저학력자이며 유배우자이다. 39세 이하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2.8%로 매우 낮고, 40대는 10.7%, 50대는 26.0%, 6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 이 중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26.8%를 차지한다. 여성농업인의 학력은 무학이 33.8%, 초등학교 졸업자가 42%이고 중졸이 13.7%, 고졸이 9.3%, 3년제 대학 이상이 1.2%로,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은 대체로 낮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중 겸업종사자는 13.1%이며, 이들의 겸업일 유형은 자영업과 생산직 근로가 많았다.

□ 여성농업인 경영주

농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경영주가 남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을 경영주로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26.3%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영주라고 응답한 395명 여성농업인은 대체로 고연령이며 무배우자로서 이들 여성의 83.8%가 60세 이상이며, 81.5%가 남편과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는 남성경영주에 의해 대표되고,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남편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고령 여성농업인 경영주 농가이다.

□ 여성농업인의 농지 소유상태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는 전체의 78.7%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여성농업인 명의로 된 농가는 21.3%로 나타났다. 논, 밭, 과수원을 소유한 농가 중 여성농업인 소유의 농지가 있는 비율이 각각 15.6%, 14.5%, 17.4%이다. 그런데 이들 농가의 상당수가 소유농지 전체를 여성명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독거노인의 농지 소유 현황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들의 소유한 면적은 절대규모에서는 영세하다.

□ 여성농업인의 자산보유 현황

농지를 제외한 집, 건물, 자동차, 기계 및 시설, 예금통장, 보험, 기타 금융자산 등 중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전체 1,501명 중 570명인 38%이다. 본인 명의의 자산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예금통장으로 48.7%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보험 26.3%, 집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 자산이 하나 이상인 여성농업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33%, 50대가 29.1%로 50, 60대의 자산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는 13.4%, 39세 이하는 2.9%로,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의 자산 소유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의 자산 소유 비중이 21.5%로 나타난 것은 여성독거 경영주 가구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농업종사경력

여성농업인의 평균 농업종사경력은 36년으로 긴 시간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베테랑들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평균 49.7년, 60대는 39.5년 동안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 긴 농업종사경력은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농업노동 분담 현황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약 44%가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핵심적인 농업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은 대부분 20대 중반에 농업을 시작한 이후 30대까지는 비교적 제한된 수준에서 농업노동에 기여하다가 40대 들어 농업노동 기여도가 현저히 증가해 전체 농업노동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러한 특징은 50대까지 계속된다. 60대 들어, 특히 70세 이후에는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사를 담당하고 가구 내에 다른 농업종사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업노동 참여정도를 줄여 나가는 경향이 현저하다.

영농형태별로는 화훼, 일반밭작물 등을 주로 하는 농가에서 70%이상 농사일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은 각각 46.7%, 42.8%로, 다른 영농형태보다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높다.

경종농업의 경우 내가 주로 담당하는 농작업은 제초작업(김매기) 29.2%, 씨앗심기(파종) 21.7%, 비료주기(시비)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의 경우, 여성농업인 주로 담당하는 농작업은 축산먹이주기 5.3%, 축사청소, 퇴비처리 2.7%, 방역, 위생관리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단순 농업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수확 후 농작업은 농축산물 판매 26.2%, 출하준비(선별, 포장) 25.6%, 수확물 건조, 세척 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하준비, 수확물 건조, 농산물 판매 등에 대해서는 30% 이

상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하루 평균 노동시간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은 하루 평균 8시간 55분의 농업노동을 하며 평균 2시간 24분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19분에 달한다. 이에 비해, 농한기에는 많은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을 하지 않는다. 농업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농번기에 비해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2분으로 농번기에 비해 늘어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치면 하루 평균 4시간 51분 정도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8시간35분,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43분이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19분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농업노동시간은 40대와 50대가 가장 긴데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3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더해 농외노동까지 하는 겸업자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은 현저히 적지만, 농외노동시간이 기간에 따라 적게는 하루 평균 5시간 30분에서 길게는 6시간 7분에 이르러 전체 노동시간은 농업 전업 여성농업인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외취업은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품사기나 작물 결정, 농사일정 결정, 농산물 출하 및 판매 등 농업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영농일지 기록, 장부 및 재무관리, 영농자재 구입, 영농자금 조달이나 농지의 판매·구매, 임대차 등의 재무관리와 주요 생산수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농업관련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이런 결과는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경영주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43.2%가 경영주로 타 연령층보다 그 비중이 높아,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농외소득활동 현황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96명(13.1%) 여성농업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5%, 50대가 15.9%, 60대가 12.3%, 39세 이하가 11.9%, 70세 이상이 6.7%로 나타나,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이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44.4%가 대학을 졸업하였고 고졸은 18.6%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다.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196명 여성농업인의 60.2%가 임금근로자(N=118)이며, 39.8%가 비임금근로자(N=78)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여성농업인 중 67.8%가 일용근로자, 20.3%가 임시근로자, 11.9%가 상용근로자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여성농업인 중 55.1%가 무급가족종사자, 43.6%가 자영업자, 1.3%가 고용주이다. 즉,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는 낮은 수준이다.

□ 향후 농외소득활동 의향

현재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16.6%(217명)만이 향후 농외소득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진출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에 관한 일을 하거나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간제 근무 16.9%, 농산물 가공업

16.0%, 자영업 9.9%, 일반직장 취업 9.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의 43.2%가 향후 농외소득활동 중 사 및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40대 40.8%, 50대 20.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60대는 12.2%, 70세 이상은 8.2%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외소득활동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 지역사회활동 현황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37%는 지역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58.8%가 마을부녀회로 응답하였다.

연령대별 지역사회 단체 참여율을 살펴보면,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컴퓨터 이용 현황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중 5.1%(76명)만이 현재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농업 정보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76명의 여성농업인 중 농업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비중이 76.3%, 농축산물 판매(인터넷 판매) 이용 비중은 25%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25.6%가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0대 여성농업인의 90% 정도가 집에 컴퓨터가 있어 정보화 교육을 위한 기반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 의식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38.6%가 본인을 전문적인 농업인이라고 평가하며, 61.4%는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연령층의 여성농업인과 고졸 이상의 비교적 고학력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신을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농업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경영주, 40~60대의 연령층,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가사일과 농사일을 병행하기가 힘들다] 항목의 4점 척도 평균점수가 3.4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으며, 그 다음이 [영농기술 부족과 농기계 조작의 어려움]이 3.42점, [생산자 조직활동의 어려움]이 3.27점, [농업 정보 및 법적지식 부족]이 3.27점, [영농 및 창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음] 등의 순이었다. 영농활동, 조직활동, 교육참여 등에 있어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남녀 차별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2.86점으로 남녀차별에 의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복지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43% 여성농업인이 건강이 안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고령일수록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출산 후 10일 동안 농사일을 하지 않

고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노동 및 보육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14.9%(N=224)가 적어도 한명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만6세미만 아동이 가구 내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5%였으며,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6.2%였다. 만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로 나타났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57.1%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은 농촌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 교육 내용, 편리한 시간대, 좋은 시설 등을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하였다.

□ 연금가입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중 자신의 명의만으로 가입하거나 남편 가입과 함께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16.9%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을 여성농업인 본인의 명의만으로 가입하거나 남편 가입과 함께 본인 명의로도 가입한 경우는 전체의 6.9%로 나타났다.

□ 문화복지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 관람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0.4%가 없다고 응답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향수는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문화향수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40대의 이용률은 비교적 높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문화시설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문화행사를 관람하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

답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행사 관람이나 문화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시간부족이 48.8%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취미나 의욕 부족 15.9%, 경제적 부담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직활동

농협 조합원을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여성농업인은 36.3%였다. 그 외에 농업인 조직별 가입률은 10%에 이르지 못했는데, 작목반에는 8.2%,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는 3.4%의 여성농업인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6.6%의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40대, 5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부분의 조직에서 고연령층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농협 조합원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고령층보다 39세 이하 연령층의 가입률이 오히려 낮아, 젊은 여성농업인 연령층이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조직 참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농촌거주 의향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역에서 살겠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92%이다. 여성농업인이 저연령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농촌거주의사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 농업인 123명에게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농사일이 힘들어서’(53.7%), ‘소득이 낮아서’(18.7%),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연령과 가구형태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40세 미만 층의 경우 ‘아이들 교육문제’를 이유로 드는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40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낮거나’ ‘농사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젊은

층에서 높고,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여성농업인의 교육현황과 교육수요

최근 3년간 설문 항목의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전체의 21.3%(320명)이다. 또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취미, 여가, 교양’과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을 교육 받는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각각 8.7%, 8.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밖의 교육의 경우 전체 여성 중 교육 경험을 가진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5% 미만이다.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545명 중 60%가 ‘취미/여가/교양’을 희망하고,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한 농업정보 활용’(33.8%), ‘농업생산기술’(26.1%), ‘부업/자격증 취득’(16.9%), ‘농업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15.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보다는 취미, 부업, 컴퓨터 교육,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졸 이상의 학력 층일수록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교육과 부업 교육에서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

평소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39.4%),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22.7%),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19.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농업인 정책 및 제도 인지도와 이용현황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1%이고, 정책 및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 비율은 9%로 나타났다. 2003년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20%미만, 정책 이용율 5% 미만 수준과 비

교할 때, 2008년의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은 많이 향상되었다 평가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 및 제도 중에서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제도(23.7%),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22.5%) 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농업인대회(3.3%), 여성농업인센터(2.4%) 등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

향후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여성농업인의 38.7%가 ‘복지시설 및 복지 제도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28.2%가 ‘노동부담 경감’, 10.3%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9.1%가 ‘농업관련 기술 및 자금지원’, 7.7%가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4.6%가 ‘전문경영교육 강화’로 응답하였다.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지제도 확대가 선정된 이유는 조사대상 여성의 60%가 60대 이상이라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40대 미만 여성농업인의 40.5%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인력화와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0대,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31%는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4.7%가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을 제1과제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업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농촌사회에서 활발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 여성농업인에게는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인한 여가생활이 부족과 건강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활동하기 편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44%가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충을 제1순위 정책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30.7%가 노동부담 경감으로 응답하였다.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2003년과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비교

2.1. 조사대상 및 방법

2003년과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모두 전국(제주 제외) 농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여성농업인 중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농사에 종사한 여성이다. 두 실태조사의 표본추출 모집단은 각각 2000년과 2005년 농업총조사의 35,146개와 36,414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추출 방법은 총조사의 표본 조사구를 지역과 영농형태별로 계통추출하고, 선정된 표본조사구내에서 표본농가는 조사구내 농가들의 영농형태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확률로 추출한다. 표본 크기는 2003년은 1,521농가이며, 2008년은 1,501농가이다.

표 7-1.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방법 비교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모집단	전국(제주 제외) 농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여성농업인 중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농사에 종사한 여성	전국(제주 제외) 농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여성농업인 중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농사에 종사한 여성
표본추출 모집단	2000년 농업총조사의 35,146개 조사구	2005년 농업총조사의 36,414개 조사구
표본크기	1,521가구(유효표본)	1,501가구(유효표본)
표본추출 방법	지역과 영농형태를 고려한 층화 후 무작위 추출법	지역과 영농형태를 고려한 층화 후 무작위 추출법
표본오차	±2.5%(신뢰수준 95%)	±2.5%(신뢰수준 95%)

2.2. 여성농업인 인적 및 가구특성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 연령분포를 비교하면, 60대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 비중이 2003년에 50.4%에서 2008년 60.4%로 증가한 반면, 40대 미만 젊은 여성농업인 비중은 2003년 22.6%에서 2008년 13.6%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지난 5년간 40대 미만의 신규 젊은 여성농업인의 유입은 거의 없었고, 농촌에 계속 거주한 기존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는 심화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로 무배우자인 여성농업인 비율도 200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두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 학력수준 분포에서는 2008년에 고졸이상 여성농업인 비중이 약간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원수, 가구형태 비교에서는 2003년에 비해 2008년에 가구원수가 1명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비중이 증가한 반면, 부모자녀가구와 3대가구는 감소하였다. 2003년에 비해 2008년 겸업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2.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 인적 및 가구특성 비교
단위: %

구분	내역	2003	2008	구분	내역	2003	2008
연령	39세 이하	5.7	2.8	가구원수	1명	11.6	16.1
	40대	16.9	10.7		2명	44.6	49.4
	50대	27.1	26.0		3-4명	28.4	23.6
	60대	36.3	33.6		5명이상	15.4	11.0
	70대 이상	14.1	26.8		계	100	100
	계	100	100		가구형태	단독가구	11.6
학력	초졸 이하	77.1	75.8	부부가구		41.6	45.4
	중졸	13.5	13.7	부모자녀가구 ¹		29.5	22.3
	고졸	8.9	9.3	3대가구 ²		16.0	13.2
	전문대졸	0.5	1.2	기타		1.3	3.0
	계	100	100	계		100	100
혼인상태	유배우	81.3	75.0	농가유형	전업가구	73.2	69.6
	무배우	18.7	25.0		겸업가구	26.8	30.4
	계	100	100		계	100	100

주: 1. 편부모+자녀 가구 포함
2. 조부모+손자녀 가구 포함

2.3.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 결과 비교

겸업종사 여성농업인 비중은 2003년 8.7%에서 2008년 13.1%로 증가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겸업일 종류는 두 실태조사 모두 생산직과 자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이 농가 경영주인 비중은 2003년 27.7%, 2008년 26.3%로 거의 비슷한 결과이며, 총 농가 소유 농지 중 여성소유 농지의 비중은 2003년 14.9%에 비해 2008년은 16.3%로 여성소유 농지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03년과 2008년 여성농업인 명의 예금통장 보유 비율은

48%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라 평균 영농종사경력은 2003년에 비해 2008년 더 길게 나타났다. 향후 농관련 사업 참여 및 창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3년과 2008년 모두 11%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 참여 및 창업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안 농사일을 절반이상 담당한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2003년의 경우 전체의 75%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2008년은 44%로 2003년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설문 보기 문항의 차이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증가 등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현상은 여성농업인의 하루 노동시간 배분 실태에서도 나타난다. 즉, 2003년에 비해 2008년 평균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적어진 반면, 농외노동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관련한 컴퓨터 이용률은 증가하였으며, 건강검진율, 문화시설 이용도, 만6세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여성농업인의 농협, 작목반 등의 조직 참여도 등은 2003년에 비해 2008년에 많이 향상되었다.

여성농업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03년 20%미만에서 2008년 51%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2008년에는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제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제도 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정책 및 제도 이용률도 2003년 5%에서 2008년 9%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의 홍보 및 실효성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2003년에 비해 2008년 신규 젊은 여성농업인의 유입저조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년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외소득활동은 증가하고, 농지 소유율, 조직 참여도 등은 높아져 농업인으로서 지위는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단순 노동집약적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가 남편에 비해 낮으며, 일반 취업여성에 비해 많은 시간을 농업노동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과중한 노동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각 항목별 결과 비교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21)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01)
겸업종사 여성농업인 비중	8.7%	13.1%
겸업일 종류	생산직 28.8%, 자영업 19.7%, 서비스직 9.9%, 판매직 6.8%, 사무직 2.3%, 기타 32.6%	자영업 34.2%, 생산직 28.1%, 서비스직 3.6%, 판매직 2%, 사무직 2%, 기타 30.2%
여성경영주 비중	27.7%	26.3%
총 농가 소유 농지 중 여성소유 농지의 비중	전체 농지 14.9% 는 14.5%, 밭 15.1%, 과수원 11.2%	전체 농지 16.3% 는 15.6%, 밭 14.5%, 과수원 17.4%
여성농업인의 자산보유 현황	48.3%가 본인 명의 예금통장 소유	48.7%가 본인 명의 예금통장 소유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21) 평균 33.8년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01) 평균36.4년
농업종사경력	5년 이하 4.8%, 6-10년 5.1%, 11-20년 11.8%, 21-30년 21.4%, 31년 이상 56.9%	5년 이하 3.1%, 6-10년 5.9%, 11-20년 10.3%, 21-30년 16.4%, 31년 이상 64.4%
농관련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	11.1% 농관련 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8.5% 농산물 가공 6.7% 관광사업 1.9%	10.7% 농관련 사업 취업 및 창업 의향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9.8% 농산물 가공 3.7% 관광사업 1.2% * 6.2% 일반 취업 및 창업 의향
농사일 담당 비중	75.4%가 절반이상 담당 거의하지 않음 1.3% 30%정도 담당 23.4% 절반정도 담당 44.4% 80%이상 담당 7.3% 거의 모두 맡아함 23.7%	43.6%가 절반이상 담당 20%미만 9.4% 20-50%미만 47% 50-70% 미만 19.4% 70% 이상 24.2% 모름/무응답 0.1%

표 7-3.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각 항목별 결과 비교 (계속)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21)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01)
농업노동시간	<p>동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동번기- 63.3%가 10시간 이상 농업노동 농한기- 0.8%가 10시간 이상 농업노동 동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44.7%가 10시간 이상 농업노동</p>	<p>동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동번기- 50.9%가 10시간 이상 농업노동 농한기- 0.5%가 10시간 이상 농업노동 동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44.3%가 10시간 이상 농업노동</p>
가사노동시간	<p>동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동번기- 7.1%가 5시간 이상 농업노동 농한기- 16.6%가 5시간 이상 농업노동 동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13.2%가 5시간 이상 농업노동</p>	<p>동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동번기- 5.3%가 5시간 이상 농업노동 농한기- 14.9%가 5시간 이상 농업노동 동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4.8%가 5시간 이상 농업노동</p>
농외노동 참여	<p>동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동번기- 6.5%가 농업노동+농외노동 농한기- 11.7%가 농업노동+농외노동 동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9.1%가 농업노동+농외노동</p>	<p>동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동번기- 9.3%가 농업노동+농외노동 농한기- 11.3%가 농업노동+농외노동 동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11.8%가 농업노동+농외노동</p>

표 7-3.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각 항목별 결과 비교 (계속)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21)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01)
농외노동시간	농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 6시간 19분 농한기- 7시간 12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6시간 36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 5시간 41분 농한기- 6시간 7분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음: 5시간 30분
정보화 수준	사용할 줄 알지만 농업관련 사용 안함 6.8% 농업과 관련 컴퓨터 사용 3.0%	사용할 줄 알지만 농업관련 사용 안함 10.7% 농업과 관련 컴퓨터 사용 5.1%
농업인 정체성	46.7% 전문적인 여성농업인	38.6% 전문적인 농업인
건강검진	49.8%가 있음	80.4%가 있음
산후조리기간	평균 9.05일	평균 10일
만6세 아동 존재	5.9%가 있음	4.7%가 있음

표 7-3.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각 항목별 결과 비교 (계속)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21)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01)
만6세 미만 아동 보육현황	48.9% 보육시설에 보낸다 51.1% 집에서 돌본다	57.1% 보육시설에 보낸다 42.9% 집에서 돌본다
연금가입 현황	11.2%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남편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가입	16.9%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남편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가입
문화향수	16.0%가 참석한 적 있음	30%가 참석한 적 있음
조직가입 및 활동	25.7% 농협 및 축협 4.4% 작목반 3.1% 농업법인 18.7% 여성농업인단체	36.3% 농협 및 축협 8.2% 작목반 3.4% 농업법인 26.6% 여성농업인단체

표 7-3.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각 항목별 결과 비교 (계속)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21)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01)
농촌거주의향	89.7% 농촌에 살고 싶다 10.3% 농촌을 떠나고 싶다	91.8% 농촌에 살고 싶다 8.2% 농촌을 떠나고 싶다
교육경험	농업생산기술 10.1% 취미/여가/교양 7.1% 컴퓨터이용 농업정보활용 5.1% 여성농업인지도교육 4.5% 부업/자격증취득 2.3%	농업생산기술 8.3% 취미/여가/교양 8.7% 컴퓨터이용 농업정보활용 4.2% 여성농업인지도교육 3.7% 부업/자격증취득 0.7%
교육수요	1순위: 취미/여가/교양 2순위: 부업/자격증 취득 3순위: 컴퓨터이용 농업정보활용	1순위: 취미/여가/교양 2순위: 컴퓨터이용 농업정보활용 3순위: 농업생산기술

표 7-3. 2003년과 2008년 실태조사의 각 항목별 결과 비교 (계속)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21)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N=1,501)
여성농업인정책 인지도	<p>진척 인지도 20%</p> <p>1순위: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20.7%) 2순위: 여성농업인대회(20.3%) 3순위: 여성농업인센터(13.1%)</p>	<p>진척 인지도 51%</p> <p>1순위: 고품취약농가 가사도우미제도(23.7%) 2순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22.5%) 3순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제도(19.6%)</p>
여성농업인정책 이용도	<p>진척 이용도 5%</p> <p>1순위: 여성농업인대회(4.8%) 2순위: 여성농업인센터(2.6%) 3순위: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2.3%)</p>	<p>진척 이용도 9%</p> <p>1순위: 여성농업인대회(3.3%) 2순위: 여성농업인센터(2.4%) 3순위: 농협복수조합원제도(2.2%)</p>

참고 문헌

- 강혜정·마상진. 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개발연구원.
- 김영옥·김이선. 200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김정호·최경환·이용호. 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2006.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http://woman.maf.go.kr>).
- 농림부. 2007.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 보고회.
- 박민선. 2000. “EU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부록 1.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 성별 농가인구 추이('70~'07)

단위: 천 명

	농가인구	남 성		여 성	
			구성비(%)		구성비(%)
'70	14,422	7,164	49.7	7,258	50.3
'80	10,827	5,415	50.0	5,412	50.0
'85	8,521	4,246	49.8	4,275	50.2
'90	6,661	3,279	49.2	3,382	50.8
'95	4,851	2,373	48.9	2,478	51.1
'00	4,032	1,972	48.9	2,060	51.1
'01	3,933	1,902	48.4	2,031	51.6
02	3,591	1,748	48.7	1,843	51.3
03	3,530	1,715	48.6	1,815	51.4
'04	3,415	1,654	48.4	1,761	51.6
'05	3,434	1,677	48.8	1,757	51.2
'06	3,304	1,607	48.6	1,697	51.4
'07	3,274	1,590	48.6	1,684	51.4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각연도.

□ 여성 농업주종사 인구 추이('03~'07)

단위: 천 명

		계	남자		여자	
			명	%	명	%
2003	15세 이상 농가인구	3,153	1,513	48.0	1,640	52.0
	농업주종사 인구	2,059	974	47.3	1,084	52.7
2004	15세 이상 농가인구	3,062	1,467	47.9	1,595	52.1
	농업주종사 인구	2,015	947	47.0	1,067	53.0
2005	15세 이상 농가인구	3,098	1,498	48.4	1,600	51.6
	농업주종사 인구	2,121	1,020	48.1	1,101	51.9
2006	15세 이상 농가인구	2,989	1,437	48.1	1,552	51.9
	농업주종사 인구	1,975	947	47.9	1,028	52.1
2007	15세 이상 농가인구	2,966	1,424	48.0	1,542	52.0
	농업주종사 인구	1,933	915	47.3	1,018	52.7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각연도.

□ 노동유형별 남녀 농가인구의 연평균 농업노동시간('03~'07)

단위: 시간

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족노동	전체	1,208.65	1,211.25	1,178.64	1,118.64	1,078.33
	남자	672.02	668.66	651.7	619.23	599.75
	여자	536.63	542.59	526.94	499.41	478.58
품앗이	전체	65.37	47.01	46.05	39.62	36.24
	남자	26.66	20.44	18.18	15.61	12.36
	여자	38.71	26.58	27.87	24	23.88
고용노동	전체	192.83	218.08	199.63	189.99	195.11
	남자	40.8	31.76	31.55	33.61	32.15
	여자	152.03	186.33	168.08	156.38	162.96
일손돕기	전체	37.85	37.07	45.57	45.1	44.13
	남자	22.03	21.53	27.04	26.98	27.12
	여자	15.82	15.55	18.53	18.12	17.01
단일위탁	전체	11.21	16.49	17.6	15.55	13.96
	남자	10.41	15.59	16.61	14.79	13.23
	여자	0.80	0.89	0.99	0.77	0.7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연도.

□ 여성 경영주 비중 변화 추이('00~'07)

	남성 경영주		여성 경영주		합계
	가구	%	가구	%	
2000	1,159,948	83.8	223,520	16.2	1,383,468 (100)
2001	1,136,344	83.9	217,343	16.1	1,353,687 (100)
2002	1,084,325	84.7	196,137	15.3	1,280,462 (100)
2003	1,060,596	83.9	203,835	16.1	1,264,431 (100)
2004	1,033,031	83.3	207,375	16.7	1,240,406 (100)
2005	1,056,202	83.0	216,706	17.0	1,272,908 (100)
2006	1,032,569	82.9	212,514	17.1	1,245,083 (100)
2007	1,016,938	82.6	214,071	17.4	1,231,009 (100)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각연도.

□ 여성 경영주 연령 분포('00~'07)

단위: 가구

연도	계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00	223,520	3,265	15,357	47,265	51,785	57,378
2001	217,343	2,056	12,960	42,582	54,159	56,671
2002	196,137	2,191	10,365	34,287	51,311	56,638
2003	203,835	1,568	11,074	33,910	53,988	64,241
2004	207,375	939	10,379	32,791	54,507	70,665
2005	216,706	2,271	11,585	34,102	87,711	81,037
2006	212,514	2,348	12,600	34,741	81,364	81,462
2007	214,071	2,255	10,881	33,108	79,493	88,334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각연도.

□ 지방자치단체 여성 통·리장 현황

('07.12.31 현재, 단위: 명, %)

	합계			통장			이장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합계	92,111	35,315	38.3%	56,247	33,714	59.9%	3,6360	1,613	4.4%
서울	13,125	8,369	63.8%	13,125	8,369	63.8%			
부산	4,663	2,480	53.2%	4,537	2,473	54.5%	126	7	5.6%
대구	3,361	1,645	48.9%	3,113	1,592	51.1%	248	53	21.4%
인천	3,848	2,477	64.4%	3,592	2,472	68.8%	256	5	2.0%
광주	2,075	1,379	66.5%	2,075	1,379	66.5%			
대전	2,746	1,675	61.0%	2,746	1,675	61.0%			
울산	1,361	821	60.3%	1,033	781	75.6%	328	40	12.2%
경기	14,533	7,278	50.1%	1,0892	7,100	65.2%	3,926	186	4.7%
강원	4,656	919	19.7%	2,181	876	40.2%	2,686	47	1.7%
충북	4,362	1,011	23.2%	1,632	908	55.6%	2,730	103	3.8%
충남	5,269	425	8.1%	726	303	41.7%	4,543	122	2.7%
전북	7,932	2,045	25.8%	2,857	1,798	62.9%	5,075	247	4.9%
전남	8,230	1,312	15.9%	1,628	892	54.8%	6,602	420	6.4%
경북	7,709	1,261	16.4%	2,777	1,128	40.6%	4,932	133	2.7%
경남	7,590	2,087	27.5%	2,854	1,837	64.4%	4,736	250	5.3%
제주	651	131	20.1%	479	131	27.3%	172	0	

자료: 행정안전부, 「'08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